

국립국어원 2007-3-8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소개

설립 목적

▶ 우리나라 어문 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 어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연구하여 정책 기반을 조성함.
- 어문 규정을 주관하고, 국어사전 편찬으로 교양 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짐.
- 각종 어문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국어 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국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함.
- 한국어의 국외 보급으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함.

조직

원장	기획관리과	서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혁신 관리, 감사 및 사정 업무에 관한 사항 한글날 기념행사 및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
	언어정책부	◆ 국어정책팀 국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국어 순화, 전문 용어 표준화 국어 정책 연구 사업 관리/ 남북 언어 통합, 국어책임관 등 ◆ 국어정보화팀 국어 정보화 촉진 사항/ 연구 결과 전산화 및 DB 구축 자료실, 전산실 운영 관리
	국어생활부	◆ 국어실태연구팀 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대중 매체의 언어 공공성 향상 ◆ 홍보출판팀 대중 매체를 통한 국어 문화 확산 홍보 및 교육 각종 조사 연구 결과와 간행물의 출판·발간
	국어진흥교육부	◆ 국어진흥교육팀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국어문화학교 시행 국어상담소 지정, 운영 지원 / 소외 계층의 국어 사용 지원 ◆ 한국어진흥팀 세종학당 설립 / 한국어 교원 자격 및 교육 능력 검정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지원



인원

학 예 직	일반행정직	기 능 직	계
31명	9명	8명	48명



하는 일

가 '국어기본법'에 따른 주요 활동과 사업

「국 어 기 본 법」

'05년 1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33개조(전문 27개조와 부칙 6개조)로 구성. '05년 7월, 동법 시행령 제정

※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 가.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6조, 제8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어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나. 국민의 국어 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법 제9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 다. 국어책임관 지정(법 제10조)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어문 규범 제정 및 개정, 어문 규범 영향 평가 등(법 제11조, 제12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어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어문 규범을 제정 및 개정하고,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어문규범의 현실성,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마. 공공 기관의 공문서 작성 원칙(법 제14조) 공공 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괄호 안에 쓸 수 있도록 함.

바. 전문 용어의 표준화 등(법 제17조)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함.

사. 국어의 보급 등(법 제19조)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 장관은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의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아.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 등(법 제22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 기관 간의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자. 국어능력의 검정(법 제23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

차. 국어상담소의 지정 등(법 제24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상담소로 지정할 수 있음.

1. 국어책임관 지정 및 운영

국어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공공 기관에 국어책임관을 지정.

<국어책임관의 업무 범위>

- 공공기관 내 국어사용 개선을 위한 업무
 - 쉽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한 각종 교육 실시
 - 다듬은 행정 용어·전문 용어 사용 장려
 - 국어책임관 관리 및 지원
- 지역 주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업무
 - 지역 주민의 국어 능력 향상
 - 지역의 언어 경관 개선
 - 지역의 언어문화유산 보전

<국어책임관을 지정한 부처·기관>

- 18개 중앙행정기관(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건설교통부) 4개 처(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16개 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산림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도, 제주도) 그 밖(청와대,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2. 전국적인 국어 생활상담망 구축을 위한 국어상담소 지정

국민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전국적인 국어 생활 상담망을 구축함. 현재 전국 14개소의 국어상담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 어문 규범 등 국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강의 제공,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법 지도, 공공 기관의 공문서·자료 감수, 시민 대상의 글쓰기·말하기 지도, 어휘력·문장력 향상 등의 업무를 추진함.

전국 국어상담소 지정 현황(2007.3. 현재)

지역	명칭	소재지	대표자(소장)	연락처
서울·경기	국립국어원 국어진흥팀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www.korean.go.kr	정호성	02)2669-9732 02)2669-9726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공의 아침 오피스텔 3단지 415호 http://www.barunmal.org	남영신	02)735-099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상담소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 627호 http://munjang.net	박창원	02)3277-3250, 4056
	한국방송공사 국어상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http://korean.kbs.co.kr/main.php/	박영주	02)781-3838
강원도	강원대 국어상담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 2동 192-1	남기탁	033)252-4253 250-8120
충청북도	충북대 국어상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 http://korean.chungbuk.ac.kr	조항범	043)261-2099 261-3450
	청주대 국어상담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36 www.koreanlab.or.kr	김희숙	043)229-8319 229-8311
충청남도	상명대학교 국어상담소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20 http://korean.smuc.ac.kr	구현정	041)581-2530 550-5391

지 역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소장)	연락처
전라북도	전주대 한국어 문화교육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소강춘	063)225-6115 220-3061
광주· 전라남도	전남대 국어교육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http://kor.chonnam.ac.kr	서상준	062)530-2413 530-2417
대구· 경상북도	경북대 국어생활상담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http://www.knukorean.knu.ac.kr	홍사만	053)950-5106 950-7498
	영남대 국어생활 상담연구센터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http://cork.yu.ac.kr	서종학	053)810-3192 810-3561
부산· 경상남도	동아대 국어상담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840 http://kor.donga.ac.kr	하치근	051)200-7025 200-7180
	경상대 국어문화센터	경남 진주시 기좌동 900 http://ckc.gsnu.ac.kr	김용석	055)751-5581 751-6195
제주도	제주대 국어상담소	제주도 제주시 아래동 1	강영봉	064)754-2715 754-2710

3. 국어문화학교 운영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운영함. 특히 2007년부터는 맞춤형 국어 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다양한 목적과 수준의 수요에 대처할 예정임.

- 교육 과정

- 원내 국어문화학교 ‘국어반’, ‘교사 직무연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 * 일정과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 참조
- 향후, 원내에 맞춤형 국어전문교육과정 수시 개설 예정

※ 찾아가는 문화학교 강좌 신청 안내

원내 국어문화학교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기관·단체의 신청에 따라 강의 제공(수강생 30명 이상, 날짜와 시간, 과목 등은 사전 협의 / 강사와 교재는 무상 지원)

§ 문의: 국어문화학교 사무실(전화: (02)2669-9752, 9729, 9736 전송: 2669-9747, 9787)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원내외) 연도별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획)	계
원내 국어 문화 학교	과정 개설	22개반	25개반	29개반	30개반	30개반	32개반	56개반	224개반
	수강 인원	1,292명	1,452명	1,486명	1,458명	1,765명	1,921명	2,300명	11,674명
찾아 가는 문화 학교	강의 횟수	123회	185회	157회	176회	195회	190회	190회	1,216회
	수강 인원	15,412명	16,970명	17,890명	16,332명	15,655명	12,926명	13,000명	108,185명

나 대국민 편의 제공

1. <표준국어대사전> 및 국어정보 검색

-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자료 검색 가능.

2. 국어 생활 편의 제공

- 가나다 전화(02-771-9909) 월~금 매일(09:00~18:00) 전화 상담원이 한국어 어문 규정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운영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묻고 답하기’에서도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발간함. 국어원 누리집에서 과월호 검색 가능. 2003년 봄호부터 유가지로 출간.
-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매월 발간하여 전자우편으로 발송함. 누리집에서 과월호 검색 가능. 정기 수신 요청은 news@korean.go.kr로.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운영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동아일보, 동아닷컴 등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차 례

한글 맞춤법 안효경	3
띄어쓰기 권미영	17
표준어 규정 안효경	35
바른 발음과 발성 황연신	45
외래어 표기법 김수현	67
로마자 표기법 권미영	79
언어 예절 전수태	91
흔히 잘못 쓰는 말들 여규병	119
공문서 쓰기 김희진	133
우리말 다듬기 이대성	163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교수 화법 지연숙	177
대화와 인간관계 전정미	187
국어생활의 쟁점 김진해	211
문학과 언어 남기홍	239



한글 맞춤법

안 효 경*

〈한글 맞춤법의 원리〉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리 나는 대로 쓰기와 원래의 형태 밝혀 적기

- 꽃잎이 바람에 흩날린다. / 꾀니피 바라메 혼날린다.
- 꽃도, 꽃만, 꽃이 / 꼬또, 꾀만, 꼬치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따르면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원칙에 따라 [돌], [눈물], [꿈]으로 소리 나는 말을 ‘돌’, ‘눈물’, ‘꿈’으로 적는다. 그런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은 왜 필요한 것일까?

(2) 두 마리 토끼 - 읽기 쉬운 표기법과 쓰기 쉬운 표기법

- ‘꽃을 꺾다’와 ‘꽃만 꺾다’의 ‘꽃’이 같은 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 ‘소리대로 적는’ 원칙만 따른다면 ‘꼬츨 꺾따’와 ‘꾀만 꺾따’의 ‘꼬’와 ‘꾀’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꽃을 꺾다’와 ‘꽃만 꺾다’의 ‘꽃’이 같은 말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꽃’이라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고 같은 표기로 적기 때문이다. 만약 ‘소리대로’라는 원칙에만 따라 ‘꼬출, 끈만’이라고 적는다면 ‘꼬’와 ‘끈’이 같은 말임을 알아보는 데에, ‘꼳’이라고 하나로 적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형태를 고정해서 적는 것이 글을 읽을 때 눈에 잘 들어움을 알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서 말하는 어법이란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는 동일한 표기로 적는다는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1. 소리에 관한 맞춤법

(1) 된소리 제대로 표기하기

1-1. 머리를 싹둑(?) 잘랐다.

‘ㄱ’이나 ‘ㄴ’ 받침은 뒷소리를 된소리로 만든다. 따라서 ‘ㄱ, ㄴ’의 영향을 받아서 언제나 된소리가 나는 ‘싹둑, 법석’은 ‘싹뚝, 법씩’으로 적지 않는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진수는 땅바닥에 {털석/털씩} 주저앉고 말았다.
- (2)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산듯해지느/산뜻해지느} 듯하다.
- (3) 장인어른에게 {넙죽/넙쭈} 절을 했다.
- (4) 계속 {쑥덕/쑥떡}거리는 사람에게는 쑥떡을 하나 주어라.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몹씨 화를 내셨다.
- (2) 빨래터에 새색씨들이 옹기종기 모여 빨래를 하고 있다.
- (3) 친구가 갑짜기 울음을 터뜨렸다.
- (4)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바로 우리 마을의 보배입니다.

1-2. 눈에 눈꼽(?)이 잔뜩 껴다.

‘눈꼽, 눈쌀’은 ‘눈’과 독립적인 말인 ‘곱’과 ‘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따라서 비록 [눈꼽], [눈쌀]로 소리 나지만 ‘눈꼽, 눈쌀’로 적지는 않는다.



(2) 두음법칙 적용하기

2-1. 뇨도염(?)에 걸렸다.

단어 첫머리에 ‘ㄴ, ㄹ’이 오는 것을 꺼리는 두음법칙에 따라 한자음 ‘녀, 뇨, 뉴, 니’ 또는 ‘랴, 려, 레, 료, 류, 리’는 단어 첫머리에서 ‘ㅇ’으로, ‘라, 래, 로, 뢰, 루, 르’는 ‘ㄴ’으로 된다. 그러나 ‘남녀’의 ‘녀’처럼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나 ‘년, 리, 냥’과 같이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옛날이면 금 열 {양/냥} 값인데.
 - (2) {선동열/선동렬}은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 (3) 분위기가 너무 {냉냉했다/냉랭했다}.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아들은 그 사이 늙늙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다.
 - (2) 그 공원에는 류관순 동상이 세워져 있다.
 - (3) 오늘은 김륜식 교수님을 찾아 뵈려고 한다.
 - (4) 내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는 ‘냥냥 18세’이다.

2-2. ‘회계연도’인가 ‘회계년도’인가 잘 모르겠다.

‘會計 年度’는 한 단어가 아니라 ‘회계’와 ‘연도’ 두 단어로 이루어진 용어이므로 ‘회계 연도’로 표기해야 한다. ‘신년도’와 ‘신여성’은 단어의 구조가 서로 다른 말이다. ‘신년도’는 ‘신년’에 ‘도’가 붙은 말이므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데 비해 ‘신여성’은 ‘여성’에 ‘신’이 붙은 구조이므로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종소리와 함께 대망의 {2000년대/2000년대}가 밝았다.
 - (2) 하루에 5시간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는 {중노동/중로동}이다.



- (3) {구연도/구년도} 달력은 모두 창고에 갖다 놓았다.
- (4) 역시 {고냉지/고랭지} 배추가 더 맛있는 것 같다.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실락원’이라는 책 읽어 봤어요?
- (2)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기분이 우울해진다.
- (3) 남존녀비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
- (4) 그 자리는 경노석이니 앉지 마세요.

2-3. ‘성공률’이 맞는가? 아니면 ‘성공율’이 맞는가?

‘율/률’은 ____ 과 ____ 받침 뒤에서는 ‘__’이 되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__’이 된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올해의 물가 {상승율/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다.
- (2) 과일 음료수의 성분 중에서 실제 과일의 함량 {비율/비률}은 많지 않다.
- (3) 그 분을 기리는 {충열탑/충렬탑}이 세워져 있다.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1/2을 백분률로 바꾸세요.
- (2) 우리 학과의 대기업 합격율은 다른 학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 (3) 여러 방향으로 분렬된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만 합니다.

2-4. ‘노동량’? ‘노동양’?

한자어 ‘量’과 ‘欄’은 앞말에 따라 ‘량’과 ‘양’ 그리고 ‘란’과 ‘난’이 된다. 앞말이 한자어일 때는 ‘량’이 되고 고유어나 외래어일 때는 ‘양’이 된다. 그 이유는 ‘量’과 ‘欄’ 같은 한 음절의 한자어가 한자어 다음에 쓰일 때에는 별개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독자난/독자란}에 재미있는 글이 실려 있어요.
- (2) 오늘 해야 할 {작업양/작업량}을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 (3) 오늘은 {구름양/구름량}이 유난히 적은 날이라고 해요.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펜팔란에서 찾아 보세요.
- (2) 갈습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 (3) 날이 갈수록 감자 배분량이 적어지고 있다.

2. 조사와 어미에 관한 맞춤법

(3) 어미 ‘-오’와 조사 ‘요’를 구별하자.

‘-오’와 ‘요’는 문법적 기능이 다르다. ‘-오’는 종결 어미로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하므로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데 비하여 ‘요’는 문장의 끝에 붙어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략했을 때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면 ‘-오’이고 성립하면 ‘요’라고 할 수 있다. 단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요’처럼 ‘이고’와 같은 뜻을 가진 나열형일 때는 ‘이요’이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예, {아니오/아니요}로 답하시오.
- (2) 다 먹은 접시는 저를 {주십시오/주십시요}
- (3) 아니, 이게 {뉘시오/뉘시요}?
- (4) 오늘 철수가 온다고 했니? {아니오/아니요} 영수가 온다고 했어요.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나는 의사가 아니요.
- (2) 이것은 책상이요 저것은 책장이다.
- (3) 말씀 낮추십시오.



(4) ‘되다’와 ‘돼다’는 정말 혼동돼.

‘돼’는 ‘되어’의 준말이다. 따라서 ‘되어’로 풀 수 있으면 ‘돼’라고 할 수 있다. ‘부지런한 사람이 돼라’의 ‘돼라’는 ‘되-’ + ‘-어라(직접명령어미)’의 구조이므로 ‘되-’ + ‘-(으)라(간접명령어미)’의 구조인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의 ‘되라’와는 구별해야 한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시오.

- (1) 옆 사람에게 기대시면 {되요/돼요}.
- (2) 그게 말이 {되느냐/돼느냐}?
- (3) 그렇게 하면 안 {되/돼}.

• 잘못된 곳을 찾아 맞게 고치시오.

- (1) 이제 참새만 그려 넣으면 돼죠.
- (2) 제발 사람 좀 되라.
- (3) 내가 그렇게 돼라고 빌었니?
- (4) 그 일은 잘 되도 걱정, 잘 안 돼도 걱정이에요.

(5) ‘-다’ 기본형 잘 찾기

☉ 손을 물에 담궈야(?) 한다.

‘담궈야’의 기본형은 ‘_____’이므로, ‘____-’ + ‘-어/아’=_____이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문을 꼭 {잠가라/잠귀라}.
- (2) 김치를 직접 {담가/담귀} 드세요?
- (3) 예전에 수희랑 민수가 서로 {사궈대/사궈엿대}.
- (4) 이번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렀다/치뤘다}.



(6) 된소리가 나는 어미 바르게 쓰기 : 살게? 살께?

소리는 [살게]로 나지만 쓸 때는 ‘살께’로 쓴다. ‘살걸’, ‘살거나?’도 마찬가지로 소리는 ‘살걸’, ‘살거나’로 나도 적을 때는 ‘살걸’, ‘살거나’로 적는다. ‘내가 살까?’, ‘내가 갈쏘냐’, ‘어찌 살꼬’의 경우는 소리대로 ‘-르까’, ‘-르쏘냐’, ‘-르꼬’로 적는다.

3. 파생어와 합성어에 관한 맞춤법

(7) 명사형 어미 ‘-(으)ㄴ’ 결합시키기

● ‘쭯’이라는 표기가 맞나?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형태로 바뀌주는 어미로, 명사형 어미 ‘-(으)ㄴ’이 있다. ‘떡-’처럼 받침이 있는 어간과 결합할 때는 ‘-음’이 ‘가-’처럼 받침 없는 어간과 결합할 때는 ‘-ㄴ’이 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쭯-다’처럼 ‘ㄴ’ 받침을 가진 어간은 ‘-ㄴ’ 명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ㄴㄴ’ 형태를 가지게 된다.

문

• 다음을 명사형으로 바꾸세요.

- 떨다 → 나누다 → 그림다 →
- 짓다 → 걷다 → 둥글다 →

◆ 쉬어가는 자리 1 : 자리 있음(?)

1988년에 어문 규범이 개정되면서 ‘-읍니다’는 ‘-습니다’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것을 확대 적용하여 ‘있다’의 명사형도 ‘있음’이 아니라 ‘있습’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ㄴ’을 제외한 받침 있는 어간과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는 ‘-음’으로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 쉬어가는 자리 2 : 체계 계획이 {있아오니 / 있사오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있사오니’의 ‘-사오-’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출 때 사용하는 어미이다.

(8)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 된 말 원형 밝혀 적기

‘오뚝하다’의 ‘오뚝’처럼 ‘-하다’나 ‘-거리다’가 결합할 수 있는 말에 ‘-이’가 붙어서 된 명사 ‘오뚝이’의 경우 ‘오뚝’이라는 원래의 형태를 밝혀서 적어 준다. 이는 시각적으로 형태를 고정시킴으로써 ‘오뚝하다’의 ‘오뚝’과 ‘오뚝이’의 ‘오뚝’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우리 신앙은 {배불뚝이/배불뚜기}이다.
- (2) 내 옷은 완전히 {누덕이/누더기}가 다 됐어요.

(9) 부사화 접미사 ‘-이/-히’ 바르게 쓰기 : 버젓이? 버젓히?

부사의 끝이 분명히 ‘이’로만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확한 발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의 기준에 따르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1) ‘이’로 적는 경우

- ① ㄱ받침으로 끝나는 순 우리말 뒤 : 깊숙이, 멀찍이
- ② ㄴ받침 규칙 용언 뒤 : 가벼이, 쉬이
- ③ ㄷ받침 뒤 : 버젓이, 지긋이
- ④ 첩어 명사 뒤 : 일일이, 틈틈이
- ⑤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 같이, 굳이
- ⑥ 부사 뒤 : 더욱이, 일찍이

(2) ‘히’로 적는 경우

- ‘-하다’가 붙는 어간 뒤 : 열심히, 막연히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이/꼼꼼히} 읽어라.
- (2) 손을 {깨끗이/깨끗히} 씻어라.
- (3) 그 일만은 {도저이/도저히} 할 수 없어요.
- (4) 그 만년필 내가 {끔찍이/끔찍히} 아끼는 것이야.
- (5) {꾸준이/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간간히 비가 내리곤 했다.
- (2) 머리를 아래쪽으로 깊숙히 숙여 보세요.
- (3) 그 성은 담으로 겹겹히 둘러싸여 있었다.
- (4) 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머니와 멀찍히 떨어져서 걸으셨다.

(10) 형태 밝히기와 발음대로 적기 : 며칠? 몇 일?

‘몇 일’은 ‘며달’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몇 월 몇 일이나?’라고 쓰게 되면 [며월 며디리나]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며월 며치리나]라고 발음 되므로 ‘몇 일’이 아닌 ‘며칠’로 적어야 한다.

문 ·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 일/며칠]이지?

(11) 사이시옷 바르게 적기

11-1. 언제 사이시옷을 적는가? : 장밋빛(?) 인생

명사 합성어 중에서 그 구조가 ‘한자어+한자어’나 ‘외래어+고유어’가 아닌 경우,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② 뒷말의 첫소리가 ‘ㄴ, ㄹ’이거나 모음인 경우 이들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적는다.

11-2. 사이시옷에 예외는 없는가?

[예외1]

‘한자어+한자어’ 구성의 명사 합성어는 사이시옷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횡수’의 여섯 단어에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예외2] 윗칸(?)에 넣어라.

사이시옷이 들어갈 환경이라고 해도 ‘위쪽, 위칸’처럼 뒷말의 첫소리가 원래 거센소리나 된소리일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 쉬어가는 자리 : ‘수눔’인가요? ‘숫눔’인가요?

‘수눔’은 [순눔]이 아니라 [수눔]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숫양, 숫염소, 숫쥐’의 경우에는 [순냥], [순념소], [수쥐]로 소리가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암, 수’의 옛 형태는 각각 ‘암ㅎ’, ‘수ㅎ’이었는데 이 ‘ㅎ’으로 인해 ‘ㄱ, ㄷ, ㅂ’으로 시작되는 낱말이 ‘암, 수’ 뒤에 오게 되면 ‘ㅋ, ㅌ, ㅍ’로 소리가 나게 되고, 적을 때도 ‘수강아지’처럼 거센소리로 적는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귀병/귓병}과 {화병/화병}은 같은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없습니다.
- (2) {등교길/등곶길}에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만났다.
- (3) 올 여름 {장마비/장맛비}에 우리 논의 벼가 다 쓰러지고 말았다.
- (4) 이 일의 {대가/댓가}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된다니!
- (5) 요즘은 {전세방/전셋방} 하나 구할 돈도 없다.

•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 (1) 친구들과는 피자집에서 자주 만났었다.
- (2) 사장님께서 먼저 인삿말을 하셨다.
- (3) 비가 그치자 구름 사이로 햇님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다.
- (4) 내 동생은 화가 나면 아랫턱을 불쑥 내미는 버릇이 있다.
- (5) 저기 개나릿길이라고 표시 되어 있는 거리를 지나자마자 우회전 하세요.



4. 준말에 관한 맞춤법

(12) 무엇이 줄어든 말인가?

12-1. 게 {섯거라/섯거라}.

‘게 서 있거라’가 줄어서 된 말은 원래의 받침이 살아 있는 ‘게 섰거라’이다.

문 · ‘여기 있다’에서 줄어든 말은 ?

12-2. 옷이 {갈갈이/갈가리} 찢겼다.

‘가리-가리’에서 줄어든 말은 ‘갈가리’이다.

문 · ‘가지-가지’와 ‘고루-고루’에서 줄어든 말은?

12-3. 오늘은 웬지(?) 바다가 보고 싶다.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은 ‘웬지’이다. ‘웬지’라는 말은 없으며, ‘웬’은 ‘웬일, 웬만하면’처럼 다른 말과 결합된 형태로만 쓰이거나, ‘웬 사람이, 웬 바람이’처럼 뒤의 명사를 수식할 때 쓰인다.

(13). ‘-잖-’과 ‘-찮-’ 구별하기 : 그렇잖은? 그렇찮은?

‘그렇지 않은’ 같은 ‘-지 않-’의 준말은 ‘-잖-’으로 적고, ‘변변하지 않은’ 같은 ‘-하지 않-’의 준말은 ‘-찮-’으로 적는다.

문

· 다음 말의 준말을 써 보세요.

만만하지 않다→

적지 않은→



(14) ‘-하-’가 결합된 말이 줄어들 때 ‘-하-’가 떨어지는 양상

☉ 깨끗치(?) 못하게, 그게 무슨 짓이니?

‘깨끗지’는 ‘깨끗하지’가 줄어든 말이다. ‘하’ 앞에 [ㄱ], [ㄷ], [ㅂ] 소리로 끝나는 받침이 있을 때는 ‘하’ 전체가 떨어지지만, 그 외의 받침이 오거나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아’만 떨어지고 ‘ㅎ’은 남게 된다.

문

• 다음 중에서 바르게 표기한 것을 고르세요.

- (1) 오늘 1시에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자/실시코자/실시코저} 하오니 모두 강당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굵은 비 내리는 이 밤도 {애절구려/애절꾸려}.
- (3) 보수는 내가 {섭섭지/섭섭치} 않게 드릴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 (4) 할 말이 있으면 {서슴지/서슴치} 말고 하세요.
- (5) {생각다 못해/생각타 못해} 제가 직접 왔어요.



■ 정답

- 1-1. (문1) (1) 털썩 (2) 산뜻해지는 (3) 넘죽 (4) 쭉덕
(문2) (1) 몹시 (2) 새색시 (3) 갑자기 (4) 떡갈나무
- 2-1. (문1) (1) 냥 (2) 선동렬 (3) 냉랭했다
(문2) (1) 늪름한 (2) 유관순 (3) 김윤식 (4) 낭랑
- 2-2. (문1) (1) 2000년대 (2) 중노동 (3) 구년도 (4) 고랭지
(문2) (1) 실낙원 (2) 연말연시 (3) 남존여비 (4) 경로석
- 2-3. (문1) (1) 상승률 (2) 비율 (3) 총렬탑
(문2) (1) 백분율 (2) 합격률 (3) 분열된
- 2-4. (문1) (1) 독자란 (2) 작업량 (3) 구름양
(문2) (1) 펜팔난 (2) 칼슘양 (3) 배분량
3. (문1) (1) 아니요 (2) 주십시오 (3) 뉘시오 (4) 아니요
(문2) (1) 아니오 (2) 책상이요 (3) 틀린 곳 없음
4. (문1) (1) 돼요 (2) 되느냐 (3) 돼
(문2) (1) 되조 (2) 돼라 (3) 되라고 (4) 돼도
5. (문1) (1) 잠가라 (2) 담가 (3) 사귀었대 (4) 치렀다
7. (문1) 썩, 나눔, 그리움, 지움, 걸음, 둥글
8. (문1) (1) 배불뚝이 (2) 누더기
9. (문1) (1) 꼼꼼히 (2) 깨끗이 (3) 도저히 (4) 끔찍이 (5) 꾸준히
(문2) (1) 간간이 (2) 깊숙이 (3) 겹겹이 (4) 멀찍이
10. (문1) 며칠
- 11-2.(문1) (1) 컷병, 화병 (2) 등꽃길 (3) 장맛비 (4) 대가 (5) 전세방
(문2) (1) 피자집 (2) 인사말 (3) 해님 (4) 아래턱 (5) 개나리길
- 12-1.(문1) (1) 였다
- 12-2.(문1) 갖가지, 골고루
13. (문1) 만만찮다, 적잖다
14. (문1) (1) 실시하고자, 실시코자 (2) 애절꾸러 (3) 섭섭지 (4) 서슴지(‘서슴하지’의
줄인 말이 아님) (5) 생각다



띄어쓰기

권미영*

1. 띄어쓰기의 필요성

‘띄어쓰기’는 의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 흔히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와 같은 표현을 예로 들어, ‘띄어쓰기’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함을 역설한다. 하지만 실제로 국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띄어쓰기’와는 상관없이, 위 문장의 의미를 보통 전자 쪽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대학교 의과대학’처럼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한국대학교의과대학’처럼 붙여 쓴 경우보다 의미 파악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띄어 쓸 것인가’인데, 다음 장에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2. 띄어쓰기의 원리

현행 맞춤법에서 채택한 띄어쓰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어떻게 띄어 쓸 수 있는지 가능한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자.

- (가)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 (나)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 (다)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 (라)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 국립국어원



(가)의 경우 쪼갠 수 있는 데까지 쪼개어 잘게 띄어 써 봤다. 그러다 보니 조사 ‘에서, 를, 는’, 어미 ‘-다’, 관형사 ‘두’, 의존 명사 ‘수’를 모두 띄어 썼는데 언뜻 보아도 비실용적이다. 반면 (나)에서는 조사와 어미, 관형사와 의존 명사를 모두 앞말에 붙여 써 봤는데, 흔히 이렇게 띄어쓰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에서는 의존 형식인 조사와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쓰고, 자립 형식인 관형사와 의존 명사는 띄어 써 보았다. 끝으로 (라)에서는 통사적인 구절 단위로 끊어 보았는데, 대체로 우리가 읽을 때 끊어지는 단위와 비슷하다. 이들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현행 맞춤법은 (다)처럼 띄어 쓰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문장의 각 □□는 띄어 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맞춤법 제1장 제1항)**

잠깐!

1. 단어(*)의 정의

단어란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예 김, 좋다, 꼭, 그 등

(☺ 단어의 개념이 어려워요.) 그렇다면 사전을 이용할 수 있다. 의문이 나는 표현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면 일단 단어일 확률이 높다.

2 단어의 구성별 종류

- ① 단일어(어근) 예 김, 밥, 돌다, 가다 등
- ② 합성어(어근 + 어근) 예 김밥, 나뭇잎, 돌아가다, 뛰어놀다 등
- ③ 파생어(접두사(*) + 어근) 예 중환자, 총감독, 휘돌다, 치달다 등
(어근 + 접미사(*)) 예 선생님, 홍씨(홍가), 생각하다, 체하다 등

3. 단어의 품사별 종류

- ① 명사(의존 명사*), 대명사, 수사
- ② 조사(*)
- ③ 동사, 형용사 (용언, 어간 & 어미(*), 본용언 & 보조 용언(*))
- ④ 관형사(*), 부사
- ⑤ 감탄사

(* 표는 현행 맞춤법의 ‘띄어쓰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임.)



[질문 1] 단어는 모두 띄어 쓰나요?

☞ 그렇다. 원칙적으로 단어는 모두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두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인지(합성어, 파생어), 구(句)로 남아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라면 두 단어를 붙여 쓰지만, ‘우리 집’처럼 구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조사[예 이, 가, 을, 를, 에, 에서 등]’는 단어로 분류되지만, 의존적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질문 2] 붙여 써야 하는 의존적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앞에서 밝힌 ‘조사’ 외에 ‘접두사’, ‘접미사’, ‘어미’가 있다. 이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중(重)-’, ‘-별(別)’, ‘-었-’처럼 ‘붙임표(-)’로 의존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전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붙여 써야 한다는 띄어쓰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단어 여부 판별 방법

앞에서 두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인지(합성어, 파생어), 아니면 구(句)로 남아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 두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에 단어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기준1]

- 강의실 밖에서 {큰소리/큰√소리}가 들린다.
- 김 과장은 늘 {큰소리/큰√소리}만 친다.

☞ 두 단어가 연속되었는데, 그 두 단어의 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다면, 새 단어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도 올리게 된다. 예를 들어 ‘큰 소리’가 음성이나 음향과 같은 물리적인 소리의 크기가 큰 것을 의미한다면, 이때는 띄어 써야 한다. ‘큰’과 ‘소리’의 합으로 이 의미가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허풍, 과장’을 의미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이므로 이때는 한 단어로 보고 붙여 써야 한다.



- ㉠ (1) 저녁에 술 {한잔/한√잔} 합시다.
 (2)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딱 {한잔/한√잔}만 할게요.
 (3) 이번 면접이 잘 {안되었대요/안√되었대요}
 (4) 그래서 풀 죽어 있는 것을 보니 {안됐더라/안√됐더라}.
 (5) 우리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로 정하자.
 (6) 우리는 끝까지 의견을 {같이할/같이√할} 것이다.
 (7) {큰형/큰√형}만 도착하지 않고 있다.
 (8) {우리학교/우리√학교}는 시설이 매우 좋다.
 (9) 이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제한/전매√제한}이 없다.
 (10) 강남권에 {물량집중/물량√집중}이 극심하다.

[기준 2]

- 대통령은 은퇴한 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돌아√갔다}.
- 그쪽으로 {돌아가지/돌아√가지} 말고 직진하는 것이 낫겠다.

☞ 두 단어가 연속될 때 단어인지 판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중간에 다른 말을 삽입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속되는 두 단어 사이에 긴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김밥’처럼 이것이 하나의 단어라면 긴밀성이 강해서, ‘김**에**밥*’처럼 다른 말이 삽입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의 예에서는 ‘돌아**선** 갔다’와 같이 다른 말을 삽입할 수 있다면, 긴밀성이 약하여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겠고, 다른 말을 삽입할 수 없다면 긴밀성이 강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겠다.

- ㉠ (11) 방 안을 {둘러보았다/둘러√보았다}.
 (12) 설날에 선생님 댁에 {찾아가서/찾아√가서} 세배를 드렸다.
 (13) 이대로 {주저앉을/주저√앉을} 수는 없다.
 (14) 손을 {모아잡고/모아√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15) 할인 매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주워담기에/주워√담기에} 바꿨다.



4. 조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질문 1] 조사가 여러 개 연결된 경우에도 붙여 쓰나요?

- {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만√/이라도} 편히 쉬고 싶다.

☞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에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인데, 조사는 두 개 이상이 결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집’ 뒤에 있는 ‘에서-만-이라도’는 모두 조사이므로 전부 앞말에 붙여 써야겠다. 또한 어미 뒤에 조사를 쓸 경우에도 붙여 쓴다.

- ☞ (1) {나가면서까지도/나가면서√/까지도} 책을 보았다.
 (2) {여기에서부터입니다/여기에서√/부터입니다/여기에서부터√/입니다}.
 (3) 아직은 {좋아한다기보다/좋아한다기√/보다} 호감이 있는 정도이다.
 (4) 쌍꺼풀이 {태어날때부터/태어날√/때부터/태어날√/때√/부터} 없었다.

[질문 2] 이것도 조사인가요?

- 역시 {친구밖에/친구√/밖에} 없어.
- {이밖에/이√/밖에} 다른 요인도 많이 있었다.

☞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조사를 판별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은, 는, 이, 가, 을, 를, 에서’ 등이 조사라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밖에, 같이, 는커녕, 라고, 그려’ 등이 조사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또한 똑같은 형태이지만 품사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는데, 앞 예의 ‘밖에’에서 ‘밖’은 명사로 조사 ‘에’와 결합할 수도 있지만, ‘밖에’ 그 자체가 조사이기도 하다. 첫 번째 문장에서처럼 뒤에 부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가 올 경우, ‘그것 외에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조사’로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처럼 이런 쓰임이



아닐 경우에는 명사 ‘밖’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겠다. 아래에 혼동하기 쉬운 조사 몇몇을 정리하였다.

[혼동하기 쉬운 조사]

같이, 그려, 깨나, ㄴ즉슨, ㄴ커녕, 나마, 더러, 마는, 마따나, 마저, 만큼, 말고, 밖에, 보고, 부터, 뿐, 서부터, 라고, 야말로, 에게다, 에다가, 에서부터, 으로부터, 이시여, 이야말로, 조차, 치고, 하고, 하며, 한테 등

- ㉠ (5) {“그래.”라고/“그래.”√라고} 그가 말했다.
- (6) {“그래.”하고/“그래.”√하고} 그가 말했다.
- (7) 칠수는 {너하고/너√하고} 다투었다.
- (8) {소같이/소√같이} 일만 했다.
- (9) {친구와같이/친구와√같이} 사업을 했다.
- (10) {너같이 바보같은/너같이 바보√같은/너√같이 바보√같은} 사람은 없어.
- (11) 그 계획 {좋습니다그려/좋습니다√그려}.
- (12) {이야긴즉슨/이야긴√즉슨} 이렇다.
- (13) {빨리는커녕/빨리는√커녕} 천천히도 못 걸겠다.

☞ ‘같이’는 ‘같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로 부사로도 조사로도 사용된다. 먼저 부사인 경우에는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예 모두와 **같이** 했다.)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올랐다.)’의 뜻을 가진다. 다음으로 조사인 경우에는 ‘① ‘처럼’의 뜻(눈 **같이** 흰 꽃),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매일**같이** 지각하다.)’하는 뜻을 가진다. 따라서 ‘같이’가 부사인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조사인 경우에는 붙여 써야 하는데, 이는 대체로 앞말에 ‘와’ 같은 조사를 붙여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은 ‘같다’라는 형용사의 관형형이므로 당연히 띄어 써야 한다.



5.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질문 1] 의존 명사가 무엇인가요?

- 진상을 {들은바/들은√바}, 그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바/공헌하는√바} 없다.

☞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한다.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 단어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쓴다.

그런데 어떤 형식이 의존 명사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여 붙여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에 주요 의존 명사의 목록과 의존 명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주요 의존 명사]

것, 나름, 나위, 노릇, 놈, 등, 등등, 따름, 때문, 무렵, 바, 뻔, 뿐, 적, 줄, 즈음, 지, 터, 겸, 김, 대로, 듯이, 만, 만큼, 바람, 채, 체, 통

[의존 명사 구별 방법]

- ① 그 자리에 다른 명사를 대치할 수 있나?
(예 아는 것이 힘이다. → 지식)
- ②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나? (예 나도 할 수 있다. → 수가)
- ③ 앞에 기댈 수 있는 다른 말이 있나?(예 먹을 만큼 먹어라 → 먹을)

- ☞ (1) 나는 {내나름대로/내√나름대로/내√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2) {너때문에/너√때문에} 힘들었다.
 (3) 동생은 내 말에 {들은척도/들은√척도} 않는다.



- (4) {말하는이가/말하는√이가} 누구지?
- (5) 내일 뭐 {할거니/할√거니}?
- (6) 비가 와야 {할텐데/할√텐데}.

㉟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나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나름’이나 ‘때문’이 의존 명사이므로, 앞에 ‘제 나름대로’ 혹은 ‘그 때문에’처럼 기댈 수 있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문 2] 이것은 의존 명사인가요, 조사인가요?

- 이름이 나지 {않았을뿐이지/않았을√뿐이지} 참 성실한 사람이다.
- 우리 민족의 염원은 {통일뿐이다/통일√뿐이다}.

☞ 형태는 같은데 의존 명사이기도 조사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 앞에 기대는 말이 용언류라면 의존 명사이고, 명사류라면 조사이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않았다’는 보조 동사이므로 그 뒤에 나온 ‘뿐’을 띄어 쓰고, ‘통일’은 명사이므로 그 뒤에 나온 ‘뿐’은 붙여 써야겠다.

- ㉟ (7) {뜸나는대로/뜸나는√대로} 자료를 찾았다.
- (8) 처벌은 {법대로/법√대로} 해야 한다.
- (9) {주는만큼/주는√만큼} 받는다.
- (10) 나도 {당신만큼/당신√만큼} 할 수 있다.
- (11) 그가 화를 {넌만도/넌√만도} 하다.
- (12) 청군이 {백군만/백군√만} 못하다.
- (13) 그 때 이후 {삼년만/삼√년만/삼√년√만}이다.
- (14) 먹고는 {싫다만/싫다√만} 돈이 모자라다.
- (15) {오랜만에/오랜√만에} 고향 사람을 만났다.

㉟ ‘만’은 의존 명사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음, 가능성’이나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조사로는 ‘한정, 비교’를 의미한다. 또한 ‘마는(의문이나 반대 상황)’의 준말로 쓰이는 조사 ‘만’도 있으므로 주의해야겠다.



[질문 3] 이것은 의존 명사인가요, 접미사인가요?

- {수일내/수일√내}로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그는 {저녁내/저녁√내} 안 보였다.

☞ 형태는 같은데 의존 명사이기도 접미사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의존 명사이지만 흔히 접미사로 오해하여 잘 띄어 쓰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앞의 예에서 ‘내’는 ‘여름내, 마침내, 끝내’처럼 일부 기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이지만, ‘기간√내, 단지√내, 안전선√내’처럼 ‘일정한 범위의 안’이라는 뜻으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 (16) {부모자식간/부모√자식간/부모√자식√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 (17)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간에/하든지√간에} 열심히만 해.
- (18) 내일부터 {한달간/한√달간/한√달√간} 휴가입니다.
- (19) 과일에는 사과, 배, {감들/감√들}이 있다.
- (20) 백화점에는 {사람들/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질문 4] 이것은 의존 명사인가요, 어미인가요?

- 그 책을 다 {읽는데/읽는√데} 삼 일이 걸렸다.
-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데/보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 형태는 같은데 의존 명사이기도 어미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앞의 예를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데’는 ‘곳, 일, 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는데’는 ‘상황’을 설명하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이렇게 의존 명사인지 어미인지 혼동이 될 때는, 그 혼동되는 형식 뒤에 조사를 붙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사는 명사류에 결합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조사가 자연스럽게 결합된다면, 의존 명사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 ㉠ (21) 서류를 {검토한바/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22)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바/공헌하는√바} 크다.
- (23) 그를 {만난지/만난√지} 꽤 오래되었다.
- (24) 무엇이 {틀렸는지/틀렸는√지} 답을 맞춰 보자.
- (25) 차는 이미 {떠난걸/떠난√걸}.
- (26) 그렇게 {좋아하는걸/좋아하는√걸} 어떻게 안 해?
- (27) 그는 물 {쓰듯/쓰√듯} 돈을 쓴다.
- (28) 그는 다 {아는듯/아는√듯} 말했다.

6. 단위성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 (1) {15회/15√회} 수료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 (2) 오늘 {제3차/제√3차/제3√차/제√3√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 (3) 학생은 모두 {40여명/40√여명/40여√명/40√여√명} 정도입니다.
- (4) 연령은 대개 {30세가량/30√세가량/30세√가량/30√세√가량}입니다.

7. 수 표현의 띄어쓰기

[규정] 제44항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 ㉠ (1) {스물여섯/스물√여섯}
- (2) {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
- (3) {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



8. 열거하는 말의 띄어쓰기

[규정]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 ㉠ (1) {국장겸과장/국장겸√과장/국장√겸√과장}
- (2) {열내지스물/열내지√스물/열√내지√스물}
- (3) {청군대백군/청군대√백군/청군√대√백군}
- (4) {기간및경비/기간및√경비/기간√및√경비}를 명시 바람.
- (5) 교실에는 책상, {결상등/결상√등}이 있다.
- (6) 사진, 그림, {영화등등/영화√등등} 볼 것이 많다.
- (7) 사과, 배, 복숭아, {감등속/감√등속}을 샀다.
- (8) 충주, 청주, {대전등지/대전√등지}로 돌아다녔다.

9. 단음절어 연속의 띄어쓰기

[규정]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질문] 단음절로 된 모든 단어는 붙여 쓸 수 있나요?

- 훨씬 {더큰새집/더큰√새집/더√큰√새집/더√큰√새√집}이야.
- {더큰이새/더큰√이새/더√큰√이새/더√큰√이√새} 책상

☞ 글을 띄어 쓰는 것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좀 더 큰 이 새 집’처럼 한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여럿 이어지는 경우,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시각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독서 능률이 감퇴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좀더 큰 이 새집’처럼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 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



건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더√큰√새집’으로 붙여 쓸 수는 있지만 ‘더큰√새집’처럼 붙여 쓸 수는 없고, ‘더√큰√이√새’의 경우에는 모두 띄어 써야 한다.

- ㉠ (1) {좀더큰집/좀더√큰집/좀√더√큰집/좀√더√큰√집}이 낫겠다.
 (2) {내것내것/내것√내것/내√것√내√것}이 어디 있냐?
 (3) {이곳/이√곳}은 국립국어원입니다.
 (4) {그때/그√때} 우리는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5) {전날/전√날} 말씀드린 것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 ‘이곳, 그때, 전날’과 같은 단어를 붙여 쓰는 것은 1음절 단어가 두 개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이미 한 단어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단어를 ‘이√곳, 그√때, 전√날’처럼 띄어 쓰면 안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0.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정]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질문 1] 보조 용언이 무엇인가요?

- 선물을 미리 {뜯어버렸다/뜯어√버렸다}
- 화가 나서 선물을 {뜯어서버렸다/뜯어서√버렸다}

☞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이런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이 원칙이지만, 붙여 씀도 허용한



다. 그래서 앞의 첫 문장에서 ‘뜯어√버렸다’가 원칙이지만 ‘뜯어버렸다’처럼 써도 된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의 ‘뜯어서√(휴지통에)√버렸다’처럼 두 개의 용언이 모두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둔 본용언이라면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 ㉠ (1) 고기를 {잡아본다/잡아√본다}.
 (2) 고기를 {잡아서본다/잡아서√본다}.
 (3) 사과를 {짜아드린다/짜아√드린다}.
 (4) 사과를 {짜아서드린다/짜아서√드린다}.

[질문 2] 보조 용언은 모두 붙여 쓸 수 있나요?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도와√드린다}.
- 우리는 집에 {가고싶다/가고√싶다}.

☞ 여기서의 보조 용언은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만을 가리킨다. 이러한 보조 용언에 한해서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첫 문장의 경우에는 ‘도와드린다’처럼 붙여 써도 되겠지만,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가고√싶다’처럼 띄어 써야겠다.

- ㉠ (5) 나무가 {늘어간다/늘어√간다}.
 (6)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이겨√냈다}.
 (7) 좋은 내용을 {알아가지고간다/알아가지고√간다/알아√가지고√간다}.
 (8) 오늘 꼭 {하고싶은/하고√싶은} 것이 있다.
 (9) 공부는 {하지않고/하지√않고} 잠만 자면 안 된다.
 (10) 그 사람은 {학자인양한다/학자인양√한다/학자인√양한다}.
 (11) 나를 {모르는체하고/모르는체√하고/모르는√체하고} 갔다.
 (12) 하늘을 보니 비가 {울듯싶다/울듯√싶다/울√듯싶다}.
 (13) 값을 {물어만보았다/물어만√보았다}.



- (14) 홍수에 모든 것이 {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
- (15) 피아노에 {손대봤다/손대√봤다/손√대봤다}.
- (16) 하늘을 보니 비가 {올듯도싶다/올듯도√싶다/올√듯도√싶다}.

⊙ 붙여 써도 되는 보조 용언이라 하더라도,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띄어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질문 3] 이것은 보조 용언이 아닌가요? 왜 띄어 쓰면 틀렸다고 하나요?

- 오늘 유난히 글이 잘 {써진다/써√진다}.
- 우리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 모두를 {예뻐하신다/예뻐√하신다}.

☞ ‘-아/어’로 연결된 ‘지다’와 ‘하다’는 대체로 붙여 쓰는 경향이 있다. ‘-아/어’로 연결된 ‘지다’는 동사와 두루 결합하여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 특별한 제약 없이 대부분의 용언과 두루 결합하는 특성 때문이어서 마치 하나의 문법 요소처럼 인식된다. 따라서 본용언과 붙여 쓰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학교 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어 지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잘못된 아니다.

‘-아/어’로 연결되는 ‘하다’ 또한 본용언과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전에서도 이를 모두 붙여 쓰고 있다. 이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두루 결합하여 형용사를 동사로 바꾼다. 그런데 이들은 합성어를 이루는 것과 이루지 못하는 것의 경계를 짓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띄어쓰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이러한 부류의 말을 모두 합성어로 처리하기도 어려우므로 대개 붙여 쓰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아/어 하다’와 같이 띄어 쓴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붙여 쓰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11. 성명의 띄어쓰기

[규정]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이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 (1) {김소월/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
 (2) {채영신씨/채영신√씨}가 여기에 계십니까?
 (3) {김씨/김√씨}가 이 일을 했다.
 (4) {김씨/김√씨}들은 다 그래?
 (5) {황보영/황보√영}이 발표를 했다.

12. 성명 이외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 ㉠ (1) {대한중학교/대한√중학교}
 (2) {한국대학교사범대학/한국대학교√사범대학/한국√대학교√사범√대학}
 (3)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 ‘한국 교육 연구원’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면, 각 단어가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고유 명사를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그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의 구성단위를 뜻한다.



13.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규정]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 ㉠ (1) {만국음성기호/만국√음성기호/만국√음성√기호}
- (2) {관상동맥경화증/관상√동맥경화증/관상√동맥√경화증}
- (3) {두팔들어가슴벌리기/두팔들어√가슴벌리기/두팔√들어√가슴√벌리기/두√팔√들어√가슴√벌리기}

14. 관형사의 띄어쓰기

- ㉠ (1) 요즘 {각(各)가정/각√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 (2) {각(各)인/각√인}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 (3) {고(故)홍길동/고√홍길동} 씨를 추모하는 모임입니다.
- (4) {고(故)인/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 (5) {본(本)국어원/본√국어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 (6) {본(本)원/본√원}에서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모십니다.
- (7) {순(純)한국식/순√한국식}으로 음식을 차렸다.
- (8) 이번에 {순(純)이익/순√이익}이 크게 났다.
- (9) {총(總)인원/총√인원}이 40여 명이다.
- (10) {총(總)인구/총√인구}의 80%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당연히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1음절로 된 관형사의 경우 종종 붙여 쓰는 것을 보게 된다. 대개 이것을 접두사로 생각하여 붙여 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형태가 관형사로도 접두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때때로 혼동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이들은, 관형사의 경우에는 뒤에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고, 접두사의 경우에는 몇몇 명사밖에 올 수 없다는 것으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글을 쓸 때는 사전을 곁에 두고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15. 외래어의 띄어쓰기

[질문 1] 외래어를 띄어 쓰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 {매스미디어/매스√미디어}가 국민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 그는 {톱클래스/톱√클래스} 가수이다.

☞ 외래어는 원어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이라고 해도 관용적으로 굳어진 말이나 준말, 원어에 없는 외래어는 붙여 쓴다.

- ☞ (1)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이 생각한다.
 (2) 우리 집에는 {에어컨/에어√컨}이 없다.
 (3) 운동선수들은 경기 전에 {도핑테스트/도핑√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4) 요즘 {뉴스쇼/뉴스√쇼}가 인기가 있다.
 (5) 명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고스톱/고√스톱}을 쳤다.

[질문 2] 외래어와 한자어가 함께 쓰인 경우에는 모두 붙여 쓰나요?

- 최근에 {아마존강(江)/아마존√강}을 여행했다.
- 요즘 {프랑스어(語)/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
- 모든 {알코올류(類)/알코올√류}는 중독성이 있다.

☞ 외래어와 고유어, 혹은 외래어와 한자어 간의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칙이 없다. 단지 ‘외래어 표기법’에 ‘카리브√해, 몽블랑√산’ 등이 예시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대체로 지명은 ‘아칸소√주, 에베레스트√산’처럼 띄어 쓰는 것으로, 언어명이나 종족명은 ‘러시아√어/러시아어, 게르만√족/게르만족’처럼 띄어 씬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는 것으로, 기타 ‘이슬람력’이나 ‘디자인류’처럼 띄어 쓸 경우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아 ‘이슬람 역’, ‘디자인 유’와 같이 써야 하는 말은 붙여 쓰는 것으로, 그 원칙을 삼고 있다.



■ 정답

3. (1) 한잔 (2) 한√잔 (3) 안√되었대요 (4) 안됐더라 (5) 가위바위보 (6) 같이할
(7) 큰형 (8) 우리√학교 (9) 전매√제한 (10) 물량√집중 (11) 둘러보았다 (12)
찾아가서 (13) 주저앉을 (14) 모아√잡고 (15) 주워√담기에
4. (1) 나가면서까지도 (2) 여기에서부터입니다 (3) 좋아한다기보다 (4) 태어날√때
부터 (5) “그래.”라고 (6) “그래.”√하고 (7) 너하고 (8) 소같이 (9) 친구와√같이
(10) 너같이 바보√같은 (11) 좋습니다그려 (12) 이야긴즉속 (13) 빠리는커녕
5. (1) 내√나름대로 (2) 너√때문에 (3) 들은√척도 (4) 말하는√이가 (5) 할√거
니 (6) 할√텐데 (7) 틈나는√대로 (8) 법대로 (9) 주는√만큼 (10) 당신만큼
(11) 널√만도 (12) 백군만 (13) 삼√년√만 (14) 싶지만 (15) 오랜만에 (16) 부
모√자식√간 (17) 하든지√간에 (18) 한√달간 (19) 감√들 (20) 사람들 (21)
검토했바 (22) 공헌하는√바 (23) 만난√지 (24) 틀렸는지 (25) 떠난걸 (26) 좋
아하는√걸 (27) 쓰듯 (28) 아는√듯
6. (1) 15회, 15√회 (2) 제3차, 제3√차 (3) 40여√명 (4) 30세가량, 30√세가량
7. (1) 스물여섯 (2) 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 (3) 육조√팔억√칠천
8. (1) 국장√겸√과장 (2) 열√내지√스물 (3) 청군√대√백군 (4) 기간√및√경
비 (5) 결상√등 (6) 영화√등등 (7) 감√등속 (8) 대전√등지
9. (1) 좀더√큰집, 좀√더√큰√집 (2) 내것√네것, 내√것√네√것 (3) 이곳 (4)
그때 (5) 전날
10. (1) 잡아본다, 잡아√본다 (2) 잡아서√본다 (3) 깎아드린다, 깎아√드린다 (4)
깎아서√드린다 (5) 늙어간다, 늙어√간다 (6) 이겨냈다, 이겨√냈다 (7) 알아가
지고√간다, 알아√가지고√간다 (8) 하고√싶은 (9) 하지√않고 (10) 학자인양
한다, 학자인√양한다 (11) 모르는체하고, 모르는√체하고, (12) 올듯싶다, 올/
듯싶다 (13) 물어만√보았다 (14) 떠내려가√버렸다 (15) 손대봤다, 손대√봤다
(16) 올√듯도√싶다
11. (1) 김소월 (2) 채영신√씨 (3) 김√씨 (4) 김씨 (5) 황보영, 황보√영
12. (1) 대한중학교, 대한√중학교 (2) 한국대학교√사범대학, 한국√대학교√사범
√대학 (3)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
√회의
13. (1) 만국음성기호, 만국√음성√기호 (2) 관상동맥경화증, 관상√동맥√경화증,
두팔들어가슴벌리기, 두√팔√들어√가슴√벌리기
14. (1) 각√가정 (2) 각인 (3) 고√홍길동 (4) 고인 (5) 본√국어원 (6) 본원 (7) 순
√한국식 (8) 순이익 (9) 총√인원 (10) 총인구
15. (1) 아이스크림 (2) 에어컨 (3) 도핑테스트, 도핑√테스트 (4) 뉴스쇼 (5) 고스톱



표준어 규정

안 효 경*

제 1 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한글 맞춤법 규정과 표준어 규정은 무엇이 다른가?

● 나두(?) 너 사랑해.

☞ 위의 문장은 ‘나도’를 비표준어인 ‘나두’로 적은 것으로, 맞춤법이 틀린 문장은 아니다. 맞춤법은 같은 소리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표준어는 소리부터 다른 말 중에서 어떤 말을 표준어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 표준어인 서울말은 다른 방언보다 언어적으로 우월한가?

☞ 표준어는 여러 방언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언어이다.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한 것은 서울말이 언어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표준어의 실제〉

1.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 {간막이/칸막이}를 쳤다.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공간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내는 말로서,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인 ‘칸’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칸’은 한자어 ‘間’에서 나온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칸’으로 발음된다는 점을 중시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칸막이, 빈칸, 방 한 칸’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초가삼간, 뒷간, 외양간’ 등의 예에서처럼 이미 굳어진 말에서는 ‘간’을 그대로 쓴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붉게 물든 {동녘/동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 (2) 어머니는 지금 {부엌/부엌}에 계신다.
- (3) 물려 받은 재산을 다 {털어먹었다/떨어먹었다}.
- (4) 휴지를 {재털이/재떨이}에 넣지 마세요.
- (5) {과녁/과녁}을 정확히 봐라.

(2) 콩 중에서 {강남콩/강낭콩}이 제일 맛있다.

☞ ‘강남콩’은 중국의 ‘강남’ 지방에서 들여온 콩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어원이 분명한 경우에는 발음이 변했다 할지라도 어원을 밝혀서 적어주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좋다. 그러나 ‘강남콩’의 경우에는 발음이 이미 ‘강낭콩’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언중들이 어원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남콩’이라고 적을 필요가 없으므로 변화된 발음에 따라 ‘강낭콩’을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돈이 없어서 {삭월세/사글세} 방도 얻을 수 없다.

(3) 애가 우리 집 {셋째야/세째야}.

☞ 원래 ‘세째’는 차례를 나타내는 것으로, ‘셋째’는 수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서로 구별되어 쓰이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쓰임과 의미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아 ‘셋째’로 통합하여 쓰기로 한 것이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애가 우리 집 {둘째야/두째야}.
- (2) 내 차례는 {스물둘째야/스물두째야}.



- (3) 진수가 빵을 {열둘째나/열두째나} 먹었어.
- (4) 내일이 우리 아이 {돌/똥}이에요.
- (5) 이 자리를 {빌어/빌려}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4) 내 동생 별명은 {오뚝이/오뚝이}예요.

☞ 현대 국어에서 모음조화가 점점 약화되어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는 추세와 관련된 예로, 현실적인 발음이 ‘오뚝이’이기 때문에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토끼가 {깡충깡충/깡충깡충} 뛰어 갑니다.
- (2)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오손도손/오순도순} 정답게 살고 있습니다.
- (3) {늦둥이/늦둥이}를 낳았어요.

(5) {부주금/부조금}을 대신 내어 주세요.

☞ 현실적인 발음이 ‘부주’로 변하기는 하였지만 언중들이 한자의 의미(어원)를 의식하고 있으므로, 원래의 형태대로 ‘부조’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오늘 {안사돈/안사둔}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 (2) 오늘 {삼촌/삼춘}이 미국에서 와요.

(6) {아기야/애기야} 가자.

☞ ‘ㅣ’모음 역행동화 현상이 국어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 일부분 (푹내기, 뱀비, 동맹이치다)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는 ‘아기’처럼 ‘ㅣ’ 역행 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어로 정하고 있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아지랑이/아지랭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2) {서울나기/서울내기}는 상대하지 마세요.

(7) {미류나무/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 걸려 있네.



☞ ‘미류’는 한자어 ‘美柳’에서 나온 말이지만 현실적인 발음을 고려하여 모음이 단순화된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괴팍하신/괴팍하신} 분이다.
- (2) {으레/으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3) 술만 드시면 {케케묵은/케케묵은} 이야기를 꺼내신다.
- (4) {허우대/허위대}는 멀쩡한 사람이 하는 짓은 아이 같다.

(8)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기를 {바라요/바래요}.

☞ ‘바라/바래’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바래’로 발음하는 것이 상당한 빈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모음조화 약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는 ‘바라요’처럼 모음조화를 비교적 철저히 지키고 있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주착/주책} 부리지 마세요.
- (2) 너무 {나무라지/나무래지} 마세요.
- (3) 고기는 {상치/상추}에 싸서 먹어야 맛있어요.

(9) {웃뎡/윗뎡} 일으키기 매일 하고 있어요.

☞ ‘위’와 ‘아래’의 대립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위’나 ‘윗’이 되고 대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웃’이 된다. ‘위’와 ‘윗’은 뒤에 오는 말에 따라 선택되는데,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오게 되면 사이시웃이 없는 ‘위’가 온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윗니/웃니}를 먼저 닦으세요.
- (2) {윗층/위층}으로 올라가세요.
- (3) {윗돈/웃돈}을 얹어 주었다.

(10) {구절/귀절}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다.

☞ ‘글귀’와 ‘귀글’만을 제외하고 ‘匂’는 ‘구’로 읽는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가을에는 아름다운 {시귀/시구}가 저절로 떠오른다.
- (2) 어울리지 않는 {문구/문귀}는 빼세요.

(11) 시장에서 {무/무우}와 배추를 샀다.

☞ 현실적으로 ‘무우’보다 준말인 ‘무’가 더 널리 쓰이므로 준말만을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뺨이 {뺨리/또아리} 틀고 앓아 있다.
- (2) {술개/소리개} 울음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다.

(12) {귀후비개/귀이개/귀개} 줌 주세요.

☞ 준말인 ‘귀개’가 쓰이고는 있지만, 본말인 ‘귀이개’가 더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본말만을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흔히 ‘귀후비개’라고 하는 일이 있지만 이 또한 비표준어이다.

(13)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시누/시누}가 더 많다.

☞ 본말인 ‘시누이’와 준말인 ‘시누, 시누’가 모두 표준어이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저녁노을/저녁놀}이 붉게 물든 하늘을 보았다.
- (2) 나는 바느질이 몹시 {서투르다/서툴다}
- (3) 서울에 {머무르게/머물게} 되면 전화 주세요.
- (4) 너무 {서두르지/서둘지} 마세요.

(14) 파리가 {천장/천정}에 붙어 있다.

☞ ‘천장’ 또는 ‘천정’처럼 서로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이는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정한다. 위의 예문에서는 ‘천장’이 표준어이다.

㉞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꼭두각시/꼭둑각시} 인형을 만들었다.
- (2) 철수가 일을 제대로 {할는지/할른지/할런지} 모르겠다.
- (3) 민수와 나는 {떨레야/떼려야} 떨 수 없는 관계이다.
- (4) 산에 {가던지/가든지} 바다에 {가던지/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 (5) 내일 {가려고/갈려고} 합니다.
- (6) 콩 {서/세} 말 샀다.

(15) 음식물에 파리가 {꼬인다/핀다/피인다}.

☞ 원칙적으로는 ‘피다’가 표준어이지만 ‘꼬이다’도 표준어로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이다’는 비표준어이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소고기/쇠고기} 좀 사 와라.
- (2) 나사를 {조이다/죄다/죄이다}.
- (3) 물이 {고이다/괴다/괴이다}.
- (4) 별을 {쫂이다/쪼다/쪼이다}.

2.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6) {알타리무/총각무}로 김치를 담갔다.

☞ 고유어 계열인 ‘알타리무’보다 한자어 계열인 ‘총각무’가 더 널리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표준어로 정한 경우이다.

(17) {우렁챙이/멍게}는 좋아하지 않는다.

☞ 원래 표준어이던 ‘우렁챙이’보다 방언이던 ‘멍게’가 더 많이 사용되어서, ‘멍게’를 표준어로 정한 것으로, ‘우렁챙이’도 표준어로 남겨 두고 있다.

(18) 비 오는 날에는 {빈대떡/빈자떡}이 먹고 싶다.

☞ 원래 방언이던 ‘빈대떡’이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빈자떡’은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멍게’의 경우와 달리 ‘빈대떡’만을 표준어로 정하고 있다.



(19) 저 사람 정말 {주책이다/주책없다}.

☞ 일정한 짓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며 실없이 행동하는 경우에 ‘주책이다’와 ‘주책없다’가 같은 문맥에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주책’의 일차적인 의미가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주책없다’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20) 울 밑에 선 {봉숭아야/봉선화야/봉숭화야}.

☞ ‘봉숭아’와 ‘봉선화’는 모두 표준어이다. 그러나 ‘봉숭화’는 비표준어로, ‘봉숭아’와 ‘봉선화’를 잘못 결합시켜 만든 어형으로 추정된다.

☐ 다음 중에서 표준어인 것을 고르세요.

- (1) {가뭇/가물}이 심하게 들었다.
- (2) 더위가 기승을 {편다/부린다}
- (3) 저게 제 {책상이에요/책상이어요}.
- (4) 컵을 {깨뜨렸다/깨트렸다}.

〈구별하여 써야 할 말〉

(1) 고무줄을 길게 {늘였다/늘렸다}.

회사의 직원을 {늘였다/늘렸다}.

☞ ‘늘이다’는 ‘힘을 가해서 본디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는 의미이고, ‘늘리다’는 ‘늘게 하다’의 의미이다.

(2) 회장님의 {결재/결제}가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말일이 되기 전에 물품 대금을 {결재/결제}해야 한다.

☞ ‘결재’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안전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제’는 일을 처리하면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 때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3) 내가 열 문제 모두를 {맞췄다/맞혔다}.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안을 {맞춰/맞혀} 보았다.

☞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맞히



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적중시키다'의 의미를 지닌다.

(4) 화를 {돈구지/돈우지} 말고 잘 다스려야 한다.

할머니의 안경 도수를 {돈구어/돈우어} 드려야겠다.

☞ '돈구다'는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라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다. 반면 '돈우다'는 '기분이나, 흥미, 의욕, 입맛 등을 더 높아지게 하다' 또는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이다'를 의미한다.

(5) 다리가 {저리고/절이고} 힘이 없다.

배추를 소금에 {저렸다/절였다}.

☞ '저리다'는 피가 통하지 않아 감각이 둔한 상태를 의미하고, '절이다'는 소금을 먹여 절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6) 생선을 {조리다/졸이다}.

마음을 {조리다/졸이다}.

☞ '조리다'는 어육이나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국물이 바득하게 바짝 끓인다는 뜻으로서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하게 마음을 먹는다는 뜻의 '졸이다'와 구분된다.

(7) 부모 속 좀 작작 {씩여라/씩혀라}.

재능을 {씩이다/씩히다}.

☞ '씩히다'는 '음식을 씹히다', '재주를 씹히다'와 같이 쓰이고 '씩이다'는 '속을 씹이다', '골치를 씹이다'와 같이 쓰인다.

(8) 공부를 {하느라고/하노라고} 잠도 못 잤다.

{쓰느라고/쓰노라고} 쓴 게 이 모양이다.

☞ '-노라고'는 말하는 이의 말로서 '자기 나름으로 한다고'란 뜻을 표시하며, '-느라고'는 '그렇게 하는 일 때문에'란 뜻을 표시한다.

(9) 살을 {에는/에이는} 추위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찬바람에 살이 {에는/에이는} 듯 했다.

☞ '에다'는 타동사이고 '에이다'는 자동사이다. 따라서 '살을 에이는 추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10) 여우가 사람을 {호렸다/홀렸다}.

예쁜 여자에게 {호렸다/홀렸다}.

☞ ‘호리다’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고, ‘홀리다’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이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를 홀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11)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많이 {벗어졌다/벗겨졌다}.

신발이 짝 끼어 잘 {벗어지지/벗겨지지} 않는다.

☞ ‘벗겨지다’는 ‘떨어지거나 썩워진 물건이 외부의 힘에 의해 떼어지거나 떨어지다’, ‘사실이 밝혀져 죄나 누명 따위에서 벗어나다’의 뜻인 반면, ‘벗어지다’는 ‘떨어지거나 썩워진 물건이 흘러내리거나 떨어져 나가다’, ‘머리카락이나 몸의 털 따위가 빠지다’의 뜻이다.

(12) 나무, 바위 같은 자연에는 영혼이 {깃들여/깃들여} 있다.

여우도 제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깃들일} 곳이 있다.

☞ ‘깃들다’는 ‘아늑하게 서려 들다’, ‘감정, 생각, 노력 따위가 어리거나 스며 있다’란 의미로 쓰이고, ‘깃들이다’는 ‘사람이나 건물 따위가 어디에 살거나 그곳에 자리 잡다’란 뜻으로 쓰인다.

(13) 외국어로 된 제품 설명서를 번역해야 {함으로/하므로} 응시자는 외국어 능력을 꼭 갖춰야 한다.

나는 노래를 실컷 {부름으로써/부르므로써} 외로움을 달랬다.

☞ ‘-하므로’는 ‘-하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까닭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함으로’는 ‘-하는 것으로’라는 뜻으로 수단과 방법을 나타낸다. ‘-함으로’에는 ‘-써’가 붙을 수 있으나 ‘-하므로’에는 ‘-써’를 붙일 수 없다.

(14) 철수가 이번 토요일에 {결혼한대/결혼한데}.

그 집 아들은 벌써 책을 {읽대/읽데}.

☞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인다. 반면에 ‘-데’는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회상하며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인다.



■ 정답

1. (1) 동녘 (2) 부엌 (3) 털어먹었다 (4) 재떨이 (5) 과녁
2. (1) 사글세 (2) 고살
3. (1) 둘째야 (2) 스물두째야 (3) 열둘째나 (4) 둘 (5) 빌려
4. (1) 깡충깡충 (2) 오순도순 (3) 늦둥이
5. (1) 안사돈 (2) 삼촌
6. (1) 아지랑이 (2) 서울내기
7. (1) 괴팍하신 (2) 으레 (3) 케케묵은 (4) 허우대
8. (1) 주책 (2) 나무라지 (3) 상추
9. (1) 윗니 (2) 위층 (3) 옷돈
10. (1) 시구 (2) 문구
11. (1) 빠리 (2) 술개
13. (1) 저녁노을, 저녁놀 (2) 서투르다, 서툴다 (3) 머무르게, 머물게 (4) 서두르
지, 서둘지
14. (1) 꼭두각시 (2) 할는지 (3) 떼려야 (4) 가든지, 가든지 (5) 가려고 (6) 서
15. (1) 소고기, 쇠고기 (2) 조이다, 죄다 (3) 고이다, 괴다 (4) 쪼이다, 찌다
20. (1) 가뭄, 가물 (2) 떴다, 부린다 (3) 책상이예요, 책상이어요 (4) 깨뜨렸다, 깨
트렸다



바른 발음과 발성

황 연 신*

1. 바른 발음과 발성이란?

사람의 성도(Vocal tract)는 ‘ㄱ’자 모양의 울림통이다. 성대(Vocal folds)가 진동하면 성도가 울려 발성이 가능해지고, 성도 모양을 변화함으로써 특정 말소리를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등을 구부린다거나 하여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입을 벌리지 않고 말을 하면, 통이 왜곡되어 제대로 된 발성이 나오기 힘들 뿐더러 점막으로 이루어진 사람 몸이 소리를 다 흡수하여 발음도 부정확하게 된다.

성대 결절(Vocal nodules)은 가장 흔히 나타나는 음성 장애로써 성대 가운데 부분에 굳은살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는 음성을 많이 쓰는 가수, 교사, 성직자, 소리를 많이 지르는 어린이 등에서 흔하게 생긴다. 성대 결절이 생기면 굳은살로 인해 성대 양쪽이 제대로 붙지 않아 바람이 새게 되고 쉬고 거친 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결절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재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치료는 근본적인 발성 방법을 바꾸어야만 가능하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나 강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목소리를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많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 민원을 상담하는 업무를 지닌 경우 목소리 관리는 특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발성이나 발음에 신경 쓰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 금세 목소리가 쉬거나 상대방이 본인의 발음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기울여 올바른 발성과 발음에 대해 알아두고 실천해야 한다.

좋은 발성이란 성도 내부 에너지 흡수는 적고 출력 에너지를 최대화함으로써 성대의 부담을 줄이고 공명을 최대화하는 발성을 말한다. 바른 발음이

* 서울대학교



란 성대 주변 근육의 이완을 유도하고 정확한 음가를 전달할 수 있는 발음 동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음성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음성 위생법(Vocal Hygiene)이 있다.

■ 음성 위생법

- 시끄럽고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말하는 것을 자제하기
- 자신에게 편안한 목소리로 말하기(낮거나 높은 음도,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소리로 말하지 않기)
- 몸과 마음의 건강 유지하기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거나 목에 힘을 주어 말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말하거나(특히 전화 통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 너무 높은 소리나 낮은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것은 대표적인 잘못된 음성 사용법이다. 사람의 성대는 1초에 남자의 경우 약 150회, 여자의 경우 약 230회가 움직이는 점막으로 이루어진 약한 조직이므로 좀더 주의를 기울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습관적으로 헛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헛기침을 할 때마다 성대는 강하게 한 번 부딪치는 꼴이 되므로 성대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물을 한 모금 먹으면 어느 정도 헛기침을 줄일 수 있다. 허밍이나 속삭이는 소리도 성대를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른 발성과 발음을 위한 몇 가지 금지 사항과 권장 사항이 있다.

■ 금지 사항

- 잠자기 전 음식 섭취 자제하기.
- 유제품을 자주 먹지 않기.
- 흡연 및 음주 자제하기.
- 너무 맵거나 짠 음식 자제하기.
- 카페인 음료나 탄산음료 자제하기.



■ 권장 사항

- 물을 자주 많이 마시기.
- 활동 공간의 습도를 조절하고 청결한 공간 만들기.
- 습포하기.

결론적으로 건강한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야 한다.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목소리 부터 변화하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해 봤을 것이다. 특히 목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코와 목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비염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므로 이때는 문제의 원인인 코부터 치료해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

둘째, 바른 자세로 발성해야 한다. 기타의 줄이 제대로 조율된 경우라도 울림통이 작거나 왜곡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기 어렵고 소리가 널리 퍼지지 않는다. 사람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등과 어깨를 곧게 펴고 턱을 조금 내린 자세로 발성해야 적은 에너지로 효과적인 발성을 할 수 있다.

셋째, 복식 호흡이 권장된다. 호흡에는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이 있는데, 복식 호흡을 하면 성대에 무리를 덜 주고 공명(Resonance)이 잘 되는 발성이 가능해 지므로 복식 호흡을 평소 생활 안에서 실천해야 한다.

넷째, 발음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게 되면 입을 많이 벌리고 말을 하게 되고 정확한 조음 동작이 가능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된다.

2. 표준 발음법이란?

표준 발음법은 ①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②전통성과 ③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표준 발음법 제1항).



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

- 늑으니[늘그니], 늑고[늘꼬], 늑소[늑쏘]

② 소리 길이의 경우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현재 구별하여 쓰고 있지 않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길이를 구별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표준 발음법에 포함하였다.

③ 예컨대 ‘맛있다’는 실제 발음에서는 [마신타]가 자주 쓰이나 받침 ‘ㅅ’을 [ㄷ]으로 발음하는 [마딤타]가 오히려 합리성을 지닌 발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딤타]를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정하되, [마신타]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3. 표준 발음에서 인정되는 자음과 모음의 종류는?

3.1. 자음

ㄱ ㅋ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ㅌ ㅋ ㅌ ㅍ ㅎ (19개)

※ 발음 위치와 방법에 따른 분류

	입술소리	혀끝소리	(경)구개음	연구개음	목청소리
예사소리	ㄱ	ㄷ, ㅅ	ㅈ	ㄱ	ㅎ
거센소리	ㅋ	ㅌ	ㅊ	ㅋ	
된소리	ㄴ	ㄸ, ㅆ	ㅊ	ㄴ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3.2.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ㅛ ㅝ ㅞ ㅟ ㅠ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21개)



(1)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ㅛ,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ㅓ	ㅡ	ㅜ
중모음	ㅑ	ㅛ	ㅓ	ㅗ
저모음	ㅕ	ㅛ		

(2) ㅓ의 발음

표준 발음에서 /ㅓ/는 길게 날 때와 짧게 날 때 소리 값에 차이가 있다. /ㅓ:/는 중설 모음이고 /ㅓ/는 후설 모음이다. 즉, /ㅓ:/는 /ㅡ/와 /ㅓ/와의 중간 모음인 올린 /ㅓ/로 발음한다.

/ㅓ:/	/ㅓ/
벌 : (-이 쏘다)	벌(-받다)
병 : (원)	병(-마개)
없 : 다	업다(아이들)
적 : 다(조금)	적다(쓰다)
석 : 자(세 글자)	섞자(혼합)
선 : 수(-단)	선수(-치다)

㉠ ①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어른, 건강, 선수(-단), 어깨, 서리, 버릇

(3) 이중 모음

‘ㅑ, ㅓ, ㅕ, ㅛ, ㅜ, ㅠ, ㅛ,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이들 이중 모음 중 /ㅓ/가 긴소리인 경우에는 /ㅓ:/에 준해서 발음해야 한다. ‘견본, 견다, 별(星), 연(軟)하다, 열쇠, 영감(令監), 염주(念珠), 편지, 현대’ 등의 첫째 음절의 ‘ㅓ’가 그 예이다.



(4) /ㄱ/와 /ㄴ/의 구분

㉒ ②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 게, 개, 예, 애
- ‘베개를 베다’
-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ㄱ/와 /ㄴ/가 구별이 안 되는 이유는 열린 모음 /ㅏ/를 닫힌 모음 /ㅓ/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ㄴ/를 발음하는 경우에는 /ㄱ/를 발음할 때보다 아래턱을 더 내리고 혀의 앞부분도 낮은 위치로 내린 다음 입술을 편 상태로 발음해야 한다.

/ㄱ/	/ㄴ/
게	개
네게	내게
베다	배다
네 것	내 것

(5) /ㄷ/와 /ㄸ/와 /ㄹ/의 발음

/ㄸ/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ㄹ/와 발음이 비슷하게 된다. ‘금괴(金塊)’가 ‘금궤(金櫃)’와 같이 발음되는 경우가 그 한 예다. 현재 /ㄷ/와 /ㄹ/가 구분이 되지 않고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열린 이중 모음 /ㅞ/를 닫힌 이중 모음 /ㅟ/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ㄷ/를 발음하는 경우에는 /ㄹ/를 발음하는 경우보다 입술을 좀 더 편 상태로 아래턱을 좀 더 내리고 발음해야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㉒ ③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웬, 웬지, 외나무, 되다, 똬다

(6) /ㅍ/의 발음

‘희망’: [*희망/히망/*호망]

‘주회’: [*주회/주히/*주호]



→ 자음이 초성에 올 때 ‘ㄴ’은 [ㄴ]로 발음한다.

‘의논’: [의논/*이논/*으논]

‘주의’: [주의/주이/*주으]

→ 자음이 초성에 오지 않을 때, 첫 음절 ‘ㄴ’은 [ㄴ]로 발음해야 한다.

→ 첫 음절 이외에선 [ㄴ]로도 발음할 수 있다.

나의(고향): [나의/*나이/*나으/나에]

→ 조사 ‘ㄴ’은 [ㄴ]로도 발음할 수 있다.

(7) 용언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쨌, 처’의 발음

가지어→가져, 찌어→쨌, 다치어→다쳐

[저, 쨌, 처]와 같이 경구개음 ‘ㄷ, ㅈ, ㅊ’ 다음에서 ‘ㄴ’ 같은 이중 모음이 발음되는 경우는 없다.

(8) ‘ㄴ’의 발음

예절[예절/*예절]

옛날[엔 : 날/*엔 : 날]

차레[차레/*차레]

의례[의례/*의례]

계시다[계 : 시다/계 : 시다]

매별[매별/매별](袞別)

개폐[개폐/개폐](開閉)

혜택[혜 : 택/혜 : 택]

‘예, 례’ 이외의 ‘ㄴ’은 [ㄴ]로도 발음이 가능하다. ‘례’는 둘째 음절에 위치한 경우라도 꼭 그 음가 그대로 발음해야 한다.

문 ④ 다음 중에서 표준 발음인 것을 고르세요.

(1) 널리리 [널리리/널리리/늘리리]

(2) 민주주의의 의의[민주주의의의의/민주주의의의의/민주주의에의의]



/민주주이에의이/민주주이에이이/민주주이에으으]

- (3) 결례[결례/결례]
- (4) 예쁘다[예쁘다/예쁘다]
- (5) 통계[통 : 계/통 : 계]
- (6) 은혜[은혜/은혜]
- (7) 돌치+어→돌쳐[돌쳐/돌쳐]
- (8) 굳히+어→굳쳐[굳쳐/굳쳐]

4. 소리의 길이

4.1. 긴소리와 짧은소리

발음의 혼란 중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긴 소리를 짧은 소리로 혼동하여 잘못 내는 경우이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긴소리와 짧은소리 구분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여 발음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긴소리	짧은소리
말 : (언어)	말(동물)
밭 : (-을 치다)	밭(-바닥)
살 : (-다)	살(-결)
밤 : (-송이)	밤(-낮)
벌 : (집)	벌(-받다)
병 : (-원)	병(-마개)
시 : 장(-님)	시장(-하다)
모 : 자(-관계)	모자(쓰다)
과 : 장(-하다)	과장(-님)

4.2. 첫음절 이외에선 긴소리로 나지 않는다.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눈보라[눈 : 보라]	/	첫눈[친눈]
말씨[말 : 씨]	/	참말[참말]
밤나무[밤 : 나무]	/	쌍동밤[쌍동밤]
많다[만 : 타]	/	수많이[수 : 마니]
멀리[멀 : 리]	/	눈멀다[눈멀다]
벌리다[벌 : 리다]	/	떠벌리다[떠벌리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 : 신바 : ㄴ/반 : 신바 : 니]
 채삼채사[채 : 삼 채 : 사]

4.3. ‘봤다’의 발음은 [봣:따]일까 [봣따]일까?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 긴소리로 발음한다.

보아 → 봐[봐 :] 기어 → 겨[겨 :]
 되어 → 돼[돼 :] 두어 → 뒤[뒤 :]
 하여 → 해[해 :]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저, 찌어 → 찌, 치어 → 처’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4.4. 긴 소리를 가진 첫 음절에서 짧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 : 따] — 감으니[가므니]
 밟다[밥 : 따] — 밟으면[발브면]
 신다[신 : 따] — 신어[시너]
 알다[알 : 다] — 알아[아라]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 끌다[끌 : 다] — 끌어[끄 : 러]
- 뺏다[뺏 : 따] — 뺏은[뺏 : 븐]
- 벌다[벌 : 다] — 벌어[버 : 러]
- 썰다[썰 : 다] — 썰어[써 : 러]
- 없다[업 : 따] — 없으니[업 : 쓰니]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 감다[감 : 따] — 감기다[감기다]
- 꼬다[꼬 : 다] — 꼬이다[꼬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 클리다[끌 : 리다]
- 벌리다[벌 : 리다]
- 없애다[업 : 썰다]

(3) 다음과 같은 복합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쓴-살-같이, 작은-아버지

문 ⑤ 다음 중에서 표준 발음인 것을 고르세요.

- (1) 검찰청(檢察廳) [검:찰청/검찰청]
- (2) 전화(電話)[전:화/전화]
- (3) 없다[업:따/업따]
- (4) 없애다[업:썰다/업썰다]
- (5) 많다[만:타/만타]
- (6) 수많이[수:마:니/수마:니]



(7) (꿈을)꿨다[꺄:따/꺄따]

(8) 별똥별[별:똥별/별똥별/별:똥별:/별똥별:]

5. 받침의 발음

5.1. 홀받침의 발음

문 ⑥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낫, 낮, 낮, 날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 ㄱ, ㄲ, ㅋ → [ㄱ]

국[국], 부엌[부엌], 낚시[낚씨]

■ ㄷ, ㅌ, ㅍ, ㅍ, ㅌ, ㅍ → [ㄷ]

밭고[밭꼬], 밭[밭], 낮고[낮꼬], 낮[낮], 낮[낮], 낮[낮]

■ ㅂ, ㅃ → [ㅂ]

밥통[밥통], 앞[압]

5.2. 겹받침의 발음

(1) 겹받침의 단순화

국어에서 겹받침은 11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가 있다. 이들 겹받침이 들어간 음절이 단어의 마지막 위치에 있거나, 이들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게 되면 두 자음 중에서 하나만 발음된다.

(2) 첫 번째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

‘ㄱ, ㄴ, ㄹ, ㄷ, ㅂ, ㆁ’은 단어의 마지막 위치에 있거나, 이들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게 되면 첫 번째 자음만이 발음된다.

넋[녁], 앓다[안따], 여덟[여덜], 외곶[외곶], 훑다[할따], 값[갑]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발음에 혼동을 보이는 단어로 ‘짧다’, ‘넓다’가 있다. 이 경우 ‘짧다’는 [짹따]가 아닌 [짹따]라고 발음해야 하며 ‘넓다’ 역시 [넙따]가 아닌 [넙따]로 발음해야 한다. 다만 ‘밟다’,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는 예외적으로 두 번째 자음이 발음되어 [밟:따], [넙찌카다], [넙쭈카다], [넙똥글다]로 발음해야 한다.

(3) 두 번째 자음이 발음되는 경우

‘ㄹ, ㄴ, ㅍ’은 단어의 마지막 위치에 있거나, 이들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게 되면 두 번째 자음만이 발음된다.

닭[닥], 짧다[짹따], 읊다[읍따]

다만 ‘ㄹ’ 뒤에 ‘ㄱ’이 연이어 나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첫 번째 자음이 발음된다.

굽다[국따], 굽고[굴꼬], 굽게[굴께]
 맑다[막따], 맑고[말꼬], 맑게[말께]
 읽다[익따], 읽고[일꼬], 읽게[일께]

주의해야 할 것은 파생어들인 ‘값작값작하다, 굽다랗다, 굽직하다, 늑정이’ 등의 경우에 ‘ㄹ’뒤에 ‘ㄱ’이 연이어 나온 경우가 아니므로 역시 [ㄱ]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것이다.

(4) ‘ㄴ’, ‘ㄹ’의 발음

‘ㄴ’, ‘ㄹ’의 경우 이들 음절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오게 되면 첫 번째 자음인 ‘ㄴ’과 ‘ㄹ’이 발음된다. 다만 두 번째 자음 ‘ㅎ’의 영향으로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읽다[일타/*일따] 읽고[일코/*일꼬]
 맑다[만타/*만따] 맑고[만코/*만꼬]



문 ⑦ 다음을 소리 나는 대로 쓰고 발음해 보세요.

몹까지, 엇고, 얇다, 훑다,
넓고, 넓죽하고, 밟고,
읽다, 읽더라, 읽고,
몹더라, 몹고, 갑작거리다, 늑수그레하다, 굵직하다,
읽다

5.3. 받침 ‘ㅎ’의 발음

문 ⑧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놓고, 좋다, 닭지, 옹소
놓아, 좋아, 닭아, 옹아

받침 ‘ㅎ’ 뒤에 ‘ㄱ, ㄷ, ㅈ, ㅉ’가 결합되는 경우 [ㅋ, ㅌ, ㅊ, ㅍ]로 발음된다. 그리고 받침 ‘ㅎ’ 앞에 ‘ㄱ, ㄷ, ㅂ, ㅈ’가 결합되는 경우에도 [ㅋ, ㅌ, ㅍ, ㅊ]로 발음된다.

■ $ㅎ + ㄱ, ㄷ, ㅈ = ㅋ, ㅌ, ㅊ$

놓고[노코], 좋던[조턴], 쌓지[싸치]

많고[만코], 앓던[안턴], 닭지[달치]

※ 놓고 : *[놓코]/*[노꼬]

■ $ㄱ, ㄷ, ㅂ, ㅈ + ㅎ = ㅋ, ㅌ, ㅍ, ㅊ$

각하[가카], 말형[마텅], 좁히다[조피다], 꽃히다[꼬치다]

읽히다[일키다], 넓히다[널피다]

■ $ㅎ + ㅅ = ㅆ$

당소[다쏘], 많소[만:쏘], 싫소[실쏘]

나아가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음의 경우들도 그 예들이 된다.



온갖 힘[온:가팀] 못 형벌[무텅벌]
 몇 할[며탈] 밥 한 사발[바판사발]
 국 한 대접[구칸대접]

물론 단어마다 끊어서 발음할 때에는 ‘옷 한 벌[온 한 벌]’과 같이 발음한다. 즉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한다.

5.4. 연음과 절음

받침으로 쓰인 자음이 그대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연음이라 하고, 받침으로 쓰인 자음이 대표음으로 바뀐 뒤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절음이라 한다. 연음은 어미, 조사, 접미사와 같은 의존 형태소에 연결되는 경우에, 절음은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맛있다, 멋있다’의 경우에는 절음의 원칙이 적용되는 [마딤따, 머딤따]의 발음이 원칙이지만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마싣따, 머싣따]도 허용한다.

빛이[비치] / 빛 아래[비다래] 꽃을[꼬출] / 꽃 아래[꼬다래]
 밭을[바틀] / 밭 아래[바다래] 늪이[느피] / 늪 앞[느밥]
 젖이[저지] / 젖 어미[저더미] 옷이[오시] / 헛웃음[허두슴]

㉠ ⑨ 다음 중 표준 발음으로 쓰인 항목을 고르세요.

- (1) 부엌에서 [부어케서/부어게서]
- (2) 밭을 [바슬/바출/바틀/바들]
- (3) 무릎이 [무르비/무르피]
- (4) 꽃을 [꼬출/꼬즐/꼬틀/꼬슬/꼬들]
- (5) 흙 위(-에 장난감을 쌓자) [흐귀/흘귀]
- (6) 흙이(-있다) [흘기/호기]



6. 소리의 변화

6.1. 구개음화

㉟ ⑩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굳이든다, 굳이, 미단이, 땀받이, 발이(-있다), 벼훑이

받침 ‘ㄷ, ㅌ(ㅍ)’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이외에 ‘히’가 결합될 때에도 받침 ‘ㄷ’과 합하여 [ㅊ]으로 구개음화하여 발음한다. 즉 ‘걸히다[거치다]’, ‘받히다[바치다]’ 등이 그 예다.

6.2. 자음동화

(1) 장애음의 비음화

㉟ ⑪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먹는, 단는, 젓명울, 있는, 밥물, 앞마당

장애음은 비음 앞에서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뀐다. 즉 받침 ‘ㄱ(ㄲ, ㅋ, ㆁ, ㄷ, ㄸ), ㄴ(ㄴ, ㄹ, ㄺ, ㄻ), ㄷ(ㄷ, ㄸ, ㅌ, ㅍ)’은 ‘ㅇ,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하는 경우를 ‘장애음의 비음화’라 한다.

- 물[궁물], 짚는[짚는], 키웁만[키웁만], 뽕뽕이[뽕뽕씨], 흥만[흥만]
- 단는[단는], 옷맵시[온맵씨], 있는[인는], 맞는[만는], 쫓는[쫓는]
붙는[분는], 놓는[논는]
- 밥물[밤물] 앞마당[암마당], 읊는[음는], 값만[감만]

(2) ㄹ의 비음화

㉟ ⑫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담력, 정리

‘ㄹ’은 ‘ㄹ’과 ‘ㅇ’ 뒤에서 ‘ㄴ’로 발음된다.

음료[음뇨], 종로[종노]



※ 십리: [십니]→[심니], 막론: [막논]→[망논]

‘ㄴ, ㄹ’을 제외한 모든 자음 뒤에서 ㄹ은 [ㄴ]으로 발음된다.

(3) 유음화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 첫소리 ‘ㄴ’이 ‘ㄹ’, ‘ㄷ’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난로, 신라, 천리
- 찰나, 칼날, 물난리, 할는지
- 닳는, 뚫는, 활네

다만, ㄴ으로 끝나고 독립성이 있는 2음절 한자어에 ㄹ로 시작된 일음절 접미사가 결합된 다음과 같은 예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 : 견난], 임진란[임 : 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판녁]
 공권력[공권녁],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뵤뇨], 구근류[구근뉴]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감기[감 : 기]/*[강 : 기]	옷감[음감]/*[옥감]
있고[일꼬]/*[익꼬]	꽃길[꼴길]/*[꼭길]
젓먹이[전머기]/*[점머기]	문법[문뻬]/*[뭉뻬]

㉓ ㉔ 다음 중 표준 발음을 무엇일까요?

- (1) 음운론[음운논/음울론]
- (2) 신문로[신문노/신문로]
- (3) 선릉[선능/선릉]
- (4) 춘란[춘난/출란]



- (5) 온라인[온나인/올라인]
- (6) 아니오[아니오/아니요]
- (7) 되어[되어/되어]

6.3. 경음화

(1)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ㅌ), ㅂ(ㅍ, ㅂ, ㅂ,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꺄], 녀받이[녀빠지], 닭장[닥짱], 뺨대다[뺨때다], 웃고름[웃꼬름]
 있던[인뻐], 꽃고[꼇꼬], 꽃다발[꼇따발], 밭갈이[밭까리], 솔전[솔쩨]
 곱돌[곱뿔], 넓죽하다[넙쭈카다], 읊조리다[읍쭈리다], 값지다[갑쩌다]

(2)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신고[신 : 꼬], 꺾안다[껴안따], 앓고[안꼬], 닭고[담 : 꼬]
 삼고[삼 : 꼬], 더듬지[더듬쩌], 었다[언따], 젊지[젊 : 찌]
 안기다[안기다]/*[안끼다], 감기다[감기다]/*[감끼다]

(3)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등[갈뽕], 발동[발뽕], 절도[절또], 말살[말쌀]
 불소[불쏘](弗素), 일시[일씨], 갈증[갈쭙], 물질[물쩨]
 발전[발쩨], 물상식[물쌍식], 불세출[불쨌출]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	절절-하다[절절하다](切切-)
결결[결결](缺缺)	별별[별별](別別)



(4)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5)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손-채주[손째주], 굴-속[굴 : 쪽], 술-잔[술잔]
아침-밥[아침빡],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딸]

㉠ ⑭ 다음 중 표준 발음을 무엇일까요?

- (1) 신발 신고[신 : 고/신 : 꼬] 어디 가니?
- (2) 아이를 굶기다[굶기다/굶끼다].
- (3) 살을 빼기 위해 하루 한 끼 굶기[굶기/굶끼]!
- (4) 김밥[김밥/김빡]
- (5) 불법[불법/불빡]
- (6) (날아다니는)잠자리[잠자리/잠짜리]
- (7) 잠자리(잠자는 자리)[잠자리/잠짜리]
- (8) 작다[작다/작다]
- (9) 게임[게임/께임]
- (10) 효과[효:과/효:파]
- (11) 체증[체증/체쑤]
- (12) 일방적[일방적/일방쩍]



6.4. 음의 첨가

㉮ ⑮ 다음을 발음해 보세요.

숨이불, 색연필, 논일, 한여름, 앞이마, 막일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숨-이불[숨 : 니불], 흘-이불[흔니불], 막-일[망닐]
- 내복-약[내 : 봉낙], 한-여름[한너름]
- 남존-여비[남존녀비], 신-여성[신녀성], 색-연필[생년필], 늑막-염[능망념]
- 담-요[담 : 뇨], 눈-요기[눈뇨기]
- 영업-용[영업농], 식용-유[시공뉴], 국민-윤리[궁민놀리]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먄금]
검열[검 : 념/거 : 멸], 율랑-율랑[율랑놀랑/율랑율랑], 금융[금녕/그똥]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 들-일[들 : 릴], 솔-잎[솔립], 설-익다[설릭따]
- 물-약[물략]
-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력], 물-엿[물련]
-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만일 이러한 소리의 첨가가 없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앞의 자음을 연음하여 발음한다.



- 절약[저략], 월요일[위료일], 목요일[모교일], 금요일[그묘일]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르)’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 6·25[유기오], 3·1절[사밀절], 송별-연[송 : 베틀], 등-용문[등용문]

문 ⑩ 다음 중 표준 발음은 무엇일까요?

- (1) 월요일[위료일/월료일]
- (2) 목요일[모교일/몽뇨일]
- (3) 촬영[촬령/촬령]
- (4) 금융[그똥/금똥]
- (5) 검열[거 : 떨/검 : 념]
- (6) 문-요?[무뇨/문뇨]

6.5. 사이시옷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넷가[내 : 까/넛 : 까] 셋길[새 : 길/셋 : 길] 빨랫돌[빨래똥/빨래똥]
 콧등[코똥/콘똥] 깃발[기똥/긴똥] 대팻밥[대 : 패똥/대 : 똥]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콧날[콘날→콘날] 아랫니[아래니→아래니] 툃마루[툃 : 마루→툃 : 마루]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베갯잇[베갯닐→베갯닐] 깻잎[깻닙→깻닙] 나뭇잎[나뭇닙→나뭇닙]



사이시옷 뒤에 ‘이’ 또는 ‘야, 여, 요, 유’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이 첨가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은 자연스럽게 [ㄴ]으로 발음된다.

뒷일[뒀:닐] 깃잎[깃닙] 도리깃열[도리깃널] 뒷웃[뒀:눈]

㉞ ⑰ 다음 중 표준 발음은 무엇일까요?

- (1) 머리말[머리말/머린말]
- (2) 인사말[인사말/인산말]
- (3) 사이시옷[사이시온/사이씨온/사인씨온]
- (4) 사잇소리[사이소리/사이쑈리/사인쑈리]
- (5) 피자 집[피자집/피자짹/피짜짹/피짹짹]

<참고 자료>

이성은(2004), ‘강의를 위한 발성법’,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프로그램 동영상.

이현복(1992),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 정답

- ① [어 : 른], [긴 : 강], [선 : 수], [어깨], [서리], [버릇]
- ② 구별해서 발음해 보세요.
- ③ 구별해서 발음해 보세요.
- ④ (1) [닐리리]
(2) [민주주의의의의]/[민주주의의의의]/[민주주의에의의]/[민주주의에이이]
(3) [결례] (4) [예쁘다] (5) [통 : 계]/[통 : 계] (6) [은혜]/[은혜] (7) [돋쳐] (8) [구쳐]
- ⑤ (1) [검 : 찰청] (2) [전 : 화] (3) [엮:따] (4) [엮 : 썩다] (5) [만 : 타] (6) [수 : 마니]
(7) [펼따] (8) [별:똥별]
- ⑥ [난], [난], [난], [난]
- ⑦ [목까지], [언꼬], [알따], [홀따], [널꼬], [넙쭈카다], [밥꼬], [익따], [익떠라], [일꼬], [목떠라], [물꼬], [각짝꺼리다], [늑쭈그레하다], [국찌카다], [일타]
- ⑧ [노코], [조 : 타], [달치], [울쏘],
[노아], [조아], [다라], [오라]
- ⑨ (1) [부어케서] (2) [바틀] (3) [무르피] (4) [꼬출] (5) [흐귀] (6) [홀기]
- ⑩ [고지들따], [구지], [미다지], [땀바지], [바치], [벼홀치]
- ⑪ [명느], [단느], [전명울], [인느], [밤물], [암마당]
- ⑫ [담녀], [정니]
- ⑬ (1) [음운논] (2) [신문노] (3) [설릉] (4) [출란] (5) [올라인] (6) [아니오]/[아니요]
(7) [되어]/[되어]
- ⑭ (1) [신 : 꼬] (2) [굵기다] (3) [굵끼] (4) [김밥] (5) [불법] (6) [잠자리] (7) [잠짜리]
(8) [작다] (9) [게임] (10) [효 : 과] (11) [체증] (13) [일방적]
- ⑮ [숨니불], [생년필], [논닐], [한녀름], [암니마], [망닐]
- ⑯ (1) [위료일] (2) [모교일] (3) [촬령] (4) [그뿡]/[금냥] (5) [거 : 떨]/[검 : 널]
(6) [무뇨]
- ⑰ (1) [머리말] (2) [인사말] (3) [사이시온] (4) [사이쏘리]/[사인쏘리] (5) [피자집]



외래어 표기법

김수현*

1. 머리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 가운데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별도의 학습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언중이 이에 관한 규정을 모르고 외래어를 사용하여 표기상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외래어 표기법에 관해 언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규정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용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2. 외래어 표기법의 이해

2.1. 외래어의 정의

외래어는 외국과의 교류로 외국의 문물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거나 우리말이 있어도 의미상의 변화를 의도하여 외국어 어휘를 국어에 동화하여 국어 어휘로 사용하는 말이다.

외국어 어휘가 외래어로 정착되는 기간이나 방식은 각 어휘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외국어와 외래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대체적으로 외래어는 발음, 형태, 의미상에 있어서 원래의 외국어와는 다르게 변형되어 사용하고 있다.

즉 발음에 있어서 ‘fighting[faitɪŋ], radio[reidiou]’의 [f]나 [r]은 국어에는 없는 음으로 이를 표기할 문자 역시 없다. 따라서 이들을 국어음으로 변형하여 각각 [표]과 [리]로 발음하고 ‘파이팅, 라디오’로 표기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형태상의 변형은 형용사나 동사인 외국어 어휘에 국어 조어법을 적용하여 가령 ‘simple[simpl]+하다 → 심플하다, study[stʌdi]+하다 → 스티디하다’와 같이 ‘-하다’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경우이다.

의미상의 변형은 외국어의 고유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로 ‘meeting[mi:tiŋ] 미팅’은 원래의 의미인 ‘회의’와 더불어 ‘남녀 간의 만남’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며, ‘garden[ga:rdn] 가든’은 요식업체의 상호로 사용되기도 한다.

2.2. 현행 외래어 표기법(1986)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전체 4장으로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장 표기 일람표, 제3장 표기 세칙, 제4장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는 외래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표기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과일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1항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국어 자모 이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외래어 사용 초기에는 국어에 없는 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v]를 ‘ㅁ’, [f]를 ‘ㅍ’으로 적는 경우가 있었고, 장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붙임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외래어도 국어 어휘의 일부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국어 자모 이외의 기호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제2항은 가장 이상적인 표기는 외래어의 음운을 국어의 자모와 1:1로 대응하는 것이지만 [f]나 [r]과 같이 국어음이 존재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 2개



이상의 외국어 음을 하나의 국어 자모로 적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시한 것이다.

제3항은 외래어의 받침은 국어 표기와 달리 ‘ㄱ, ㄴ, ㄹ, ㅁ, ㅂ, ㅅ, ㅇ’ 7개로 간단하게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커피숍, 코너킥’과 같은 표기 형태는 사라지게 되었다. 주의할 점은 국어의 경우 ‘ㅅ, ㅈ, ㅊ, ㅌ, ㅍ’ 등의 대표음은 ‘ㄷ’인데 외래어는 ‘ㅅ’을 대표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어 어휘의 경우 가령 ‘빛, 빛, 빛’의 발음은 [빔]이나 모음을 결합하면 ‘빛+이[비시], 빛+이[비지], 빛+이[비치]’와 같이 그 음가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외래어의 경우도 ‘인터넷+이[인터넷시], 디스켓+이[디스케시]’로 그 음가가 ‘ㄷ’이 아닌 ‘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4항은 외래어 표기에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국어의 자모로 모든 외국어음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어의 무성과 열음(k, t, p)은 거센소리(ㄱ, ㅌ, ㅍ)로, 유성과 열음(g, d, b)은 예사소리(ㄱ, ㄷ, ㅂ)로 적도록 하고 있다.

제5항은 외래어 표기 원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기 전에 대부분의 언중이 사용하여 온 어휘 가운데 표기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되는 몇몇 어휘는 표기법에 적용하지 않고 관용을 존중하여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radio[reidiou]’는 표기법 상으로는 발음기호에 따라 ‘레이디오’로 적어야 하고, ‘camera[kæməɾə]’는 ‘캐머러’로 적어야 하나 관용을 인정하여 각각 ‘라디오, 카메라’로 적도록 하고 있다.

2.3. 외래어 표기 용례

A. 자음의 표기

(1) 파열음

어두에 파열음이 올 경우 표기 원칙에 따라 무성과 열음(k, t, p)은 거센소리(ㄱ, ㅌ, ㅍ)로, 유성과 열음(g, d, b)은 예사소리(ㄱ, ㄷ, ㅂ)로 적는다.

- 1) café[kæfei/kæfei] 카페/까페
trio[triou] 트리오/뜨리오



Paris[ˈpæris] 파리/빠리

gas[gæs] 가스/까스

double[dʌbl] 더블/떠블

bus[bʌs] 버스/빠스

무성파열음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 올 때 받침으로 적거나 ‘으’를 붙여 적는다. 일반적으로 영어 이외의 경우는 ‘으’를 붙여 적으면 되나, 영어의 경우는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 이는 이중모음이나 장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2) robot[rɒbɒt] 로봇/로보트

internet[ɪntənet] 인터넷/인터넷

Tibet[ˈtɪbet] 티벳/티베트

cake[keɪk] 케익/케이크

tape[teɪp] 테이프/테이프

flute[flu:t] 플룻/플루트

또한 짧은 모음과 유음이나 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있는 무성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 따라서 짧은 모음과 유음이나 비음 사이의 무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어야 한다.

3) lipstick[ˈlɪpstɪk] 립스틱/리프스틱

napkin[ˈnæpkɪn] 냅킨/내프킨

mattress[ˈmætrɪs] 매트리스/매트리스

sickness[ˈsɪknɪs] 식니스/시크니스

유성파열음의 경우는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으’를 붙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head[hed] 헛/헤드

herb[hɜ:b] 헵/허브



gagman[gægman] 객맨/개그맨

그러나 간혹 관용을 존중하여 규칙과 다른 표기를 인정하고 있어 언중이 실제 표기를 할 때 혼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규칙과 달리 표기하는 어휘는 그 용례를 별도로 명시하여 언중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5) hip[hip] 힙/히프
- set[set] 셋/세트
- bag[bæg] 백/배그
- web[web] 웹/웹브

(2) 마찰음

마찰음 [f]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 일람표에 모음 앞에서는 ‘프’으로, 자음 앞 또는 어말에서는 ‘프’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어로는 마찰음 [f]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이다.

- 6) fighting[faitiŋ] 파이팅/화이팅
- fantasy[fæntəsi] 판타지/환타지
- frypan[fraipæn] 프라이팬/후라이팬
- graph[græf] 그래프/그래푸

마찰음 [s]는 [s] 뒤에 모음이 이어지는 대부분의 경우와 [s]가 어말에 올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그러나 기본 원칙에서 명시하였듯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사소리인 ‘ㅅ’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7) service[sə:rvis] 서비스/씨비스
- center[sentər] 센터/첸터
- sauna[saunə] 사우나/싸우나
- sign[sain] 사인/싸인



dance[dæns] 댄스/댄쓰

gas[gæs] 가스/까쓰

마찰음 [ʃ]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로,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 모음 앞에서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세, 쇼, 슈, 시’ 등으로 적는다.

8) shrimp[ʃrɪmp] 쉬림프/슈림프

dash[dæʃ] 대쉬/대시

English[ɪŋɡlɪʃ] 잉글리쉬/잉글리시

shopping[ʃɒpɪŋ] 쇼핑/쇼핑

leadership[liːdəʃɪp] 리더쉽/리더십

(3) 파찰음

국어에서는 ‘ㄷ, ㅌ’ 같은 구개 자음 뒤에서는 이중모음과 단모음이 구분되지 않는다. 즉 ‘ㄷ, ㅌ’을 지닌 단어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든 단모음으로 발음하든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외래어를 적을 때에도 ‘ㄷ’이나 ‘ㅌ’ 뒤에 발음상 구분되지 않는 ‘쟈, 쥬, 찌’ 등의 이중모음 표기를 하지 않고 단모음으로 적도록 하고 있다.

9) television[telɪvɪʒən] 텔레비전/텔레비전

juice[dʒuːs] 주스/쥬스

chance[ʧɑːns] 찬스/찬스

chart[ʧɑːt] 차트/차트

(4) 유음

유음 [l]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받침으로 적으며, 어중에서는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m], [n])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다. 다만 ‘Hamlet[hæmlɪt] 햄릿, Henley[henli] 헨리’와 같이 비음([m], [n]) 뒤의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ㄹ’로 적는다.



- 10) plaza[plɑ:zə] 플라자/플라자
- clinic[klinik] 크리닉/클리닉
- catalogue[kætəlog] 카다로그/카탈로그
- club[klʌb] 클럽/클럽

B. 모음의 표기

외래어 표기에서 모음의 경우는 발음기호를 확인하지 않고 철자에 의한 표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예가 많이 발생한다.

(1) 단모음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일람표의 국제음성기호와 한글대조표에 의하면 [ə]와 [ʌ]는 ‘어’로, [æ]는 ‘애’로, [ɔ]와 [o]는 ‘오’로 적도록 되어 있다.

- 11) terminal[tə:rmɪnəl] 터미널/터미날
- dollar[dələr] 달러/달라
- color[kʌlər] 컬러/칼라
- honey[hʌni] 허니/하니
- accessory[æksesəri] 악세서리/엑세서리
- talent[tælənt] 탈렌트/텔런트

특히 ‘con-’은 [kɔn-]과 [kən-]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중은 철자 ‘o’에 의해 ‘콘’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컨’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외래어를 표기할 때 철자가 아닌 발음기호에 의해 표기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12) concert[kɔnsə:t] 콘서트/컨서트
- concept[kɔnsept] 콘셉트/컨셉트
- condition[kəndɪfən] 콘디션/컨디션
- control[kəntroul] 콘트롤/컨트롤
- collection[kəlekʃən] 콜렉션/컬렉션



(2)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각각의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는다. 따라서 ‘spike[spaik] 스파이크, sauna[saunə] 사우나, skate[skeit] 스케이트’와 같이 [ai]는 ‘아이’, [au]는 ‘아우’, [ei]는 ‘에이’ 등으로 적는다. 다만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 13) boat[bout] 보트/보우트
- pose[pouz] 포즈/포우즈
- shadow[ʃædou] 섀도/섀도우
- window[windou] 윈도우/윈도우
- power [pauə] 파워/파우어
- tower [tauə] 타워/타우어

C. 복합어의 표기

복합어는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이는 복합어를 한 단어로 보아 표기하면 이들이 각각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와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를 살려서 적도록 한 것이다.

- 14) outlet [autlet] 아울렛/아웃렛
- make up [meikʌp] 메이컵/메이크업
- headlight [hedlait] 헤드라이트/헤드라이트

D. 인명·지명의 표기

인명·지명의 표기는 다른 일반 명사에 비해 구별이 용이한 것으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Caesar 시저, Hague 헤이그’와 같이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르고, ‘Pacific Ocean 태평양, Black Sea 흑해’와 같이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에도 관용을 따르는 등 관용 표기를 허용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동양의 인명·지명 표기의 경우는 국어의 한자음으로 읽는 습관이



있어 따로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2절에 그 표기법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인명은 제1항에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孔子, 孟子’ 등의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공자, 맹자’로 표기하고, ‘毛澤東, 張國榮’과 같은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발음에 따라 ‘마오쩌둥, 장궈룽’으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지명의 경우는 제2항에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린 한자음대로 하고, ‘廣州 광저우, 杭州 항저우’와 같이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발음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인명·지명은 ‘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 札幌 삿포로’ 등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발음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15) 鹿兒島 녹아도/가고시마

安倍晋三 안배진삼/아베신조

海南 해남/하이난

鄧小平 등소평/덩샤오핑

문제는 ‘京都, 東京, 上海, 黃河’와 같이 일본 및 중국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교토, 도쿄, 상하이, 황허’와 함께 ‘경도, 동경, 상해, 황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언중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관용 표기의 경우는 그 목록을 명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16) 北海島 북해도/훗카이도

大阪 대판/오사카

萬里長城 만리장성/완리창청

吉林 길림/지린



3. 맺음말

외래어는 국어 어휘 가운데 하나로 일상에서 자주 사용된다. 외래어를 올바르게 표기하기 위해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은 기본 원칙과 함께 예외 조항이 존재하므로 규칙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여야 한다.

언중이 외래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기법에 관한 이해와 함께 바른 표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육 과정에 외래어 표기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규범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규범에 관한 교육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송 매체도 자막에 외래어를 표기할 경우 표기법에 맞게 표기하여 언중의 외래어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언중도 외래어가 국어 어휘임을 인식하여 표기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정답

- 1) 카페, 트리오, 파리, 가스, 더블, 버스
- 2) 로봇, 인터넷, 티베트, 케이크, 테이프, 플루트
- 3) 립스틱, 냅킨, 매트리스, 시크니스
- 4) 헤드, 허브, 개그맨
- 5) 히프, 세트, 백, 웹
- 6) 파이팅, 판타지, 프라이팬, 그래프
- 7) 서비스, 센터, 사우나, 사인, 댄스, 가스
- 8) 슈림프, 대시, 잉글리시, 쇼핑, 리더십
- 9) 텔레비전, 주스, 찬스, 차트
- 10) 플라자, 클리닉, 카탈로그, 클럽
- 11) 터미널, 달러, 컬러, 허니, 액세서리, 텔런트
- 12) 콘서트, 콘셉트, 컨디션, 컨트롤, 컬렉션
- 13) 보트, 포즈, 색도, 원도, 파워, 타워
- 14) 아울렛, 메이크업, 헤드라이트
- 15) 가고시마, 아베신조, 하이난, 덩샤오핑
- 16) 북해도, 홋카이도, 대판, 오사카, 만리장성, 완리창청, 길림, 지린



로마자 표기법

권 미 영*

1. 로마자 표기법의 원리와 특징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 □□□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마자 표기법』은 표기의 원칙이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와 원래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예컨대 ‘왕십리’의 경우, 표기는 ‘왕십리’이지만 발음은 [왕심니]이다. 이처럼 원래의 형태와 발음이 다른 경우, 로마자로는 ‘Wangsipri’가 아니라 발음대로 ‘Wangsimni’로 적는다.

(1) 로마자로 표기할 때 발음대로 적는 이유는 무엇인가?

☞ 로마자 표기할 때 발음대로 적는 것은, 외국인이 가능하면 국어 발음과 가깝게 발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약 도로 표지판에 ‘왕십리’를 맞춤법대로 ‘Wangsipri’처럼 표기한다면, 외국인들은 이를 그대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발음은 우리가 하는 발음과 달라서 알아듣기가 어려울 것이다. 로마자 표기는 외국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표기이므로 이처럼 발음대로 적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왜 로마자 표기가 필요한가?

* 국립국어원



만약 로마자 표기가 단순히 외국인들에게 길이나 장소 안내 등의 관광 안내만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로 표기하는 것이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겠다.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좀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정리하고 보관하여 세계와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세계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로마자를 공용 표기법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로마자 표기법』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㉞ 다음 단어를 로마자로 쓰시오.

- (1) 삼성(기업명) ()
- (2) 대우(기업명) ()
- (3) 현대(기업명) ()
- (4) 조선(신문명) ()
- (5) 중앙(신문명) ()

☞ 현재 기업명 ‘삼성’, ‘대우’, ‘현대’는 각각 ‘Samsung’, ‘Daewoo’, ‘Hyundai’로, 신문명 ‘조선’, ‘중앙’은 ‘Chosun’, ‘JoongAng’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들 표기를 살펴보면, ‘ㅌ’는 ‘woo’와 ‘oo’로, ‘ㅙ’는 ‘ae’와 ‘ai’로 ‘ㅈ’은 ‘ch’와 ‘j’로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음운을 표기하는 로마자를 제각각 쓰는 혼란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겠지만, 규범 자체가 가지고 있던 문제도 있었는데, 로마자에 부호를 덧붙여 쓰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2000년 7월 현재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개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매균과 라이샤위가 만든 ‘매균라이샤위식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표기법에서는 반달표(˘)와 어긋점(˙) 같은 부호를 로마자와 함께 쓰도록 하였다. 반달표(˘)의 경우, ‘ㅜ(ö)’와 ‘ㅡ(ü)’를 표기하는 데 쓰도록 하였는데, 이 부호는 전산



처리가 불편하였다. 이러다 보니 ‘ㄷ’를 표기하는 데는 ‘u’를 쓰지 않고, ‘oo’나 ‘woo’처럼 잘못된 표기를 쓰게 된 것이다.

어긋점(˘)은 ‘ㅍ(p), ㅌ(t), ㅋ(k)’처럼 거센소리를 표기하는 데 쓰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가’는 ‘ka’로, ‘카’는 ‘k’a’로, ‘ㄱ’과 ‘ㅋ’을 어긋점을 사용하여 구별한 것이다. 그런데 ‘가구’처럼 ‘ㄱ’이 두 번 사용된 경우에는 ‘kagu’와 같이 ‘ㄱ’을 그 위치에 따라 ‘k’와 ‘g’로 달리 쓰도록 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언어 의식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은 로마자로 쓸 때, ‘ㄱ, ㄷ, ㅂ, ㅈ’을 ‘k, t, p, ch’로 써야 하는지 ‘g, d, b, j’로 써야 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이에 표기법을 개정하면서 가능하면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와 같이 ‘되도록’이라고 표현한 것은 붙임표(-)는 개정된 표기법에서도 쓰기 때문이다. 이 부호는 행정 구역 단위를 표시할 때에 반드시 써야 하고, 그 외, 이름이나 기타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

2. 모음과 자음의 로마자 표기 익히기

2.1. 모음

(1) 단모음

ㅣ ()	ㅑ ()	ㅡ ()	ㅓ ()
ㅕ ()	ㅗ ()	ㅛ ()	ㅜ ()
ㅛ ()		ㅜ ()	

(2) 이중모음

① ‘y’ 계열

ㅑ ()	ㅓ ()	ㅕ ()	ㅗ ()	ㅛ ()	ㅜ ()
-----------	-----------	-----------	-----------	-----------	-----------



② ‘w’ 계열

과 ()	괘 ()	거 ()	계 ()
-------	-------	-------	-------

③ 기타

기 ()

☞ 단모음의 표기에서는 ‘i’와 ‘e’를 ‘eo’와 ‘eu’로 표기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표기할 경우 외국인들이 ‘eo’, ‘eu’를 ‘에오’, ‘에우’로 읽을 가능성이 있지만, 로마자에 한국어의 ‘어’와 ‘으’를 한 글자로 적을 만한 글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적게 되었다.

이중모음은 단모음에 ‘y’나 ‘w’를 넣어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런데 ‘gi’는 ‘weo’가 아니라 ‘wo’로, ‘gi’는 ‘eui’가 아니라 ‘ui’로 적는다는 것에 주의해야겠다.

2.2. 자음

(1) 파열음

ㅂ (,)	ㅃ ()	ㅍ ()
ㄷ (,)	ㄸ ()	ㅌ ()
ㄱ (,)	ㄲ ()	ㅋ ()

(2) 파찰음

ㅈ ()	ㅉ ()	ㅊ ()
-------	-------	-------



(3) 마찰음

ㅅ ()	ㅆ ()	ㅎ ()
------------	------------	------------

(4) 비음

ㅁ ()	ㄴ ()	ㅇ ()
------------	------------	------------

(5) 유음

ㄹ ()	ㄺ ()	ㄻ ()
------------	------------	------------

☞ 자음의 표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ㄱ, ㄷ, ㅂ’는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적지만,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② ‘ㅇ’은 자음 앞이나 단어의 끝, 즉 받침으로 쓰일 때에만 소리([ŋ])가 나므로, ‘아’는 ‘a’로 적어야지 ‘nga’로 적어서는 안 된다.
- ③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으며, ‘ㄹㄹ’처럼 ‘ㄹ’이 겹쳐서 발음될 때는 ‘ll’로 적는다.



3. 유의할 점

앞에서 이미 강조했지만 로마자로 표기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발음 음대로 적어야 한다는 점이다.

㉠ 다음 단어를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여 로마자로 바꾸어 쓰시오.

(1) 신문로 [] _____

(2) 막일 [] _____

(3) 해돋이 [] _____

(4-1) 잡혀 [] _____

(4-2) 집현전 [] _____

(5) 압구정 [] _____

(6) 해운대 [] _____

(7) 본인 성명[] _____

(8-1) 제주도 [] _____

(8-2) 청주시 [] _____

(9) 속리산 [] _____

(10) 삼성 [] _____



3.1.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자음 동화)

☞ 자음 두 개가 서로 연이어 발음될 때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한 음운 또는 두 음운이 바뀌어 서로 비슷하게 발음되는 현상을 자음 동화라고 한다. 자음 동화는 우리말을 발음할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화 현상이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 이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우리말의 자음 동화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ㄱ, ㄷ, ㅂ’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바뀐다.

백마[백마] Bangma 단는다[단는다] danneunda 감문[감문] Gammun

② ‘ㄹ’은 ‘ㄹ, ㅇ’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삼례[삼례] Samnye 종로[종노] Jongno

③ ‘ㄱ, ㅂ’ 뒤에 ‘ㄹ’이 오면 ‘ㄱ, ㅂ’은 ‘ㅇ, ㄹ’으로, ‘ㄹ’은 ‘ㄴ’으로 둘 다 바뀐다.

곡릉[공능] Gongneung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④ ‘ㄴ’ 다음에 ‘ㄹ’이 오면 ‘ㄹ’이 ‘ㄴ’으로 바뀔 수도 있고, ‘ㄴ’이 ‘ㄹ’로 바뀔 수도 있다.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신라[실라] Silla

⑤ ‘ㄹ’ 다음에 ‘ㄴ’이 오면 ‘ㄴ’이 ‘ㄹ’로 바뀐다.

별내[별래] Byeollae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음운 첨가)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하는 현상을 음운 첨가 혹은 ‘ㄴ’ 첨가라고 한다. 이때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 자음이 ‘ㄹ’이면 첨가된 ‘ㄴ’ 소리는 앞의 자음 동



화 ④에 의하여 ‘ㄹ’로 발음된다. 이렇게 음운이 첨가되는 현상은 표준 발음
이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유의해야겠다.

학여울[항녀울] Hangnyeul

알약[알락] a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구개음화)

☞ ‘ㄷ’이나 ‘ㅌ’은 뒤에 ‘ㅣ’ 모음이 오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구개
음 ‘ㅈ’이나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데 이를 구개음화라고 한다. 이 구개음
화 현상도 표준 발음이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 ‘ㄱ, ㄷ, ㅂ, ㅈ’가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소리 나는
현상을 거센소리되기라고 한다. 이 현상도 표준 발음이므로 로마자로 표기
할 때 유의해야 한다.

▪ 다만, □□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운이 변화하는 현상은 대개 표준 발음을 따라
로마자로 표기할 때 발음대로 적는다. 하지만 거센소리되기는 **체언**의 경우에
는 발음대로 적지 않고 ‘ㅎ’을 밝혀 적는다.

▪ [불임] □□□□□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된소리되기**는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무시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된소리되기는 규칙적인 경우도 있지만 현재 혼동을 보이는 경우도 많
아서, 로마자 표기에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체언의 거센소리되기, 그리고 된



소리되기, 이 둘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2.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예를 들어 ‘세운’을 로마자로 ‘Seun’으로 적으면 ‘세운’뿐만 아니라 ‘슨’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처럼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Se-un’처럼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여기서 붙임표(-)는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3.3.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고유 명사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적는 것(부산 Busan)이 원칙이다.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쓰거나(부산 BUSAN), 음절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거나(부산 BuSan), 모두 소문자로 쓰거나(부산 busan)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 잘못된 표기하다. 반대로 고유 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첫글자도 소문자로 적어야 한다.

3.4.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인명을 쓸 때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는 것에 유의해야겠다. 한국 사람은 일본, 중국과 더불어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쓴다는 것을 아는 외국인들이 많으므로 굳이 서양의 방식을 따라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쓸 필요는 없다. 또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하고 있지만, 로마자로 성명을 적을 때는 성과 이름을 띄어 쓰도록 하고 있다. 이름의 경우, 보통 두 음절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붙여 쓰는 것(나리 Nari)이 원칙이지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써도(나리 Na-ri) 된다.



-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 예를 들어 ‘빛나’라는 이름은 [빈나]로 발음되지만, ‘Binna(Bin-na)’로 적지 않고, ‘Bitna(Bit-na)’로 적는다. 이것은 이름을 음절별로 따로 읽었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적기로 한 것은 이름에는 항렬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음절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3.5.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행정 구역 단위 앞에는 반드시 붙임표(-)를 넣어야 한다. 이 붙임표(-)의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인왕리 [이왕니]’처럼 음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Inwang-ni’가 아니라 ‘Inwang-ri’로 적어야 한다.

- ‘□, □, □’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 ‘청주시(Cheongju)’, ‘함평군(Hampyeong)’, ‘순창읍(Sunchang)’처럼 ‘시, 군, 읍’에 한해서는 행정 구역 단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6.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로마자로 표기할 때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남산’은 ‘Namsan’으로 ‘다보탑’은 ‘Dabotap’으로 써야 한다. ‘Nam-san’이나 ‘Dabo-tap’처럼 붙임표를 넣거나, ‘Nam Mountain’, ‘Dabo Pagoda’처럼 영어 단어를 섞어서 적는 것은 잘못된 표기다.



3.7.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 현실적으로 여권에 올린 인명이나,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회사명이나 단체명의 로마자 표기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 이기에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새로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을 로마자로 표기한다면, 당연히 『로마자 표기법』을 잘 익혀 올바른 표기로 써야겠다.



· 정답

2.1.

ㅣ (i), ㅍ(wi), ㅡ(eu), ㅓ(u) / ㅔ(e), ㅚ(oe), ㅛ(eo), ㅜ(o) / ㅈ(ae), ㅊ(a)
ㅊ(ya), ㅊ(yeo), ㅛ(yo), ㅠ(yu), ㅈ(yae), ㅊ(ye)
ㅊ(wa), ㅚ(wae), ㅍ(wo), ㅔ(we)
ㅚ(ui)

2.2.

ㅂ(b, p), ㅃ(pp), ㅍ(p) / ㄷ(d, t), ㄸ(tt), ㅌ(t) / ㄱ(g, k), ㄲ(kk), ㅋ(k)
ㅈ(j), ㅉ(jj), ㅊ(ch)
ㅅ(s), ㅆ(ss) / ㅎ(h)
ㅁ(m), ㄴ(n), ㅇ(ng)
ㄹ(r - 모음 앞), ㄺ(l - 어말, 자음 앞), ㄻ(ll)

3.

- (1) 신문로 [신문노] Sinmunno
- (2) 막 일 [망 닐] mangnil
- (3) 해돋이 [해도지] haedoji
- (4-1)잡 혀 [자 께] japyeo
- (4-2)집현전 [지편전] Jiphyeonjeon
- (5) 압구정 [압꾸정] Apgujeong
- (6) 해운대 [해운대] Hae(-)undae
- (7) 성 명 [홍빈나] Hong Bitna(Bit-na) 홍빛나
- (8-1)제주도 [제주도] Jeju-do
- (8-2)청주시 [청 주] Cheongju(-si)
- (9) 속리산 [송니산] Songnisan
- (10) 삼 성 [삼 성] Samsung



언어 예절

전 수 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친족에 대한 부르는 말, 가리키는 말 전반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결실이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편찬한 『우리말의 예절』(1991)이다. 대량 전달 수단을 가진 조선일보가 문제 제기 기사를 써서 전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모았고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 기사를 쓰는 한편으로 지방에 따라 차이가 너무 심한 것은 이 방면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표준 화법으로 발표하였는데 위의 책은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그 후 『표준 화법 해설』(1992),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1995) 등의 단행본을 잇달아 간행하였다. 또, 1996년에는 조선일보와 함께 『우리말의 예절』(1991)에 북한의 언어 예절을 더 하여 증보판으로 『우리말의 예절(상, 하)』을 발간함으로써 명실 공히 남북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언어 예절의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1. 부부 사이

남편

호칭어	신혼 초	여보, ○○ 씨, 여봐요[허용]
	자녀가 있을 때	여보, ○○ 아버지, ○○ 아빠
	장년, 노년	여보, 영감, ○○ 할아버지, ○○ 아버지

* 전 국립국어원



지 칭 어	남편에게	당신, ○○ 씨[신혼 초], 영감[장년, 노년]
	시부모에게	아버, 아범, 그이(이이, 저이)
	친정 부모에게	○ 서방, 그 사람

남편을 부르는 명칭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결혼 4년째 된 어느 부부는 상대방을 ‘자기’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딸아이가 “자기야, 이게 뭐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잘못 쓴 호칭어를 아이가 듣고 배운 것이다.

아내

호 칭 어	신혼 초	여보, ○○ 씨, 여봐요[허용]
	자녀가 있을 때	여보, ○○ 어머니, ○○ 엄마
	장년, 노년	여보, 임자, ○○ 할머니, ○○ 어머니
지 칭 어	아내에게	당신, ○○ 씨[신혼 초], 임자[장년, 노년]
	친부모에게	(○○) 어미(어멈), 그 사람
	장인, 장모에게	(○○) 어미(어멈, 엄마), 집사람, 그 사람, 안사람

또 28세의 어떤 주부는 대학 동창인 남편에게 처음에는 ‘○○야’ 하고 부르다가 이제는 ‘○○ 씨’ 정도로 불러 주거나 ‘이봐요’, ‘당신’, ‘여보’, ‘자기야’ 등 기분 내키는 대로 부르는데 시부모 앞에서는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남편을 부를 때 ‘보세요’ 하거나 ‘있잖아요’ 하고 얼버무리기가 일쑤다. 대학 선배와 결혼한 30세의 한 주부는 결혼 전의 습관이 입에 배서 둘이 있을 때나 남 앞에서나 자기 남편을 ‘형’이라고 부른다. 시어머니가 곁에 있어도 이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어느 방송국 여성 프로듀서의 이야기다. 예정 시간보다 일찍 방송국에 도착한 출연자에게 “일찍 오셨군요.” 하니 “아빠가 데려다 주셨어요.”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제 남편’으로 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지만 방송을 시작하기만 하면 ‘아빠’로 바뀐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필자가 근무하는 덕수궁에는 봄 가을로 흰 면사포의 화려한 물결이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추억 사진’을 찍기 위해서이다. 이 때 면사포를 쓴 신부가 신랑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흔히 듣게 된다.



그러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연령에 관계없이 ‘여보’가 가장 무난하다. 신혼 초에는 ‘○○ 씨’, ‘여봐요’도 쓸 수 있다. 신혼 초에 바로 ‘여보’라고 부르기 가 어려우므로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남편을 ‘형’, ‘오빠’, 아저씨 ‘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어법에도 맞지 않아 써서는 안 되지만 ‘○○ 씨’는 흔히 쓰이고 있고 ‘아저씨’나 ‘오빠’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므로 신혼 초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녀가 있을 때에는 ‘○○ 아버지’, ‘○○ 아빠’라고 한다. 장년이나 노년이 되면 남편을 ‘영감’, ‘○○ 아버지’, ‘○○ 할아버지’로 부른다. 남편을 가리키는 말은 나이에 관계없이 ‘당신’이 제일 무난하고 신혼 초에는 ‘○○ 씨’라고 할 수 있으며 장년이나 노년에는 ‘영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내를 부르는 말 역시 ‘여보’가 연령을 떠나 언제나 무난하다. 신혼 초에는 ‘○○ 씨’, ‘이봐요’가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때에는 ‘○○ 엄마’, ‘○○ 어머니’도 쓸 수 있다. 장년, 노년일 때에는 ‘임자’, ‘○○ 엄마’, ‘○○ 어머니’, ‘○○ 할머니’라는 말도 쓸 수 있다. 아내를 가리키는 말은 ‘당신’이 제일 무난하고 신혼 초에는 ‘○○ 씨’, 장년, 노년에는 ‘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에게 자기 아내를 말할 경우 ‘집사람’, ‘안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남편의 직장이나 아내의 직장에 대하여는 남편이나 아내가 각각 자기 사무실 의자에 앉아 ‘집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도 무방하다. 필자가 최근에 평양에서 월남한 두 인사를 대상으로 부부 호칭어, 지칭어에 대한 그 쪽 상황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데 평양에서는 ‘여보’나 ‘여봐요’ 대신 흔히 ‘여’ 하고 부르고 남에게 남편을 가리킬 때에는 흔히 ‘세대주’라고 한다. ‘세대주’라는 명칭은 북한에서 거의 매일 같이 있는 인민반 회의에 세대주인 남편이 참석하는 일이 많아서 생긴 이름인 것 같다. 함경북도에서는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에는 ‘나그네’라고 지칭한다. 이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그네’와 사는 아내들은 남편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겠다.



2. 부모와 자녀 사이

부모

호칭어	살아 계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어릴 때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성장 후	어머니, 아버지		
지칭어	부모, 조부모에게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어머니, 아버지
	친척에게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어머니(어머님), 아버지(아버님)
	남편에게	친정(지역 이름) 어머니, 친정(지역 이름) 아버지	친정어머니(님), 친정아버지(님)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예절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자신들이 배운 대로 호칭어, 지칭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실 감각에 맞지 않는 말을 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절 교육을 거의 받은 일이 없는 신세대, 즉 아버지, 어머니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는 혼인 전에 쓰던 말을 혼인 이후까지 쓰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성세대의 말투를 따르려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혼인의 단꿈에 젖어 있는 어느 신부의 이야기이다. 집안에서 귀염둥이로 자라서 혼인을 했는데 남의 집 맘머느리가 되었다. 가끔 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집에서도 수다를 떨 때에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저희 엄마는요, 저희 아빠가요’ 하고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섭섭하더라도 여기서는 친정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너는 우리 집 맘머느리가 아니니?” 하고 나무란다고 한다.

어느 대학원생의 경험담이다. 수업이 늦게 끝나 교수를 모시고 저녁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자연히 소주잔이 오가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우리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항상 집에 아버님 드실 술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고 말했다. 이때 자신의 아버지를 교수님 앞에서 ‘아버지’가 아닌 ‘아버님’이라고 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자녀

		혼인하지 않은 자녀	혼인한 자녀
호칭어		○○[이름]	(○○) 아버지(아범), (○○) 어머니(어멈), ○○[이름]
지	가족, 친척에게	○○[이름], [그들이 부르는 대 로]	(○○) 아버지(아범), (○○) 어머니(어멈), ○○[이름], [그 들이 부르는 대로]
	자녀의 직장 사람들에게	○○ 씨, ○ (○○) 직함(님)	
어	타인에게	우리 ○○[이름],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돈 쪽 사람에게		○○ 아버지(아범), ○○ 어머니(어멈), [그들이 부르는 대로], ○○[이름]

어느 회사 사장의 이야기이다. 직원이 자기에게 청첩을 내밀면서 오는 토요일이 선친의 고회 잔치여서 고향에 좀 다녀와야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선친의?” 하고 되묻자 “예,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하고 대답을 했다. 나무랄 데 없이 성실한 사원인데 자신의 살아 계신 아버지를 선친(先親)으로 부르는 데 놀랐다.

표준 화법에서 부모를 부르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이고 어렸을 때에는 ‘아빠’, ‘엄마’로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성장 후에는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야 한다. 혼인한 딸은 물론 친정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게 되어 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친정 부모를 ‘아빠’, ‘엄마’로 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들딸이 자신의 부모를 말하거나 혼인한 딸이 자신의 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 조심하여야 할 사항은 ‘아버님’, ‘어머님’처럼 ‘-님’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존경의 예의보다 친밀감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 친정 부모, 외조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님’을 붙여 쓸 수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타인에게 말할 때는 ‘선친’(先親), 돌아가신 어머니를 타인에게 말할 때에는 ‘선비’라고 한다.

기혼의 딸이 남편의 시댁 쪽 사람에게 친정 부모를 가리킬 때에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또는 지역 이름을 넣어서 ‘○○동 아버지’, ‘○○동 어머니’라고 부른다. 물론 ‘○○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라고 자기 아이들이 부르는 말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자기 아이들에게 기댄 이 말은 아이들이



성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노인들끼리 모임 기회가 종종 있다. 물론 자식들을 모두 분가시켜 놓고 한가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행복한 노인들이다. 그런데 어느 노인들은 자신의 아들 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전 박사가 굉장한 효자거든” 한다거나 “우리 김 장군이 말야, 그게 아니래.”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자식을 잘 둔 사람이 부럽기도 하지만 도가 지나칠 때에는 듣기에 거북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딸 부잣집에서 자란 어느 주부는 시집에서도 친정에서 어리광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지난날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감정은 아이 엄마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친정에서 모두 모임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채린 어미야!”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런 호칭이 아버지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아 아주 섭섭했다.

자녀를 부르는 말은 미혼일 경우에는 이름으로 부르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가리킬 때에는 이름으로 가리켜도 좋고 가리키는 자녀보다 나이가 어린 상대방의 경우에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형’, ‘누나’, ‘삼촌’, ‘고모’로 말할 수 있다. 자녀가 혼인을 하면 아들의 경우, 아이가 없을 때에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가리키고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비’, ‘아범’, ‘○○ 아비’, ‘○○ 아범’으로 말하거나 이름으로 말한다. 혼인한 딸은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름으로 부르고 아이가 있을 때에는 ‘어미’, ‘어멈’, ‘○○ 어미’, ‘○○ 어멈’이라고 하거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자기 아들딸을 ‘박사’, ‘장군’으로 말할 때에는 자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가려 써야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르는 말, 가리키는 말 가운데에서 현재 평양에서는 ‘엄마’라는 말은 있으나 ‘아빠’라는 말이 쓰이지 않음을 참고로 밝힌다.



3.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시부모

호 칭 어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지 칭 어	시조부모에게	아버님(아버지), 어머님(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남편에게	아버님, 어머님
	자녀에게	할아버지(할아버님), 할머니(할머님)

며느리

호 칭 어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애야
지 칭 어	며느리에게	아기, 새아기, (○○) 어미(어멈), 너
	부모에게	며늘애, (○○) 어미(어멈), ○○ 댁(처)
	배우자에게	며늘애, 새아기, (○○) 어미(어멈), ○○ (처)
	아들에게	(○○) 어미, 네 댁, 네 처
	사돈에게	며늘애, ○○ 어미, [그들이 부르는 대로]

며느리가 시부모를 대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지난봄에 결혼한 어느 새댁의 이야기이다. 며칠 전 만동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올라오셨으니까 그 다음날 모여서 저녁이나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자신의 바로 윗동서인 둘째 동서도 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음날 약속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다 모인 가운데 즐거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이 새댁은 한껏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한 마디 했다.

“어머니, 먼 길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많이 잡주세요.”

그러자 이를 들은 큰동서가 넌지시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막내 동서는 아직도 ‘어머니’, ‘어머니’ 하면 어떻게 해. ‘어머님’이라고 해야지.”



모두들 가볍게 웃어넘기고 말았지만 이 새댁은 시집 식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만 같아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다정하게 들릴 것 같아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 만동서 때문에 역효과가 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봐도 편잔을 받을 일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요즈음은 시아버지에 대하여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아직도 항상 조심스럽고 대하기 어려운 어른이다. 그러므로 ‘-님’을 붙이면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하여 ‘아버지’로 부를 수는 없다. 반드시 ‘아버님’이라고 해야 한다. 더구나 어린이의 말인 ‘아빠’는 써서는 안 될 말이다. 다만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어머님’을 원칙으로 하되 ‘어머니’라고 ‘-님’을 붙이지 않는 것도 허용하였다. 이는 시아버지의 경우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며느리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 갈등도 있기는 하지만 서로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시조부모에게 시부모를 가리킬 때에는 ‘아버님’, ‘어머님’을 원칙으로 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이는 시부모보다 시조부모가 더 웃어른이므로 ‘아비’, ‘어미’라고 해야 한다고 하나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도 없다. 자녀에 기대어 ‘할아버지(할아버님)’, ‘할머니(할머님)’라고 할 수도 있다. 시댁 친척에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가리킬 때에는 ‘-님’을 붙여 ‘아버님’, ‘어머님’으로 말한다. 친정 부모나 친척에게는 ‘-시-’를 붙여 ‘시아버님(시아버지)’, ‘시어머님(시어머니)’ 또는 자녀에 기대어 ‘○○ 할아버지(할아버님)’, ‘○○ 할머니(할머님)’라고 할 수도 있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대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지난여름 큰아들을 장가들여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는 어느 젊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거리감 없이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한 끝에 며느리에게 자신을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일렀다. 결혼 전부터 아들과 몇 년을 사귀면서 자기 집 드나들 듯하여 이미 한 식구처럼 가까워진 데에다 아들 형제를 두고 딸이 없었던 터여서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 주리라는 마음에서였다. 처음에는 ‘엄마’ 소리를 쑥스러워하던 며느리도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다른



친구들이 ‘너희 시어머니는 신식이어서 좋겠다.’는 한 마디에 마냥 즐겁기만 했다.

그런데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가 오신 어느 날 손자며느리가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향하여 “엄마, 사과를 제가 깎을까요?”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었다. 이 젊은 시어머니가 호된 꾸중을 들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다.

며느리에 대하여 호의적인 위의 예와는 반대로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에 감정 문제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 장남과 3년 전 결혼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어느 주부의 말이다. 친구들과 만나면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시어머니의 기분을 알 수 있다.’고 웃곤 한다. 평상시는 ‘우리 새아가’, ‘우리 며느리’ 하다가도 무엇인가 불만이 있는 듯싶을 때에는 대놓고 부를 때에는 어김없이 ‘애야’니, ‘야’니 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남에게 말할 때에는 ‘개’니 ‘재’니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우울해진다고 한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르는 말은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애야’이다. 이 가운데 ‘애야’는 어조에 따라서는 며느리가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써야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며느리를 ‘새댁’, ‘젊은이’라고도 하는 모양이나 이는 보편성이 없다. 또 흔히 며느리를 ‘큰애야’, ‘작은애야’ 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자신의 친자녀를 부르는 경우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역시 표준 화법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며느리를 가리키는 말은 해당 며느리에게는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너’이다. 부모와 배우자에게 며느리를 이르는 말은 ‘며늘애’, ‘새아가’와 아이의 이름을 넣은 ‘(○○) 어미(어멈)’, 아들의 이름을 넣은 ‘○○댁’, ‘○○ 처’로 정하였다. ‘며느리’라고 하면 남의 며느리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모나 배우자 앞에서 낮추어 말하는 편이 자연스러우므로 ‘며늘애’로 한 것이다. ‘○○댁’이라고 하면 ‘청주댁’, ‘광주댁’ 등 여인들의 친정 동네가 떠오르지만 ‘철수댁’, ‘영수댁’ 등 이름과 같이 쓰면 혼란도 없고 또 지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 것이다. 며느리의 친부모인 사돈에게 며느리를 말할 때에는 ‘며늘애’, ‘○○ 어미’라고 한다.



4. 처부모와 사위 사이

처부모

호칭어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어머님
지 칭 어	장인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어머님
	장모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님, 어머님
	아내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 장모님, 어머님
	남편에게	아버님, 어머님
	부모, 동기에게	장인(어른), ○○ 외할아버지, 장모(님), ○○ 외할머님

결혼 1년을 넘긴 김명희 씨는 남편인 이영신 씨에 대하여 불만이 많고 이따금씩은 이 일로 다투기까지 한다. 이영신 씨는 결혼 전부터 오래 사귀던 친구이고 자주 김명희 씨 집에 놀러 왔기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스스럼없이 대해 주었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친정어머니에게 꼬박꼬박 ‘장모’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도 어머니가 안 계시는 곳에서가 아니고 계시는 데에서 이렇게 칭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김명희 씨로서는 친정 부모 면전에서 ‘장인어른’, ‘장모님’ 하고 부르는 것은 딸을 둔 자신의 부모를 홀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영신 씨의 말은 다르다. 결혼까지 했는데 옛날처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좀 점잖게 행동하려고 일부러 배워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다.

사위

호칭어		○ 서방, ○○ 아비(아범), 여보게
지 칭 어	사위에게	○ 서방, 자네
	딸에게	○ 서방
	장인, 장모가 대화하면서	○ 서방, ○○ 아비(아범)
	사위의 부모에게	○ 서방
	아들에게	○ 서방, 매부, 매형, 자형



김윤배 씨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사람들이 처부모를 장인어른이나 장모님보다는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젊은 사위들을 못마땅해 한다. 따뜻함과 친근함은 혈연관계가 갖는 속성이므로 남남 사이인 이들을 피를 나누고 태를 가른 혈족처럼 혈연적 유착 관계로 이끌어 가려는 부름말, 가리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친부모가 계시는 데에서는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가족, 친인척 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가깝게 지내려는 태도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것이다.

사위의 처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처부모를 부를 때 친부모처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의 집 며느리가 되면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어도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위가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 널리 퍼진 생각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경우에 친부모처럼 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 같다. 그리하여 표준 화법에서 처부모를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님’을 붙여 ‘아버님’, ‘어머님’으로도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사람은 ‘빙장 어른’, ‘빙모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나 원래 이는 다른 사람의 처부모를 높여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자신의 처부모에게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처부모를 당사자에게 직접 부를 때이나 처가 쪽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친부모나 동기, 친척, 남에게는 ‘장인 (어른)’, ‘장모(님)’, ‘○○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라고 한다. 이때에는 ‘아버님’, ‘어머님’을 쓸 수가 없다. 특히 친부모가 처부모보다 나이가 많을 때에는 처부모에게 ‘-님’을 빼고 ‘장인’, ‘장모’라고 부르는 것이 좋으며 친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친부모에게는 존경한다는 생각보다는 친밀감이 앞서므로 ‘-님’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친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 하고 부른다면 자칫하면 친부모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다.



사위를 부르는 말도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사위를 점잖게 부르는 ‘○ 서방’이라는 말 대신 딸을 부르듯 ‘그 애’, ‘○○야(아)’ 등 비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직은 장모보다는 장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족 안에서 권력 또는 권위 구도를 보여 주는 것 같아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세대가 올라갈수록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전통적으로 사위에 대한 말씨가 ‘해라’가 아니라 ‘하계’였던 것을 생각할 때 자기 딸을 대하듯 반말을 한다든가, ‘그 애’, ‘○○’ 등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북부 지방에서는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중부와 남부 지방에서는 대체로 ‘○ 서방’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대체로 장모는 사위를 어려워하여 바로 부르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모가 사위의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위는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어렵고도 귀한 손님이 아닌 셈이다. 사위는 단순히 딸의 남편으로서 처부모에게는 자신의 자식과 비슷한 정도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양 있는 처부모는 아직도 사위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언어 현실은 대체로 사위를 ‘○ 서방’, ‘여보게’ 하고 부르므로 이를 사위를 부르는 표준 화법으로 정하였다. 당사자인 사위에게 이를 때에는 ‘○ 서방’, ‘자네’라고 하며 해당하는 딸이나 다른 동기, 친척에게도 ‘○ 서방’이라고 말하면 큰 잘못은 없다. 아들이나 다른 딸에게는 ‘○ 서방’과 함께 그들이 부르는 대로 ‘매부’, ‘형부’라고 할 수 있다. 외손자, 외손녀에게 사위를 이룰 때에는 아이들에게 기대어 ‘아버지’, ‘아빠’라고 해도 좋다. 타인에게는 ‘사위’, ‘○ 서방’이라고 한다.

참고로 말하면 평양에서는 장인, 장모를 ‘가시아버지’, ‘가시어머니’라고도 하며 사위는 ‘싸우’라고 부른다.

5.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이 골고루 있는 회사원 최아무개 씨는 결혼 전까지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누나, 동생을 부르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동기가 결혼하여 상황이 아주 복잡하여졌다. 형수를 부를



때에도 큰형수는 ‘형수님’이라고 하고, 둘째 형수는 ‘형수씨’라고 하며, 셋째 형수에 대해서는 그냥 ‘형수’라고 한다. 누나의 남편은 ‘자형’이고 손아래 여동생의 남편은 ‘매제’ 또는 ‘김 서방’이라고 부른다.

도봉구에 사는 이아무개 씨는 누나의 남편을 ‘매부’, ‘매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여자 형제를 한자로 표기할 때 손위가 ‘자(姉)’이고 손아래가 ‘매(妹)’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명확하다. 그런데 누나와 여동생을 동시에 가리키는 ‘누이’라는 말이 있어서 여동생의 남편은 물론 누나의 남편까지도 ‘매부’로 부르게 된 것 같다는 것이 이 씨의 생각이다. 어쨌든 의미상으로 볼 때 손아래를 가리키는 ‘매’와 손위를 가리키는 ‘형’은 결합할 수가 없으므로 ‘매형(妹兄)’은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누나의 남편은 당연히 ‘자형(姉兄)’이 되고 그 반대일 경우는 ‘매제(妹弟)’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남자 동기(남자 기준)

		형	형의 아내
호칭어		형, 형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님
지 칭 어	당사자에게	형, 형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형수님
	부모에게	형	아주머니, 형수
	동기, 처가 쪽 사람에게	형, 형님	아주머니(님), 형수(님)
	자녀에게	큰아버지(님)	큰어머니(님)
	타인에게	형, 형님	형수(님)
		남동생	남동생의 아내
호칭어		○○[이름], 아우, 동생	제수씨, 계수씨
지 칭 어	부모, 동기, 타인에게	○○[이름], 아우, 동생	제수(씨), 계수씨
	처가 쪽 사람에게	동생, 아우	제수(씨), 계수(씨)
	자녀에게	삼촌, 작은아버지(님)	작은어머니(님), 숙모(님)



먼저 남성의 처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준 화법에서는 형수의 경우는 부르거나 당사자에게 말할 때에는 ‘아주머님’, ‘형수님’이라 하고 부모에게 이를 때에는 ‘-님’을 빼고 ‘아주머니’, ‘형수’라고 한다. 그러나 첫째, 둘째의 차이에 따라 ‘-님’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지는 않는다. 남동생의 아내는 직접 부를 때에는 ‘제수씨’, ‘계수씨’라 하고 부모나 동기에게는 ‘제수(씨)’, ‘계수(씨)’라고 한다. 또 표준 화법에서는 누나의 남편을 ‘매부’, ‘매형’, ‘자형’으로 두루 부르며 여동생의 남편은 ‘매부’, ‘○ 서방’이라 한다. 이 가운데서 누나의 남편을 ‘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의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 말도 지방에서는 물론 서울에서도 세력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형’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다. 어느 지방에서는 누나의 남편을 ‘매형’, ‘자형’, 여동생의 남편을 ‘매제’라고 이른다. 누나의 남편이나 여동생의 남편을 뭉뚱그려 ‘매부’로 부르는 것보다는 위아래를 가려 부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표준 화법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매제’라는 말은 ‘매형’과 상대가 되는 말이어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표준 화법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이제 여성의 처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오빠의 아내는 직접 부르거나 당사자에게 이를 때에는 ‘언니’, ‘새언니’라고 하고 부모나 동기에게는 ‘언니’, ‘새언니’ 외에 ‘올케’라고도 한다. 시댁 쪽 사람이나 남에게는 ‘새언니’, ‘올케’라고 한다. 남동생의 아내는 ‘올케’로 부르고 가리킨다. 언니의 남편을 직접 부르거나 당사자에게 가리킬 때에는 ‘형부’라고 하고 친정 쪽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형부’, 특히 남자 형제에게 말할 때에는 ‘매부’라고 한다. 여동생의 남편을 직접 부르거나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에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 서방님’, 나이가 적으면 ‘○ 서방’이라고 한다. 또 부모에게 이를 때에는 ‘○ 서방’, 동기에게 이를 때에는 ‘○ 서방’ 또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형부’, ‘매부’라고 한다. 참고로 덧붙이면 지금 평양에서는 ‘매형’, ‘자형’이라는 말은 쓰이지 않고 ‘매부’만이 쓰인다. 또 평양에서는 언니의 남편은 ‘형부’가 아닌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길을 묻기 위해 ‘아저씨’ 하고 불러 세우면 “체네(평양에서는 처녀를 이렇게 부름)가 언제 나한테 언니 줬어?” 하고 농을 걸어 온다는 것이다. 남쪽으로 귀순한 어느 처녀(아가씨)의 이야기이다.



(2) 여자 동기(남자 기준)

		누나	누나의 남편
호칭어		누나, 누님	매부, 매형, 자형
지 칭 어	부모에게	누나	매부, 매형, 자형
	동기 및 처가 쪽 사람, 타인에게	누나, 누님	매부, 매형, 자형
	자녀에게	고모(님)	고모부(님)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호칭어		○○[이름], 동생	매부, ○ 서방
지 칭 어	부모에게	○○[이름], 동생	매부, ○ 서방
	동기에게	○○[이름], 동생	매부, ○ 서방, 형부
	처가 쪽 사람에게	누이동생	매부
	자녀에게	고모(님)	고모부(님)
	타인에게	누이동생	매부, ○ 서방

6.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결혼 3년째인 주부 이 씨는 결혼 전부터 알던 남편의 남동생에게는 ‘○○ 씨’라고 부담 없이 이름을 부르지만 나이가 한참 어린 손아래 시누이에게는 ‘아가씨’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시부모 앞에서는 더 심각해진다. ‘○○ 씨’를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그 ‘○○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제 ‘○○ 씨’의 신부 호칭까지 새로운 걱정거리이다.



(1) 남편의 아우

호칭어		미혼자	도련님
		기혼자	서방님
지 칭 어	시댁 쪽 사람에게	미혼자	도련님
		기혼자	서방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동생, ○○ 작은아버지, ○○ 삼촌
	자녀에게	미혼자	삼촌
		기혼자	작은아버지, 작은아버님
타인에게		시동생, 도련님, 서방님, ○○ 작은아버지, ○○ 삼촌	

(2) 시누이 남편

		남편 누나의 남편	남편 누이동생의 남편
호칭어		아주버님, 서방님	서방님
지 칭 어	자녀에게	고모부(님)	고모부(님)
	자녀 외의 사람들에게	(지역 이름) 아주버님, (지역 이름, 성) 서방님, ○○ 고모부(님)	(지역 이름, 성) 서방님, ○○ 고모부(님)

42세의 주부 박 씨는 나이 어린 윗동서와의 호칭 문제가 늘 마음에 걸린다. 윗동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적다. 그 동안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존댓말로 형님 대접을 했고, 윗동서는 ‘자네’라는 명칭과 함께 ‘하계’를 한다. 그 간 집안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참았으나 이제 나이 40이 넘으니 대우를 받고 싶다.

오늘은 시아버지의 예순 세 번째 생신날이어서 친족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주부인 김 씨는 음식 준비에 정신없이 바빴으나 남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안방을 차지하고 왈차지껄 시끄러웠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으로부터 집으로 급히 오다 접촉 사고를 내었으니 지금 곧 골목길 입구의 제과점으로 10만원만 가져다 달라는 전화가 왔다. 김 씨는 평소에 미혼의 시동생을 ‘도련님’으로 불러 왔었는데 이 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



이 미워져서 ‘삼촌’이 10만원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사이 남편은 자신의 삼촌의 일로 알고 10만원을 가지고 시숙모님과 함께 제과점으로 나갔다.

같은 날 같은 집이라고 가정하자. 김 씨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저…… XX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손위 시누이 남편에게서 온 것이었다. 시누이 남편과 통화를 해 본 적이 없는 김 씨는 당황해서 얼른 “○○ 엄만데요…… 형님 바꿔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때 예의 그 시동생이 “어느 형님 찾는 거예요?” 하고 물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아니 아주버님이나 ○○ 아빠 말구요…… 고모 말이에요.” 하였다. 조금 후에 “이 녀석아, 날 찾는 전화가 아니잖나. 네 매형이 누날 바꾸라지 았아.” 하는 시고모의 투덜거림에 이어 “형수님이 그랬는데요. 고모 전화라고요.”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우선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어는 ‘아주버님’으로 정해졌다. 남편의 형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달리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혼인에 관계없이 ‘아주버님’으로 부르는 전통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친정 쪽 사람에게 남편의 형을 이룰 때에는 ‘시아주버니’와 자녀에게 기댄 표현인 ‘○○ 큰아버지’를 쓴다.

남편의 아우, 즉 시동생이 미혼일 때에는 ‘도련님’을 호칭어로 한다. 자녀에 기댄 명칭인 ‘삼촌’은 쓰지 말아야 한다. 남편의 아우가 결혼을 했을 때에는 ‘서방님’으로 부른다. 시댁 쪽 사람에게 남편의 아우를 가리킬 때에도 미혼자는 ‘도련님’, 기혼자는 ‘서방님’이다. 전통적인 말이어서 특히 새로운 세대들에게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남편의 누나에 대한 부름말은 ‘형님’이다. 남편의 누이동생에 대한 호칭어는 ‘아가씨’, ‘아기씨’이다. 남편의 누이동생이 혼인을 하여도 부르는 말에는 변함이 없다. 말하자면 40살 된 손아래 시누이도 ‘아가씨’로 부른다는 것이다. 시누이를 아이들에게 기대어 ‘고모’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흔히 ‘아가씨’가 남의 처녀를 부르는 말이어서 가족을 부르는 말로 알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써 왔고 지금도 쓰고 있는 말이어서 채택된 것이다.



남편 형의 아내는 ‘형님’이 바른 부름말이다. 전통적으로 동서끼리는 남편의 나이 순서에 따라 차례가 정해져서 윗동서의 나이가 적더라도 ‘형님’으로 부르고 존댓말을 써 왔다. 윗동서에게 예절을 갖추는 것은 우선 남편의 형을 대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편 아우의 아내는 ‘동서’로 부른다. 물론 아랫동서가 나이가 많을 때에는 ‘동서’라고 이르고 존댓말을 쓰는 것이 전통적 예법에 맞다.

부르는 말과 가리키는 말을 정하는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시누이 남편에 대한 것이었다. 이 문제로 전문가들이 만나 두 번이나 회의를 하였으나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다가 세 번째에서야 겨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편 누나의 남편에 대한 부름말은 ‘아주버님’과 ‘서방님’을 표준으로 정했다. ‘아주버님’은 현재 여러 지방에서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쓰이고 있고 ‘서방님’도 서울 지방에서 ‘○○동 서방님’, ‘○○동 서방님’ 등으로 자주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 누이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서방님’이다. ‘아주버님’은 순위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이고 ‘서방님’은 순위, 손아래 시누이 남편에게 두루 쓰이는 말이라는 의견들을 존중한 것이다. 참고로 말하면 지금 평양에서는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아기씨’라는 말이 쓰이지 않고 아이들에 기대어 ‘삼촌’, ‘작은아버지’, ‘고모’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 말들이 낡은 시대의 잘못된 관습이거나 자본주의 사회의 그릇된 말이라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7.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결혼 5년째인 김만용 씨는 아내보다 7살 위이고 아내의 오빠, 말하자면 순위 처남인 이범혁 씨보다는 4살 위이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후에 처가에 들렀을 때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순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이범혁 씨’라고 불렀는데 옆에 있던 장인어른이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면서 ‘형님’으로 부르도록 엄명(?)을 내렸다. 김만용 씨는 억울했지만 할 수 없이 그 후 순위 처남을 줄곧 형님으로 불러 왔다.



(1) 아내의 남자 동기

		아내의 오빠	아내의 남동생	
호칭어		형님, 처남[연하]	처남, ○○[이름]	
지 칭 어	당사자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자네	
	아내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이름]	
	부모, 동기, 타인에게	처남, ○○ 외삼촌	처남, ○○ 외삼촌	
	장인, 장모에게	형님, 처남[연하]	처남	
	당 사 자 의	손위 동기, 그 배우자	형님, 처남[연하]	처남, ○○[이름]
		손아래 사람에게	[그들이 부르는 대로]	[그들이 부르는 대로]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님)	외삼촌, 외숙부(님)	

(2) 아내의 여자 동기

		아내의 언니	아내의 여동생	
호칭어		처형	처제	
지 칭 어	당사자에게	처형	처제	
	아내에게	처형	처제	
	부모, 동기, 타인에게	처형, ○○ 이모	처제, ○○ 이모	
	장인, 장모에게	처형	처제	
	당 사 자 의	손위 동기, 그 배우자	처형	처제
		손아래 사람에게	[그들이 부르는 대로]	[그들이 부르는 대로]
	자녀에게	이모(님)	이모	



그러던 어느 날 김만용 씨와 이범혁 씨가 동석한 자리에 김만용 씨의 두 살 아래인 남동생이 합석을 하게 되었다. 김만용 씨 동생과 이범혁 씨가 첫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김만용 씨의 동생이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임을 이범혁 씨가 알아차렸다.

“저, 혹시 대한고등학교 출신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보니까, 너……”

“네, 이범혁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너를 형님이라고 부르다니……”

그들은 크게 한바탕 유쾌하게 웃었다.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형님’, ‘처남’으로 정하였다. 옛날부터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처남’이었고 처가 쪽의 차례에 관계없이 남자들의 나이로 아래위가 정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아내의 오빠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 쪽의 차례에 따라 부르는 말이 정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지나친 남성 중심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처남과 매부 사이가 매우 가까워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여 순위 처남을 ‘형님’이라 부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순위 처남이라도 나이가 적을 때에는 ‘처남’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내의 남동생은 전통을 따라 ‘처남’이라고 부르고 나이가 어릴 때에는 이름을 부를 수도 있다. 본인에게 가리킬 때에는 ‘처남’ 또는 ‘자네’라고 한다.

아내의 언니를 부르는 말은 ‘처형’으로 정하였다. 부모, 동기, 타인에게 말할 때에는 ‘처형’, ‘○○ 이모’를 쓰고 자녀에게는 ‘이모(님)’를, 아내 쪽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처형’이라고 한다. 아내의 여동생을 부를 때에나 아내 쪽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처제’라고 하고 부모, 동기, 남에게 말할 때에는 ‘처제’ 또는 ‘○○ 이모’라고 한다. 처형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형님’, ‘동서’로 결정하였다. 아내 오빠의 경우와 한가지로 순위 동서에게도 ‘동서’라고 해야



지 ‘형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역시 현실을 존중해서 ‘형님’이라고 하되, 나이가 적으면 ‘동서’라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내의 동기들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형부’, ‘매부’ 등을 적절히 쓸 수 있다. 아내의 여동생 곧 처제의 남편은 전통적으로 불러 오는 바대로 ‘동서’ 또는 ‘○서방’을 부르는 말로 결정하였다. 가리키는 말은 손위 동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가 쪽 사람들에게는 ‘동서’ 또는 ‘○서방’으로 정하였다.

손위 처남의 아내는 ‘아주머니’, 손아래 처남의 아내는 ‘처남의 맥’이라고 부른다. ‘아주머니’가 숙모를 가리키고 또 남에게도 ‘아주머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으며, ‘처남의 맥’ 역시 ‘청주맥’, ‘안성맥’ 등에서 보는 것처럼 낮추어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없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손위 처남의 아내를 직접 부르지 않고 가리킬 때에는 손아래의 경우처럼 ‘처남의 맥’이라고 한다. 또 손아래위를 막론하고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숙모(님)’라 하고 부모, 동기, 남들에게는 ‘처남의 맥’, ‘○○ 외숙모’라고 이른다.

8. 숙질 사이

부부 교사로서 결혼한 지 5년 된 이영란 씨는 종갓집 만며느리로서 결혼 후 전혀 엉뚱한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다. 시아버지의 오 형제 가운데 밑으로 삼 형제가 남편과 나이가 같거나 두세 살씩 밑인데 예우에서 작은아버지들은 예외 없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남편보다 네다섯 살씩 적은 작은어머니들은 남편에게 거리낌 없이 반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결혼 날을 잡은 막내 삼촌이 오늘은 호텔 커피숍에서 신부 측 가족들과 만나는 날이다. 그런데 신부감은 스물네 살이라고 하니 자신보다 아홉 살이 적은 작은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일이 끔찍할 수밖에 없었다.

영란 씨가 남편과 함께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앉자 그 때까지 다 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던 맞은편의 신부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머. 선생님. 선생님, 이영란 선생님이시죠? 저 모르시겠어요? 나미예요. 김나미!”

아찔한 현기를 느끼며 영란 씨는 눈을 감아 버렸다. 자신의 교사 초년 시절에 담임을 했던 중학교 제자가 지엄하신 작은어머니로 다가와 눈앞을 깜깜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조카와 그 배우자

		남자 조카		조카의 아내	여자 조카	조카의 남편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미성년:○○[이름] 성년: 조카, ○○ 아버지, ○○ 아범, 조카님[시가 쪽의 나이 많은 조카]		아가, 새아가, ○○ 어머니, ○○ 어멈, 질부(姪婦), 생질부(甥姪婦)	미성년:○○[이름] 성년: 조카, ○○ 어머니, ○○ 어멈, 조카님[시가 쪽의 나이 많은 조카]	○ 서방, ○○ 아버지, ○○ 아범
지칭어	당사자 외의 사람들에게	친조카를	조카	조카며느리, 질부(姪婦)	조카딸, 질녀(姪女)	조카사위, 질서(姪婿)
		누이의 자녀를	생질(甥姪)	생질부(甥姪婦)	생질녀(甥姪女)	생질서(甥姪婿)

회사원 이수호 씨는 조카를 보낼 테니까 책을 몇 권 챙겨 보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친구에게서 받았다. 조카가 몇 살이냐고 했더니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 정도면 심부름을 잘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런데 씩씩한 대학생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꽃 같은 처녀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조카가 아니고 질녀로구나 생각하고 친구의 성이 박씨니까 박씨겠거니 했는데 그것이 아니란다. 결국 알고 보니까 누이의 딸, 말하자면 생질녀였던 것이다. 수호 씨는 전화로 그 친구를 나무랄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아, 누나의 딸을 왜 조카라고 해서 헛갈리게 하나?”

친구도 한 마디 했다.



“번거로운 세상 더 번거롭게 만드네.”

아버지의 형은 말로 할 때에는 모두 ‘큰아버지’이며 ‘-님’을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편지에서는 ‘-님’을 붙일 수 있다. 조카며느리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 하듯이 ‘-님’을 붙인다. 아버지의 만형의 경우는 특히 ‘백부’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부르는 말로는 마땅하지 않고 남에게 가리킬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아버지의 형을 자녀에게 기대어 말할 때에는 ‘큰할아버지’, ‘종조할아버지(님)’, ‘종조부(님)’ 또는 지역 이름을 넣어 ‘○○동 큰할아버지(님)’ 등으로 부르거나 가리킨다. 말하는 사람이 여자일 경우에는 친정 큰아버지가 자녀에게는 외할아버지의 형이 되므로 ‘큰외할아버지’, ‘외종조할아버지(님)’, ‘외종조부(님)’, ‘○○동 큰외할아버지(님)’ 등으로 한다. 큰아버지의 자녀에게 가리킬 때에는 자녀가 말하는 사람보다 어린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아빠) 계시냐?’로 말하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큰아버지 계십니까?’로 한다. 큰어머니의 경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맞추어 말하면 된다.

아버지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남동생이 결혼하기 전에는 ‘삼촌’, ‘아저씨’이고 결혼을 하면 ‘작은아버지’라고 한다. 나이가 뒤바뀐 숙질간에는 조카가 아저씨보다 나이가 다섯 살 이상이면, 서로 존대하고 다섯 살 미만이면 항렬을 따라서 조카가 아저씨에게 존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다섯 살이 안 되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에 대하여는 경어를 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만조카인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다른 조카들보다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언어 예절이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무거운 책임을 가졌으므로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여자 동기에 대한 호칭어는 ‘고모’, ‘아주머니’이다. 고모를 자신의 자녀에게 말할 때에는 ‘대고모’, ‘왕고모’, ‘고모할머니’라고 한다. 어머니의 여자 동기를 부르는 말은 ‘이모’, ‘아주머니’인데 자신의 자녀에게 말할 때에는 ‘이모할머니’라고 한다. 고모할머니, 이모할머니는 고모, 이모 대신 지역 이름을 넣어 ‘○○동 할머니’, ‘○○동 할머니’처럼 쓸 수 있다. 고모부, 이모



부는 자녀에 기대어 말할 때에 고모, 이모에 맞추어 ‘고모할아버지’, ‘이모할아버지’, ‘○○동 할아버지’, ‘○○동 할아버지’라고 한다. 말하는 사람이 여자일 경우에는 자신의 고모를 자녀에게 가리키는 특별한 말이 없다. 이때에는 지역 이름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의 남동생은 ‘외삼촌’, ‘아저씨’이고 그 아내는 ‘외숙모’, ‘아주머니’이다.

시댁 쪽의 나이 많은 남자 조카나 여자 조카는 ‘-님’을 붙여 ‘조카님’이라 한다. 친조카는 ‘조카’ 또는 ‘조카딸’이라 하고 조카며느리는 ‘조카며느리’ 또는 ‘질부(姪婦)’라 하며 조카사위는 ‘조카사위’ 또는 ‘질서(姪婿)’라 한다. 누이의 자녀는 부를 때에는 친조카의 경우와 같으나 가리킬 때에는 ‘생질(甥姪)’, ‘생질녀(甥姪女)’, 그 배우자는 ‘생질부’, ‘생질서’라 한다. 처의 조카는 아내가 부르는 대로 부르고 남에게 가리킬 때에는 앞에 ‘처-’를 덧붙여 ‘처조카’, ‘처조카사위’ 등으로 말한다.

9. 사돈 사이

(1) 위 향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 동기 배우자(형수, 올케 등)의 부모
호칭어 및 당사자에게 지칭	사장 어른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칭	사장 어른, [관계말]

우이동에 사는 조미숙 씨는 며칠 후에 며느리를 본다고 한다. 멀고도 가까운 사이가 사돈 사이라는데 마땅한 호칭어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다. 며느리 될 애의 어머니에게는 ‘사부인’이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호칭이 생각나지 않는다. 또, 며느리의 형제들에게는 며느리에 빗대어 “큰언니 수고하십니다.”, “시누이 결혼 준비에 큰올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고 말하지만 개운하지가 않은 것이다.



(2) 아래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동기 및 조카, 동기 배우자 (형수, 올케 등)의 조카	
호칭어 및 사자에게 지칭	남자	여자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칭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관계말]	사돈, 사돈처녀, 사돈아가씨, [관계말]

잠실에 사는 문채옥 씨는 사위의 부모가 안 계시다. 사위의 누님이 있는데 그이는 자신에게 ‘사돈’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맞는가? 그럼 그 자신은 사위의 누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상계동에 사는 윤정태 씨는 며느리를 보았다. 며느리의 남동생을 ‘사제’, ‘사돈총각’, ‘여보게’ 중 어느 것으로 호칭하는 게 좋은가. 딸의 시누이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 또, 딸의 시할아버지도 ‘사돈어른’으로 부르는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

대학생인 이상규 씨는 누나의 시고모 댁에서 중학생을 가르친다. 누나의 시고모를 누나처럼 ‘고모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주머님’ 하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댁에서는 누나처럼 ‘고모님’ 하고 부를 때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첫째, 같은 항렬의 사돈 사이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부모를 호칭, 지칭하는 말 가운데에 발사돈이 발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 ‘사돈’으로 정했다. 상대방이 나이가 위일 때에는 ‘사돈어른’, 아래일 때에는 ‘사돈’으로 부르도록 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친밀한 정도에 따라 적절히 쓰도록 한 것이다. 발사돈이 안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부인’으로 정했다. 안사돈이 나이가 적어도 어려운 상대이므로 ‘사돈댁’의 존칭인 ‘사부인’으로 한 것이다. 안사돈이 안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부인’, ‘사돈’으로 정했다. 나이가 아래이고 친밀한 사이이면 ‘사돈’, 나이가 위이면 ‘사부인’으로 부르도록 한 것이다. 안사돈이 발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으로 정했다. 나이 차이가 많거나 친밀한 경우에는 ‘발사돈’을 쓸



수도 있다.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삼촌 항렬인 사람을 부르는 호칭어도 부모의 호칭어와 같다.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동기에 대한 호칭어, 지칭어는 말하는 사람의 성별에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구별된다. 남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이고 여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처녀’, ‘사돈아가씨’이다. 이들 같은 항렬의 사람인 당사자에 대한 지칭어는 대체로 호칭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호칭어와 함께 경우에 따라 제삼자에 기댄 표현을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위 항렬의 경우이다.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는 부르는 사람과 대상의 성별에 관계없이 ‘사장 어른’을 호칭어로 정했다. 전통적으로 ‘사돈’은 같은 항렬 이하를, ‘사장’은 위 항렬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사장 어른’을 택한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안 사장 어른’을 쓸 수도 있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인 ‘사장 어른’을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장 어른’과 ‘○○ 시(처)조부모’와 같은 관계말을 쓴다.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의 부모도 남녀 구분 없이 ‘사장 어른’으로 부르도록 했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사장 어른’, 그 밖의 사람에게는 호칭어와 조카의 이름에 기댄 ‘○○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와 같은 관계말을 쓰도록 했다.

셋째, 아래 항렬의 경우이다.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동기와 조카,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조카와 같이 아래 항렬은 말하는 사람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여자인가 남자인가에 따라 호칭어와 지칭어가 달라진다. 아래 항렬의 남자를 부르는 말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으로 적절히 부르도록 했다. 상대방의 항렬이 낮더라도 나이가 더 많거나 이름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돈’으로 예우를 하는 것이 전통이다.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호칭어와 손자, 손녀에 기댄 ‘○○ (외, 고종, 이종) 사촌 형’ 등과 같은 관계말을 적절히 쓰도록 했다. 아래 항렬의 여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처녀’, ‘사돈아가씨’로 했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부르도록 한 것이다. 지칭어는 호칭어를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호칭어와 손자, 손녀에 기



덴 ‘○○ (외, 고종, 이종) 사촌 언니’ 등과 같은 관계말을 쓰도록 했다.

우리말처럼 호칭어와 지칭어가 발달한 말도 그 유래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데 그 다양하게 발달한 호칭어와 지칭어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는 가문에 따라 다르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전에는 기성세대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를 엄격히 교육하였고 자녀들은 가정뿐 아니라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예전의 그 엄격히 지켜지던 호칭어, 지칭어를 아는 이가 드물다. 또, 젊은이들은 이들을 배운 일이 없다. 새로운 세대들의 언어 예절이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대체로 신세대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실생활에서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흔히 잘못 쓰는 말들

여 규 병*

1. 뜻이 헛갈리는 말들

㉠ ‘초토’가 잘못 쓰인 것은?

- (1) 2005년 4월 발생한 산불로 낙산사가 불타는 등 강원도 양양군 일대가 초토화되었다.
- (2) 미국의 공격으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초토화되었다.
- (3)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재즈의 도시 뉴올리언스를 초토화하였다.

☞ ‘초(焦)’는 ‘그을릴 초’이다. 따라서 ‘초토(焦土)’는 ‘그을린 땅’이라는 뜻이다. 불이 나서 땅이 그을린 상태이거나 불 때문에 황폐해지고 못 쓰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초토’이다. 뉴올리언스처럼 비와 물과 바람으로 엉망진창이 된 곳을 ‘초토’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초토’는 산불이 난 양양 지역이나 폭격 맞은 바그다드를 표현할 때에 적절한 말이다. 허리케인으로 물에 잠긴 뉴올리언스나 2004년 12월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피해를 본 남아시아처럼 불이 아닌 비바람 해일 같은 자연현상으로 ‘매우 어지럽고 못 쓰게 된 모양’은 ‘쑥대밭’ 정도로 표현하면 된다.

㉡ ‘버금가다’가 적절하게 쓰인 것은?

- (1) (인천을) 중국 푸둥 지구에 버금가는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2004년 8월 건설교통부 ‘신수도권 및 혁신도시 발전방안’)
- (2) 아르빌은 이라크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독립국가에 버금

* 동아일보 어문연구팀장



가는 자치를 누려 왔다.

(3)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졌다.

☞ ‘가장 뛰어난 것, 첫째가는 것’을 ‘ 으뜸’이라고 하며, ‘ 으뜸의 바로 아래’를 버금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으뜸은 첫째이며, 버금은 둘째이다. 버금이 홀로 쓰일 때는 잘못 쓰이는 경우가 드문데 ‘버금가다’라는 형태로 쓰이면 ‘둘째가다’라는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동등(同等)’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1)에서는 한국 공무원이 수도권 발전 방안을 세우면서 ‘중국의 푸둥에 둘째가는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능가하는’이나 ‘필적하는’을 써야 한다. (2)에서도 ‘둘째가는’이라는 의미의 ‘버금가다’보다는 ‘비슷한’ ‘맞먹는’ 같은 낱말을 쓰는 것이 낫다.

㉠ ‘갑부’가 바르게 쓰인 것은?

- (1)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세계의 갑부다.
- (2)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세계 갑부의 대열에 합류했다.
- (3) 이진희, 신격호 회장 세계 갑부 순위 후퇴.

☞ ‘갑부(甲富)’란 ‘첫째가는 부자’이다. ‘갑부’의 ‘갑’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식으로 사물의 순서를 매길 때 쓰는 ‘첫째’를 이르는 말이다. 첫째가는 부자가 여러 명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2) ‘갑부의 대열’, (3) ‘갑부 순위’라는 말은 옳지 않다. ‘부자(부호) 대열’, ‘부자 순위’라고 하면 된다. 다만, 범위를 좁혀 ‘한국의 갑부’, ‘부산 갑부’처럼 할 수 있다.

㉠ ‘자문’이 바르게 쓰인 것은?

- (1) 그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 (2) 시장은 그 일에 정통한 담당자에게 자문했다.
- (3)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에게 그 일에 관해 자세히 자문했다.
- (4) 그 일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했다.

☞ ‘자문(諮問)’은 국어사전에서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



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낱말이다. 특히 '자(諮)'는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문의함'이라는 뜻을 지닌 한자이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뜻한다.

(1)에서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다'라고 하면 '질문해 달라고 하다'와 마찬가지로 뜻이 되고 만다. 이땐 '문의하다', '도움을 구하다' 정도로 표현하면 된다.

(3)에서는 아랫사람인 수석비서관이 윗사람인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는 없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물음에 대응하는 경우라면 '자문에 응하다', '조언하다', '물음에 답하다' 정도로 표현하면 된다.

(4)도 '물음을 받아'라는 뜻이 되므로 옳지 않다. 이 역시 '조언을 듣다', '도움을 받다'라고 하면 된다.

다만, 어떤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속해 있으면서 그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자문을 받아' 의견을 밝히거나 조언을 하는 기구나 변호사 등은 '자문 기구', '자문 변호사'처럼 쓸 수 있다.

㉠ '아는 척하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그 분야에는 문외한이면서도 아는 척한다.
- (2) 그가 나를 보더니 아는 척했다.
- (3) 쥐빨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다.

☞ '아는 척하다'는 '모르는 것을 아는 듯이 거짓으로 꾸미다'의 뜻이다.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듯한 표정을 하다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라는 뜻으로는 '알은척하다'를 써야 한다. 따라서 (2)는 '그가 나를 보더니 알은척했다'라고 해야 한다. ㉠은 '그가 나를 알은척했다. 그 두 사람은 서로 알은척도 안 한다. 친구에게 알은척하지도 않고 돌아누웠다. 다음에 만나 봐라, 알은척이나 하나'처럼, ㉡은 '내 처지를 알은척하는 표정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위 현장을 보고 알은척했다. 남의 일에 함부로 알은척하지 마라'처럼 쓰인다.

'아는 척하다'와 '알은척하다'의 '척'은 '체'로 바뀌 '아는 체하다', '알은체하



다'로 할 수 있다. 다만, '아는 척하다'는 구(句)이므로 띄어 쓰지만 '알은척하다'는 한 낱말이므로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 '회복'이 잘못 쓰인 것은?

- (1) 그가 건강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2) 피로 회복을 위해 '박카스'를 마신다.
- (3)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 '회복(回復)'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뜻이다. '건강 회복'은 '건강을 되찾음'을, '신뢰 회복'은 '신뢰를 다시 쌓음'을 뜻한다. 따라서 '피로 회복'이라고 하면 '피로한 상태로 돌이킴'이라는 뜻이 되고 만다. (2)는 '원기 회복'으로 하거나 '피로 해소'라고 해야 이치에 맞게 된다.

㉠ '배'가 잘못 쓰인 것은?

- (1) 두께는 두 배로 늘어나고, 면적은 두 배로 줄어든다.
- (2) 속도가 5배 빨라졌다.
- (3) 물가가 10년 전보다 두 배 늘어났다.

☞ '배(倍)'는 '갑절 또는 곱절, 일정한 수나 양이 그 수만큼 거듭됨을 이르는 말'이다. 다시 말해 '곱하기'이다. 이 '배'는 '들다, 늘다, 오르다, 빠르다' 같은 말과 어울려 쓰이지만 '줄다, 내리다, 느리다' 같은 말과는 어울리지 못한다. '줄다'와 같은 말에는 '2분의 1로 줄었다, 10% 줄었다'처럼 '분수'나 '%' 따위를 함께 쓰면 된다.

㉠ '-산(産)'이 잘못 쓰인 것은?

- (1) 국내산
- (2) 수입산
- (3) 미국산
- (4) 통영산



☞ ‘-산’은 지역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거기에서 산출된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한국산, 미국산, 멕시코산, 외국산, 제주산’처럼 쓴다. (2)의 ‘수입’은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므로 ‘-산’을 붙일 수 없다.

2. 혼동하기 쉬운 말들

㉠ ‘붙이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메모지를 벽에 덕지덕지 붙여 놓았다.
- (2) 중환자에게 간호사를 붙여 주었다.
- (3)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헌법 제72조)

☞ ㉠붙이다: 포스터를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 찬장을 벽에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접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싸움을 붙이다. 경호원을 붙이다. 단서를 붙이다. 습관을 붙이다. 이름을 붙이다. 한 대 올려붙이다.

㉡부치다: 일이 힘에 부치다. 부채로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책을 소포로 부치다. 남의 논을 부치다. 투표에 부치다. 저녁을 부치다. 토의에 부치다. 원고를 인쇄에 부치다. 당숙 댁에 몸을 부치고 있다.

㉢ ‘빌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학생은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 용서를 빌었다.
- (2) 조문객들은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 (3) 한자의 뜻(새김)을 빌어서 우리말을 적기도 했다.(시정곤 외, 우리말의 수수께끼)

☞ ‘빌다’는 호소하거나, 간청하거나, 바라는 것이다. ‘부처님께 빌다’, ‘용서를 빌다’, ‘동냥을 빌다’처럼 쓰인다. (3)은 ‘일정한 형식이나 이론 또는 남의 말이나 글 따위를 취하여 따르다’라는 뜻이 있는 말 ‘빌리다’를 써야 한다.



㉠ ‘당기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공사 기간을 당겨 예정보다 일찍 끝냈다.
- (2) 그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당졌다.
- (3) 지천으로 있는 집의 음식보다는 역시 남의 집 음식이 당기는 것이었다.
- (4) 한참을 웃었더니 수술한 자리가 당졌다.

☞ ‘당기다’는 ‘마음이 끌리다’, ‘입맛이 돋우어지다’, ‘물건 따위를 가까이 오게 하다’, ‘시간을 앞당기거나 줄이다’라는 뜻이다. (4)처럼 피부 따위가 팽팽해진다는 뜻으로는 ‘땡기다’를 써야 한다. ‘불이 옮겨 붙거나 그렇게 하다’를 나타내는 말은 ‘댕기다’이다. ‘바싹 마른 나무가 불이 잘 땡긴다’, ‘담배에 불을 땡겼다’처럼 쓴다.

㉠ ‘새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고개 드니 날 샐네.(서울 4·19국립묘지 사거리 근처 PC방 이름)
- (2) 여기서 우리 밤 썰까?(" ·현재는 폐업)
- (3) 그날 밤이 새도록 그는 흥분이 되어서 자기의 과거를 일일이 다 이야기하였습니다.(김동인, 광염 소나타)

☞ ‘새다’는 ‘날이 밝아 오다’라는 뜻의 자동사이다. ‘날이 새다’, ‘밤이 새다’처럼 쓰인다. (2)에서처럼 목적어 ‘밤(을)’이 있으면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라는 뜻의 타동사 ‘새우다’를 써야 한다.

㉠ ‘발자국’이 바르게 쓰인 것은?

- (1) 그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 (2) 범인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 (3) 백범의 발자국을 더듬어 보면 그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

☞ ‘발자국’은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이다. (1)처럼 소리가 나는 것은 ‘발소리’라고 한다. 흔적이거나 (3)에서와 같이 지나온 과거의 역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발자취’다.



㉠ ‘산자락’이 바르게 쓰인 것은?

- (1) 눈에 보이는 산자락의 뿌리는 모두 백두대간에 닿아 있다.
- (2) 마을을 감싼 산자락을 오르기 시작했다.
- (3) 멀찍이 산자락에 싸여 초가집들이 웅기중기 모여 있는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유재용, 성역)

☞ ‘산자락’은 ‘밋밋하게 비탈져 나간 산의 밑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1)은 ‘산’ 또는 ‘산봉우리’라고 해야 하며, (2)는 ‘산비탈’이라고 해야 한다.

㉠ ‘틀리다’가 잘못 쓰인 것은?

- (1) 너와 나는 생각이 틀리다.
- (2) 아무리 좋은 기사가 실린 신문이라도 교정이 틀려 있다면 틀린 신문입니다.(이병주, 행복어 사전)
- (3) 오늘 이 일을 마치기는 틀린 것 같다.

☞ ‘틀리다’는 (2)처럼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또는 (3)처럼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1)처럼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함’을 뜻할 때는 ‘다르다’를 써야 한다.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음’을 뜻할 때에도 ‘고장 난 문을 감쪽같이 고치다니 기술자는 역시 달라’처럼 ‘다르다’를 쓴다.

3. 뜻을 바로 알고 써야 할 말들

3.1. 태아(胎兒)-태어나다

‘태아’는 ‘포유류의 모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유체(幼體)’이다. 이 ‘태아’를 모든 동물이 세상에 나오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7월 30일치 신문들은 대부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공룡 태아 화석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공룡은 ‘알’로 번식하는 파충류다. 따라서 ‘태아’가 될 수 없다. ‘태아 화석’은 ‘알 화석’이라고 해야 한다. 이 말만으로 부족하다면 ‘부화 직전의 알 화석’이라고 하면 된다.



‘태어나다’도 ‘사람이나 동물이 형태를 갖추어 어미의 태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므로 알로 번식하는 조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등은 태어날 수 없다. 그러나 2005년 8월 26일치 신문도 대부분 한 동물원에서 홍학 새끼가 ‘태어났다’라고 잘못 보도했다.

알로 번식하는 난생 동물은 알을 낳아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품어 주기도 하는데 이를 ‘까다’라고 한다. 난생 동물 가운데 벌레나 물고기가 알을 낳는 것을 특별히 ‘슬다’라고 하기도 한다. 또 파리의 알은 ‘쉬’라고 해서 파리가 알을 낳는 것은 ‘쉬를 슬다’라고 한다.

3.2. 선영(先塋)

신문 등에 실린 부고(訃告)를 살펴보면 그 마지막에 ‘장지(葬地)는 ○○○ 선영(先塋)’이라고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塋’은 ‘무덤 영’이므로 ‘선영’은 ‘조상의 무덤’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장지’가 ‘조상의 무덤’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때는 ‘선영’이 아닌 ‘선산(先山)’이라고 하거나 ‘선영하(先塋下)’라고 해야 한다. ‘선산’은 ‘선영’과 동의어이기도 하지만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이라는 뜻이 하나 더 있는 말이다.

3.3. 선친(先親)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인답시고 ‘선친’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바른 말이 아니다. ‘선친’은 남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 아니고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친의 고집은 닮았지만, 결단력은 닮지 않은 것 같다.”처럼 쓰는 말이지 제3자가 “그 사람의 선친은 훌륭한 분이셨다.”처럼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다.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일컫는 한자어로는 ‘선대인(先大人), 선고장(先考丈)’ 등이 있다.

3.4. 여부(與否)

흔히 ‘생사 여부’, ‘존폐 여부’, ‘진위 여부’, ‘성패 여부’처럼 쓴다. ‘여부’는 ‘그러함과 그러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생사, 존폐, 성패, 진위’ 등은 이미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여부’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



다. 굳이 ‘여부’를 쓰려면 ‘생존/사망 여부’, ‘존재/폐지 여부’, ‘성공/실패 여부’, ‘진실/허위 여부’라고 해야 한다.

3.5. 탄신(誕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부처와 예수 두 성인(聖人)이 ‘태어난 날’을 공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수가 태어난 날인 12월 25일은 1949년 이 영이 제정될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의 명칭은 ‘기독교탄생일’이다. 1975년 부처의 탄생일을 공휴일에 넣을 때는 ‘석가탄신일’이라고 표기하였으며 이때 ‘기독교탄생일’도 ‘기독교탄신일’로 수정하였다.

‘탄신’은 ‘임금이나 성인이 태어난 날’로서 ‘신(辰)’은 ‘날[日]’을 나타낸다. ‘탄신일’이라고 하면 ‘일’은 사족에 지나지 않는다. ‘생일(生日)’의 높임말은 ‘생신(生辰)’, ‘탄일(誕日)’, ‘탄생일(誕生日)’이다. 대통령령의 두 성인 ‘탄신일’은 ‘탄신’이나 ‘탄생일’, 또는 관련 종교계에서 쓰는 말로 고쳐야 마땅하다.

3.6. 미망인(未亡人)

흔히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부인을 ‘미망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잘못이다. ‘미망인’은 ‘춘추좌씨전 장공편’에 나오는 말로 원래는 ‘남편을 따라 죽지 못했다’는 뜻으로 여성이 스스로 낮추어 이르던 것이다. 현대에 와서 같은 뜻으로 남편을 여윈 사람을 부르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큰 실례가 될 일이다. 그냥 ‘부인’이라고 하면 충분하다.

3.7. 장본인(張本人)

‘장본인’은 ‘어떤 일을 꺾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일과 관련된 사람을 일컬을 때 쓰인다. 다만 이 말이 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일부에서는 이 말을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말을 듣게 될 당사자가 부정적인 뜻으로 느낀다면 큰 실례가 될 테니 조심할 일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 ‘민주화를 이끈 주인공(주역)’처럼 구분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3.8. 절체절명(絶體絶命)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궁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절체절명’이다. 몸이 잘라지고 목숨이 끊어질 정도라는 뜻으로 절박한 상황을 과장해 설명할 때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흔히 ‘절대절명(絶對絶命)’으로 잘못 쓰곤 한다. ‘절대적’이라는 말이 연상되어 일어나는 현상인 듯하다. ‘절체절명의 위기’와 같이 쓰인다.

4. 일본어의 영향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어 찌꺼기가 우리의 말글살이를 흐려 놓고 있다. 찌꺼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본어 또는 일본어식 조어가 마구잡이로 우리 생활에 흘러들고 있다.

4.1. 입장(立場)

‘입장’은 수많은 우리말을 죽이는 낱말이다. 일본어 ‘立場(たちば)’은 우리말에 깊숙이 침투하여 그 뜻이 엄청나게 확대된 대표적인 낱말이다. 이 말은 ‘처지(處地)’로 순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 뜻이 ‘처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입장’이 쓰인 문장을 살펴보면 ‘입장’은 그 쓰임새에 따라 ‘처지, 위치, 형편, 상황, 자리, 직책, 방침, 태도, 자세, 견해, 의견, 주장, 판단, 해명, 생각, 체면, 시각, 관점, 인식, 원칙, 뜻, 심정, 동향, 노선, 의지, 결심’ 같은 말 가운데 하나로 바뀌 주면 뜻이 더 확실해진다. 아예 ‘입장’을 없애 버려야 뜻이 더 분명해지기도 한다.

심지어 ‘입장 난처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난처하다’라는 말이 ‘처지가 곤란하다’라는 뜻이니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하여야 할지 정말 난처해지고 만다.

- 강경 입장을 고수하다.(⇨방침, 태도)
- 신문사는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두 전문가의 기고를 모두 실었다.(⇨ 주장, 또는 삭제·양측을 대변하는)
- 익삼 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복통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처



- 지, 또는 삭제·익삼 씨로서는)
-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얼넘기게 되면 내 입장이 난처해진다.(⇨ 삭제·내가 난처해진다.)
 - 비록 그들에게 밥을 구걸하는 입장이지만, 그들이 자기를 결인이 아닌 당당한 신사로 대해 주기를 희망했다.(⇨형편, 처지)
 - 난 문학을 할 작정ियो.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편부당한 입장을 견지하는 문학을 할 작정ियो.(⇨자세, 또는 삭제·불편부당한 문학을)
 - 저희들은 대원위 합하께오서 왜국의 유혹에 동요하시고 그동안 견지해 오시던 자주적인 입장을 버리시는 줄만 알았습니다.(⇨생각, 태도, 정책)
 - 역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재정리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었다.(⇨관점, 시각, 또는 삭제·자주적으로 재정리하려는)
 - 다만 지금의 이 결론이, 단지 수양 자기의 억측이라든가 한명회의 보고가 허보라든가 하여야 안평의 입장이 서게 될 터인데...(⇨체면)
 -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정적에 대한 적개심, 자신의 결백함과 친척에 대한 그리움을 조부의 입장에서 읊었다.(⇨처지, 심정)

4.2. 현해탄(玄海灘)

‘현해탄’은 일본어 ‘겐카이나다(玄海灘)’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다. 근본적으로 일본어이다. ‘대한해협’의 남쪽, 일본 후쿠오카 서북쪽에 있는 바다를 일본인들은 ‘겐카이나다’라고 부른다. 즉 ‘대한해협’의 동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후쿠오카 앞바다를 일컬어 ‘겐카이나다’라고 하는데 이 ‘겐카이나다’를 마치 ‘대한해협’을 운치 있게 부르는 말인 줄 알고 쓰는 사람이 아주 많다.

대부분 ‘현해탄을 건너다’ ‘현해탄을 오가다’ ‘현해탄을 넘다’ 같은 표현으로 이 말을 사용한다. 이 말을 ‘후쿠오카 앞바다에서 뱃놀이했다’는 뜻으로 사용했다면 이치에 맞겠지만 ‘일본으로 가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다’라는 의미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일이다.

현해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 셈이다. 각종 지도에도 ‘Korea Strait’라고 되어 있다. ‘현해탄’은 ‘대한해



협'이라 해야 마땅하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쓰시마 섬 동쪽의 일본 쪽 해협 역시 '대한해협'이다. 굳이 구분하자면 쓰시마 섬을 중심으로 일본 쪽은 대한해협 '동수도(eastern channel)'이며 대한민국 쪽은 '서수도(western channel)'가 된다. 이 '대한해협 동수도'를 '쓰시마 해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로서야 굳이 쓰시마 해협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4.3. 잔고(殘高) 판매고(販賣高)...

'잔고, 생산고, 수출고, 판매고...'와 같은 말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고(高)'가 일본어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 '고'는 금액이나 양(量)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고'는 '-액, -금, -량'으로 바뀌서 표현해야 한다.

'잔고'는 '잔금, 잔액, 나머지'로, '생산고'는 액수를 뜻할 때는 '생산액'으로, 규모를 말할 때는 '생산량'으로 하면 된다. 다른 예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금액이나 양을 나타내는 말에 '고'가 쓰였다면 이는 모두 일본식 조어이므로 '-액, -량' 등으로 바꿔 주어야 옳다.

4.4. 수입선(輸入先) 거래선(去來先)

'수입선, 거래선' 같은 말도 자주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쓰인 '-선(先)' 역시 일본어에서 온 것이다. 이 '선'은 일본어에서는 '상대방'이나 '대상'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선'에 이런 뜻이 없다. '수입처, 거래처'처럼 '-처(處)'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아울러 '행선지(行先地)'도 일본어이다. 우리말로는 '갈 곳, 목적지'라고 한다.

4.5. 세대(世帶)

가구(家口)를 흔히 '세대'라고 하는데 일본어 '世帶(せたい)'를 우리말로 읽은 것이다. 주민등록 등본 등을 떼어 보면 '세대주'라는 항목이 있기도 하다. 우리말을 가장 정확히 써야 할 관공서에서 오히려 우리말을 버리고 일본어를 국민 모두에게 퍼뜨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도



그대로 ‘총 2000세대 분양’ 등의 문구가 버젓이 나온다.

독립된 한 집안을 이룰 때에는 ‘세대’가 아닌 ‘가구’를 써야 한다. 그 집의 주인이나 가장도 ‘세대주’가 아니라 ‘집주인, 가구주, 가장’으로 써야 한다.

4.6. 내역(內譯)

‘내역’은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을 가리킨다. 이 ‘내역’ 또한 일본어이다. 우리말에는 ‘명세(明細)’가 있다. 자세하게 밝힌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업 내역, 물품 내역, 공사비 내역’ 같은 말은 ‘내역’을 ‘명세’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으로 바꿔 주면 된다.

4.7. 사체(死體)

문국진: 일본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체’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체라는 것은 동물의 사체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경우는 송장, 시체가 되지요. 사람과 동물은 구별합니다.

우에노 마사히코: 일본은 한자 제한으로 ‘시(屍)’와 ‘사(死)’를 통일했습니다. 동물도 사람도 전부 통일해서 ‘사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하고 ‘시(屍)’라는 한자를 없앴습니다.

문국진: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 사체 부검이라고 하면 이것은 동물의 사체를 부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국진, 한국의 시체 일본의 사체)

4.8. 그 밖의 것들

고수부지(高水敷地)⇒둔치, 강터	곤색(紺色)⇒감색, 진남색, 검남색
굴삭기(掘削機)⇒굴착기(掘鑿機)	기라성(綺羅星)⇒빛나는 별(기라성 같은⇒쟁쟁한)
노견(路肩)⇒갓길, 길옆	다데기⇒다짐, 다진 양념
다시(出汁)⇒맛국물	부(分)⇒푼(8부 능선⇒8푼 능선, 3부 다이아몬드⇒3푼 다이아몬드)
부지(敷地)⇒터, 대지	선착장(船着場)⇒나루
소데⇒소매(소데나시⇒민소매)	소라색(空色)⇒하늘색
수순(手順)⇒차례, 순서	시건(施鍵)장치⇒잠금장치



시말서(始末書)⇒경위서	시합(試合)⇒겨루기, 경기
십팔번(十八番)⇒애창곡	아나고⇒붕장어
오텡(御田)⇒꼬치 ※요즘은 오텡이 ‘어묵’의 뜻으로 더 많이 쓰임.	와사비(山葵)⇒고추냉이
전향적(前向的)⇒긍정적, 미래지향적, 적극적, 발전적	정종(正宗・まさむね)⇒청주(淸酒) ※정종은 일본 마사무네(正宗) 가문에서 빚은 술에서 유래함.
지리⇒맑은탕	진검(眞劍)승부⇒정면승부
혹성(惑星)⇒행성(行星)	



공문서 쓰기

— 규 · 정 · 간 · 편을 향하여 —

김 희 진*

1. 공문서의 정의와 종류

‘공문서’란 행정기관 내부나 외부에 공무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에는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 매체 기록도 포함된다.<사무 관리 규정(일부 개정 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1호 제3조 참조)>

공문서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비치문서·민원문서·일반문서로 나뉜다. <위 개정 1996. 5. 3.>

1. 법규문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 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비치대장·비치카드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인가·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제5호에 속하지 않는 모든 문서<제7조>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읽는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데에 목적을 두므로 읽는 사람이 그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개인의 사적인 글도 다듬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르듯이 공문서도 공

* 국어 생활 연구원 원장



문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 구실을 하기 어렵게 된다. 사무 관리 규정에서도 문서는 어문 규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로로 쓰도록 명시하였다.

2. 좋은 공문서의 지향점

좋은 글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내용의 충실성, 정확성, 용이성, 논리성, 형식의 완결성을 흔히 꼽는다. 공문서 역시 이들 요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다 읽고 이해해야 하는 공문서라는 관점에서 종전의 요건을 ‘규’, ‘정’, ‘간’, ‘편’이라는 네 줄기로 정리할 수 있다. ‘규’(規, Prescription)란 어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요, ‘정’(定, Authenticity/ Accuracy)이란 당초 의도된 내용으로만 해석되어 신빙성과 확실성을 주는 것이요, ‘간’(簡, Conciseness)이란 간결하고 명쾌하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요, ‘편’(便, Easiness)이란 내용이 쉽고 익숙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규’, ‘정’, ‘간’, ‘편’은 모든 이가 보조와 보폭(PACE: Prescription, Authenticity, Conciseness, Easiness)을 맞춰 나가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모든 이’에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들도 포함된다.

공문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인 ‘규’, ‘정’, ‘간’, ‘편’을 법규문서인 ‘민법’(2005. 12. 29. 일부 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1. 규(規)

‘규’는 사물의 모범으로서 하나의 지침이자 길잡이이며 사물을 바로잡는 잣대다. ‘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규정다움’을 뜻한다. 공문서에서 손꼽는 규정다움이란 통일성과 충실성을 바탕으로 깔면서 정확하고 쉽고 자연스럽게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I. 어문 규정 준수

1. 숫자 포함어: 8寸 以內的 姻戚 <제809조 제2항>, 제3자 <제584조>
2. 띄어쓰기: 相續開始있음을 안 날 <제1019조 제1항>
3. 문장부호: 地上權者는 建物 其他 工作物이나 樹木을 收去하여 <제285조 제1항>
 - ㄱ. 주요∨토의∨과제 없 음[.]
 - ㄴ. 가. 관계∨법령 생 략 [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05. 5. 28.[.]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이] 없음[.]

II. 정확한 표현

1. 단어 선택:
 - (1) 그 保管에 相當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제759조 제1항>
 - (2) 無能力者가 아직 能力者가 되지 못한 <제15조 제2항>
 - (3)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는 <제5조 제2항>
 - (4) 配偶者에 不貞한 行爲가 있었을 때 <제840조 제1호>
2. 호응 이루기: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相對方이 確定한 境遇 <제142조>
3. 균형 있는 접속 관계
 - (1) 親權者는 그 子를 保護 또는 敎養하기 爲하여 (중략) 感化 또는 矯正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제915조>
 - (2) 管理者가 本人을 爲하여 必要 또는 有益한 債務를 負擔한 <제739조 제2항>

III. 쉬운 표현

- (1) 債務의 更改로 인한 <제504조>
- (2) 清算人이 數人인 때 <제722조>

IV. 자연스러운 표현

- (1). 各自의 相續에 應하여 <제1007조>/ 需要의 程度에 應하여 <제235조>
- (2)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른다. <제781조 제1항>

V. 논리적 표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VI. 간명한 표현

- (1) 婚姻의 取消의 效力은 既往에 遡及하지 아니한다. <제824조>
- (2) 農, 工業의 經營에 利用하는 水路 <제233조>



- (3)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各 組合員은 組合의 解散을 請求할 수 있다.
 <제720조>

1.2. 정(定)

공문서에서 말하는 ‘정(定)’이란 누가 읽어도 한 가지로만 해석되어,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즉, 안정되어 흔들림이 없는 해석을 이른다. 의도된 뜻으로만 해석되고 이중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이 명확성을 해치는 요소들을 멀리해야 한다.

I. 명확한 표현: 成年에 達한 者는 養子를 할 수 있다. <제866조>

II. 혼란 줄인 표현

1. 동음어 피하기: 善意, 平穩 및 公然하게 占有한 것으로 <제197조 제1항>
2. 다의어 피하기: 收取한 果實 <제923조 제2항>/第913條 乃至 第915條에 規정한 <제945조>
3. 지시어 구체화하기
 - (1) 그 親權에 따르는 子에 같음하여 그 子에 對한 親權을 行使한다.<제910조>
 - (2) 土地所有者는 隣接地의 地盤이 崩壞할 程度로 自己의 土地를 深掘하지 못한다. 그러나 充分한 防禦工事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1조>
4. 사동 표현 바르게 하기
 - (1) [89헌마160 1991.4.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2) 親養子의 養親에 對한 悖倫行爲로 인하여 親養子關係를 維持시킬 수 없게
 <제908조의 5 제1항 제2호>
5. 어순 배열 제대로 하기
 - (1) 親族會員에 그 任務에 關하여 不正行爲 其他 適當하지 아니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本人, 그 法定代理人,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本人의 親族이나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그 親族會員을 改任 또는 解任할 수 있다.<제971조 제1항>

III. 빈틈없는 표현

- (1) 自署名 또는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 1068조 제1항>
- (2) 都給人은 瑕疵의 補修에 같음하여 또는 補修와 함께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제667조 제2항>
- (3) 前條第1號의 事由는 다른 一方이 事前同意나 事後 容恕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月, 그 事由있은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한 때에는 離婚을 請求하지 못한다. <제841조>



1.3. 간(簡)

공문은 의미 차이가 생기지 않는 한 간결하고도 간명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일반인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와 점자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I. 조사의 활용

- (1) 其他 事由로 因하여(→사유로) 欠缺된 때에 <제936조 제2항>
- (2) 特別한 節次를 要하는 行爲에 關하여는(→행위는) <제15조 제3항>
- (3) 社團法人의 定款은 總社員 3分の 2以上の 同意가 있는 때에 限하여(→때에만/때만) 이를 變更할 수 있다. <제42조 제1항>

II. 어미의 활용

- (1) 借主가 그 責任있는 事由로 受領을 遲滯할 때에는(→지체하면) <제600조>
- (2) 未成年者가 婚姻을 할 때에는(→하려면) 父母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제808조 제1항>

III. 준말의 활용

- (1)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追認할 수 있는 後에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으면 追認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異議를 保留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러지 않는다). <제145조>
- (2) 이를 定款에 記載하지 아니하면(→기재하지 않으면) 그 效力이 없다. <제41조>

IV. 간결한 표현

- (1) 傳賞金으로써 損害의 賠償에 充當하고 剩餘가 있으면(→남으면) 返還하여야 하며 <제315조 제2항>
- (2) 協議가 이루어지지(→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26조 제2항>
- (3)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하여야/해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제1항>
- (4) 組合의 存續期間을 定한 때에도 組合員은 不得已한 事由가 있으면 脫退할 수 있다. <제716조 제2항>
- (5) 破産의 境遇를 除하고는(→경우가 아니고는/경우가 아니면) 그 就任後 3週間內에 前條第1項의 事項을 主務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제86조 제1항>
- (6) 法院은 그 選任한 財産管理人에 對하여 不在者의 財産을 保存하기 爲하여 必要한(→보존하는 데 필요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제24조 제2항>
- (7) 괄호 안에는 접수일자를 기재한다. 민원문서 등 시·분까지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분까



지 기재한다. (예) 2002.5.10. 또는 2002.5.10. 14:23 접수인 (제31조제2항관련)
 (8) 다른 서식과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서식의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명칭을 붙인다. 서식의 설계기준 (제83조관련)

(9)[별지 제1호서식] <신설 1999.9.2>

사무인계·인수서

1. 업무현황
 - 가. 담당사무
 - 나. 주요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 라. 주요미결사항
2. 관련문서 현황
3. 주요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V. 불필요한 성분 생략

- (1) 失踪의 宣告를 直接原因으로 하여 財産을 取得한 者が 善意인 境遇에는 그 받은 利益이 現存하는 限度에서 返還할 義務가 있고 惡意인 境遇에는 그 받은 利益에 利子を 붙여서 返還하고 損害가 있으면 이를(→삭제) 賠償하여야 한다. <제29조>
- (2) 第52條의 規定은(→제52조는) 前項의 登記에 準用한다. <제85조 제2항>

1.4. 편(便)

공문은 쉽고 편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문은 한자의 혼용, 지나친 붙여 쓰기, 어려운 용어 사용, 상투적 표현, 명사형의 남용, 호응 관계의 불일치, 관형격 조사의 반복, 접속 부사의 오·남용, 지시어의 남용 등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편안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I. 읽기 쉽게 적기

- (1) 民事에 關하여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法에 依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依한다. <제1조>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慣習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



II. 적절히 띄어 쓰기

- (1) 긴급 재정 처분(緊急財政處分)/긴급재정처분
- (2) 정당한 당사자(正當-當事者)/사상과 양심의 자유(思想-良心-自由)/과신적 과실(過信的過失)
/복성식 평가법(複成式評價法)

III. 쉬운 용어 사용하기

- (1) 그 保管에 相當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제759조 제1항>
- (2) 暴力 또는 隱秘에 의한 占有者 <제201조 제3항>
- (3) 工作物의 所有者나 蒙利者 <제233조>
- (4) 한자어: 공종(工種) → 공사 종류/이전용(移轉用) → 이용과 전용, 이용·전용
기(既) 제시한 → 이미 제시한

V. 상투적 표현 피하기

- (1) 法定代理人에 對하여 前項의 催告를 할 수 있고 <제15조 제2항>
- (2) 法院은 그 選任한 財産管理人에 對하여 不在者의 財産으로 相當한 報酬를 支給할 수 있다.
<제26조 제2항>
- (3) 特別한 節次를 要하는 行爲에 關하여는 그 期間內에 그 節次를 밝은 確答을 發하지 아니하
면 取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제3항>

VI. 명사형 남용 피하기

本法에서 物件이라 함은 有體物 및 電氣 其他 管理할 수 있는 自然力을 말한다. <제96조>

VII. 호응 관계 일치시키기

- (1) 相續은 被相續人의 住所地에서 開始한다. < 제998조>
- (2) 一家創立 또는 分家로 因하여 戶主가 된 者는 他家에 入養하기 爲하여 廢家할 수 있다.
<제793조>

VIII. 관형격 조사의 반복 피하기

- (1) 無能力者의 相對方은 無能力者가 能力者로 된 後에 이에 對하여 1月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取消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제15조>
- (2) 土地所有者는 그 所有地의 물을 疏通하기 爲하여 이웃 土地所有者의 施設한 工作物을 使用
할 수 있다. <제227조 제1항>

IX. 접속 부사의 오·남용 피하기

- (1) 第899條 및 第900條의 경우 <제901조>
- (2) 第536條의 規定은 第572條 乃至 第575條, 第580條 및 第581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제583조>
- (3) 法定代理人은 前項의 許諾을 取消 또는 制限할 수 있다. <제8조 제2항>



X. 지시어 남용 피하기

無能力者の 相對方은 無能力者가 能力者로 된 後에 이에 對하여 1月以上の 期間을 定하여 그 取消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제15조>

3. 기관별 공문서 보기

2장에서 좋은 공문서의 지향점을 생각하며 공문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생각해 보았다. 이제 각 정부 부처, 기관·단체에서 생산해 내는 공문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구체적인 예를 보기로 한다. 띄어쓰기 등 표기는 있는 그대로 두었고 자료는 될 수 있으면 최근 것을 취하였다.

◎ <행정 자치부>

2007년도 국가기록원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7년 8월 23 일

국 가 기 록 원 장

채용분야: 기록관리업무전반

채용자격기준: 기록관리학 전공자로 석사학위이상 취득자 또는 역사학·

문헌정보학 전공자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 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중략)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적격 또는 부적격여부 판단

(※중략)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07. 9. 5(수) ~ 9. 7(금) (3일간)

※ 접수시간 09:00~18:00이며, 토,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증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보통등기우표(1,720원)를 붙여 (※중략)
 라. 접수장소: (※생략)

※ 학위가·논문, 등이 외국어로 표기되었을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가 이탈되지 않도록 순서대로 제출요망

※ 관련서류 위변조시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고발됨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소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자는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문의사항은 국가기록원 총무팀 (※생략)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수험번호와 사진위의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원판일 것)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 까지 국가기록원 총무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 <감사원>

1.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2. 제출방법 : 직접 접수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4. 저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당일 입찰 장소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같음
5. 본 사업 참가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2007. 8. 10. 감 사 원 재 무 관
7. 첨부화일와 같이 일반공개경쟁 입찰공고하오니



◎ <건설 교통부>

1. 화도-양평, 광명-서울 제3차공고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기타 화도-양평고속도로 운영과 관련된 설명자료, 질의답변 등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처에 문의바람

◎ <경찰청>

서비스헌장

1. 국민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2.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 거래 위원회>

1.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선도자로 거듭나겠습니다.
2. 누구나 부르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짧은 문구
3. 응모요령 : 공정위 협력정책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4. 하도급법은 (※중략) 불공정성을 시정시키기 위한 법률로서
5.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점수를 가점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점수를 감점하는 방향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과학기술부>

1. 주제 : 기업의 성공을 위한 HR 전략 (※중략)
2. 신청마감 : 2007년 8월 30일(목) 까지(※중략)
3. 신청방법 : 팩스 및 이메일 접수(※전화번호 등 생략)

◎ <관세청>

1. 행사일시 : 2007. 08. 13.(월) ~ 08. 17.(금) (4일간, 8.15제외) (※중략)
2. 신청 및 제출방법 (Fax 또는 E-mail로만 접수 가능)
- FAX: (※생략) - E-mail: (※이하 생략)

◎ <교육 인적 자원부>

1. 07년 8월 17일(09:30~12:30) 창덕여자중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중략)



2. 설명회 자료를 1,150부 현장에서 배부하였으나 추가 배부 요청이 계속되어, 우리 부 홈페이지에 탑재(정보교실-정보자료실-유초중등교육 2409, 2410번)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보훈처>

2007년도 『보훈문화상』 시상계획 발표

1. 시상부문 및 수상자격: 기념사업부문은 (※중략)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널리 선양하거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킨 개인 또는 단체(기관)
2. 시상인원 및 내용
시상인원 : 4명(부문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상 적격자 다수 신청 추가 선정)
시 상 : 상패 수여 및 시상금 각 1,000만원 지급
3. 시 상 : 2007. 12월중 (※생략)
4. 접수기간 : 2007. 7. 20. ~10. 19.(3개월)
5. 접 수 처 : (※중략)
6. 2007년도 보훈문화상 후보자 신청은 7.20~10.19일까지 국가보훈처(선양정책과) 또는 각 지방보훈관서(보훈과)를 통해 접수 받아 12월중에 수상자를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추천양식다운받기>

◎ <국가 안전 보장 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3.3.22 대통령령 제1794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비서실장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제3조 (회의운영) ①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조 (의안) ①의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 <국가 정보원>

1. 원서접수 기간 : 2007.8.13(月) 10:00 - 8.22(水) 13:00 * 8.22(水)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2. 원서접수 방법 : 국정원 인터넷 홈페이지 계약직 원서접수란에서 응시원서를 작성, 제출한 후 응시원서·세부경력·자기소개서를 출력(8.22 13:00까지 가능)

◎ <국가 청소년 위원회>

1.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개인 및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중략)
2. 2007. 8. 17.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3. 시상 분야 : 활동, 보호, 복지, 인권·참여(4개 부분)
4. 시상내용 : 상장 및 상패, 상금(개인1,000만원, 단체2,000만원)
5. 시상 세부 분야

부 문	시 상 대 상
인권·참여	청소년의 인권을 증진하고 참여를 확산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6. 추천서류 접수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한 접수

◎ <국무총리>

1. 제35회 국무회의('07.8.14)시 지시사항
 - 1-1 전자여권 도입 관련
 - 《지시사항》
 - 전자여권 도입을 좀 더 촉진해주시고 바라고 관계부처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검토이행사항, 외교부)
 - 1-2 개인의 정보보호 관련
 - 《지시사항》
 - 공공 및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검토이행사항, 행자부·정통부)
 - 1-3 2단계 균형발전대책 관련



《지시사항》

- 2단계 균형발전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 (검토이행사항, 재경·행자·산자·건교·복지·노동부·기예처·공정위·균형위)(※후략)

◎ <국민 경제 자문 회의>

기능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자문
 국민복지증진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에 관한 자문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1. 대통령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 강 정 혜(姜 貞 晳)
2. 옴부즈만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3. 수상자의 명예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4. 휴먼명조 13pt, 줄간격은 130%~160% 범위내에서 적의조정 (♣ 휴먼명조 13pt, 줄간격은 130%~160% 범위에서 적의조정)
5. 파급효과 : 전국 등 광범위하게 파급효과가 있는 지 여부

◎ <국방부>

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추가 신청 접수계획 공고
2. 신청 기간 : 2007. 7. 27. ~ 2008. 6. 30.(공휴일 제외)
3. 제외대상 : 1959년 이전 병, 하사(당시 이등중사, 일등중사)계급으로 퇴직한 자, 1960년 이후 퇴직자, 1959년 이전 퇴직 후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재임용되어 퇴직 시 1959년 이전 군 경력을 인정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
4. 접수처 : 각군 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국정 홍보처>

1. 접수장소 : 국정홍보처 혁신기획관실(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06호)



2.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3.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4.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근무시간 내에만 접수가가능하고, 우편접수는 2007.8.29(수)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국회>

1. 안녕하세요

국회방송 기획편성담당관실입니다. 8월 27일 ~ 9월 2일까지의 편성표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 본 편성표는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예산결산위원회 결산회의와 관련하여 회의장과 회의장부속실 출입증을 배포하고자 하오니 반드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본 출입증은 예산회의시 다시 발급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결산회의 종료후 예산부서에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목)~24일(금) 오전 09:30~11:30분, 오후 13:30~17:30

2007. 8.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전화)

◎ <금융 감독 위원회>

1. 2007. 8. 8.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2. 제출기한 : 2007. 8. 22(수)까지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4. E-mail 주소 : (※생략)
5. 기 타
 - (※전략) 인사기록카드(사본)은 FAX(02-3771-5027) 송부도 가능함
 - (※전략) 기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혁신행정과(※전화 생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장」 공개모집 공고

임용예정직위 및 보직가능 공무원(※생략)

1. 관할구역의 장·단기 예·특보 생산 통보
2. 관할구역 내 기상관측 및 악기상 조기 감시, 관할구역 내 기상관측 장비 관리·운영, 관할구역 내 기상정보 통신망 관리운영



3. **선발시험 일시 및 장소:** 2007. 9. 12.(수) / 기상청 회의실

4.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하거나 등기로 우송(※ 수신처 주소 생략)

◎ <기획 예산처>

1.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필요시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연장 가능
2.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3.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4.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2007. 8.3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5.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하기 바람
6.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시고, 응시원서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1. 먼저 2007년도 하반기 근로자학자금 대부 확정대상에서 탈락하신 분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농협중앙회를 통해 개별 대부를 받으시고자 하는 분께서는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능력개발비용대부 확정통지서”를 지참하여

◎ <농림부>

1. 농업인 대상 정보화교육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2. 교육시기는 농한기, 교육수요, 지역·품목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생의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
3. 지원기준 : 300만원/회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농촌 진흥청>

1.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상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작업 사고사례와 안전 표어를 공모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의식 확산 계



기 마련

2.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내용
3. 농부중 및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성 질병 예방 및 관리 내용 등
4. 우리청 홈페이지, 지방 농촌지도기관, 관련 대학, 농업인단체, 언론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농작업 안전 인식 확산 계기 조성
5. 농작업 사고 사례 및 안전 표어를 각종 교육 교재, 홍보 팜프렛, 포스터 등에 활용 홍보
6. 농업인 및 국민적 안전의식의 공감대 형성과 실천의식 제고

◎ <대검찰청>

1. 본인확인을 하고난 후에는 기존과 같이 ID나 별명을 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실명확인이 되지않으면 게시물 작성이 제한되오니 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본인은 2007년도 제 회 기능직공무원(운전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5,000원)

5. 주의사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1. ARS 전화를 이용하여, ‘○월 ○일에 대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아 ○월 ○일 2차 출석을 통보하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9번을 누르라’는 메시지 전달
2. 법원에서는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가 없으므로 절대 그러한 시도에 응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 경호실>

1. 채용분야: 특정직 7급 채용분야: 경호
2. 채용시기: 고정시기 없음(채용전형 1개월전 공고)
3. 응시자격: 만30세 이하자(제대군인의 경우 근무연한에 따라 응시연령 연장 가능) 병역 필한자(면제자 포함)

◎ <문화 관광부>

새로운 여권디자인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결과

□ 선정결과

- 최우수(1점) : ○○○(서울, 28세)
- 우수(2점) : ○○○(서울, 25세) / ○○○(부산, 22세)
- 입 선(3점) : ○○○(서울, 38세) / ○○○(경기, 28세) / ○○○(서울, 23세)
- * 당선자는 개별 통지함

□ 시상안내

- 시상내역(※생략)
- 시상식 : 2007. 11. 16(금) 예정
- * 확정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

◎ <문화재청>

1. 채용분야 및 인원 : 문화재안내원(비정규직) 총5명. 영어3명, 일어2명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3.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에서 도보 7분정도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함
5.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모두 불합격시킬 수 있음
6.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시험실시 2일전까지 창덕궁 홈페이지(www.cdg.go.kr)에 공지 예정

◎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1.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공모전 참가비 없음)



2.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3. 응모방법 : 200자 원고지 또는 A4 용지

◎ <방송 위원회>

1.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9월 10일 예정)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법무부>

1. 각 시험구분별 시험실시계획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합니다.
제1차시험은 원칙적으로 선택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 제2차시험과 그 다음 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제3차시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 평정 ① ~④ (※생략)
⑤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4. 경제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및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 한다.
5. 법무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불합리한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아 시정하므로써 국민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 <법제처>

<2006년 알기 쉽게 만들어 국회 제출한 법률 추진실적>

(2007. 6. 20. 현재)

소관 상임위	제출 법률 (63건)	처리 현황(49건 통과)
행정자치위원회	7건 (지방자치법 등)	국회 통과 · 공포
문화관광위원회	9건 (관광진흥법 등)	국회 통과 · 공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4건 (농지법 등)	국회 통과 · 공포
	해수부 5건 (수산업법 등)	국회 통과 · 공포



◎ <병무청>

1. 병역자원의 수급상 20세에 징병검사를 받게되는 사람과 유학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등이 됩니다.
2. 징병검사 이후에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지방청에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을 클릭하십시오.

◎ <보건 복지부>

1. 우리원 서무과(서무)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2.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9. 5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우편접수시 : 봉투겉면에 인사지원서류 표시 필

◎ <산림청>

1. 접수기간 : 2007년 8월 20일~2007년 8월 31일 18:00시 까지(12일간)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제출
3. 직접 제출시 토요일·공휴일·일요일은 제외
4. 2차 면접 : 2007년 9월 5일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5. 숲해설가
 - o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현재 미취업자
 - o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자 또는 귀농자 및 고령자 또는 전업 주부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로서
 - 인증 받은 기관에서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우선 고용
 - 기타 위에 준하는 능력과 경력을 겸비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 가족수가 많은 자 등
6.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매도승낙 후 개인사정으로 매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 자원부>

행정서비스현장 - 고객에게 드리는 우리의 다짐



1.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하나, 우리는 고객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3. 다른 업무 처리중이더라도 고객을 대하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어서 오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말로 양해의 말씀을 전한 후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공통적 이행기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공고 제2007-8호

서울시립미술관 야외음악회 행사 대행업체 모집공고

1. 미술관 이미지를 홍보 하고자 개최하는 서울시립미술관 야외음악회 행사를 추진 할 대행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07. 8.23. 서울시립미술관장
2. 사업비 : 이천오백만원(책임보험, VAT 포함)
3.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07. 10. 17(수) 행사 종료 시까지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제출된 제안 내용은 변경 불가
5.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거 관리 위원회>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 <소방 방재청>

태풍주의보 발령시

1.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 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둡시다.
2.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을 단단히 고정합시다.
3.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



4.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5.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6.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7. 송전철탑 도괴 또는 누전, 방전 발견 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
8. 출입문, 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국가 재난관리 정보센터>

◎ <식품 의약품 안전청>

여름나기를 위한 식중독 예방 요령

1. 외출후, 식사전, 조리시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기
2. 김밥 등 도시락은 아이스박스나 차가운 곳에 보관하기
3. 어패류 등 수산물은 익혀 먹고, 가급적 날것으로 먹지 않기
4.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시기
5. 음식은 한번에 먹을 분량만 만들거나 구입하여 빨리 섭취하기
6. 우리청에서는 (※중략) 「국립독성연구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7.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8.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공지사항)
9.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성 가족부>

1.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고,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를 동봉
2.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3.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4.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첨부자료 공고문의 붙임 서식으로 제출 가능



◎ <외교 통상부>

1. 대상자는 본인의 해당언어 및 시험시간을 정확히 확인 후,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도착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결시 처리되어 평가에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2. 평가운영상, 휴대용 정보통신기기(휴대폰, PDA 등)을 수거하였다가 귀가 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3. 업무폭주로 인하여 평가방식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 채용 카페 (cafe.naver.com/mofathr)를 이용바랍니다.

◎ <재정 경제부>

재정경제부는 금년 도입을 추진중인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관련

-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파트너십(Partnership)'과 그 구성원인 '파트너(Partner)'에 대한 우리말 명칭을 공모한 결과
- '동업기업'을 최우수작으로, '공동조합기업', '공동출자기업', '동업조합기업'을 가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총 1,001건의 응모작에 대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 T/F의 심사를 거쳤으며,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6명에게는 각각 30만원을, 가작으로 선정된 3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정보 통신부>

1.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등)
2.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3.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3자의 의견청취
5.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6.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가 가능



◎ <조달청>

1. 용역에 대한 상세규격은 G2B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

□ 지역별 분석

1. 예상경기 BSI는 대전이 141.0으로 가장 높고, 경남이 101.1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2. 대전의 경우 음식 및 숙박업, 이·미용업 그리고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소비심리 기대
3. 7월 체감경기 BSI는 대구가 96.9로 가장 높고, 경북이 59.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중앙 인사 위원회>

1. 추가합격자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07. 8. 20(월) ~ 8. 22(수)
 - 제출방법 : 익일특급등기우편(빠른 등기)
 - 서류 발송 후 02)751-13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면접관련 사항: 직렬(류)별 자세한 개인별 응시일정은 2007. 8. 31(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 <통계청>

1. 2006년 출생아 수 45만 2천 명, 6년 만에 증가
2. 2006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증가



3.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는 45만 1514명으로 전년보다 1만 345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출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90.2명으로 모든 연령층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 <통일부>

1. 접수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또는 메일접수
2.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메일 접수자는 발송후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요망)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 인사기획팀(전화)으로 문의 바랍니다.

◎ <특허청>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 공청회 개최 안내

특허청에서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과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에게는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특허법·실용신안법에 대한 3단 대비표 책자를 나누어드릴 예정입니다.

● 일 시 : 2007. 8. 17.(금), 14:00 ~ 16:00

●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회의실

효율적인 설명회 진행을 위해 참석인원을 참가신청서 제출 선착순 200명 내외로 제한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이메일 또는 Fax로 8. 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 경찰청>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수면에 비하여 수역이 좁고 위험성이 적은 내수면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수면의 넓이, 물의 세기·깊이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데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수상레저활동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행하는 행정처분의 기준과 관련하여 그 고의·중과실, 사망·상해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7. 10. ~ 7.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합의되었음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등

2. 나침반

◎ <해양수산부>

1. 전체항만의 25%가 60~70년대 건설되어 노후화로 항만경쟁력 저하

노후·유휴항만을 배후도심과 연계한 친환경·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재개발하여 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3. 본 기본계획(안)은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진행 중인 미확정 계획이며, 예정구역범위 및 도입가능시설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1.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고,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 봉투(등기우표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2. 방문접수의 경우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3.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짐
4.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하기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5.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표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무팀(☎041-860-90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헌법 재판소>

헌법재판소 공고 제2007-6호

국제회의 전문가 공개모집 공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제회의 전문가(전문계약직공무원)를 공개모집하오니 창의적이고 의욕있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8월 24일

헌 법 재 판 소 사 무 처 장

1. 임용분야 및 직위

임용분야 : 국제회의 관련 분야

임용직위 : 조사관(전문계약직)

2. 담당직무

국제회의 관련 기획·운영 및 의전

국제업무 관련 문서의 번역(영한·한영)

국제협력 관련 행정지원

3. 채용인원 : 1명

4. 응시자격



- 해당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 국제회의 관련 실무경력자, 원어민 수준의 영어 구사 가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컨벤션기획사」 자격 취득자 우대

5. 채용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임용예정일 : 2007. 9.중

7.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 2007. 8. 30(목) 09:00 ~ 9. 5(수) 18:00

나.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제출시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다. 접 수 처 : (우110-250) 서울시 종로구 가회로 15

헌법재판소 총무과(인사계)

라. 제출서류

- 이력서 1통(A4용지,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통(A4용지)
- 주민등록등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영어 성적증명서(토플, 토익, 텡스 등) 사본 1통(소지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통(소지자에 한함)

8. 시험실시

가. 서류심사 : 합격자 개별 통지

나. 면접시험

일시 : 2007. 9. 10(월) 10:00

장소 : 헌법재판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9. 합격결정

2007. 9. 12(수) 최종합격자 개별통보예정

10.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총무과[전화]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운 당신의 능력을 국가 최고의 헌법기관에서 마음껏 펼쳐 보이십시오.”

◎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종합감사 정보·의견 수렴

□ 환경부 감사관실에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고자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아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정보 사항을 사전에 수집·파악하고 있으니 피 감사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대상 업무(생략)

□ 제출내용

○ 민원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업무개선 사항 등 감사에 필요한 정보 사항

1. 의견을 제출하신 분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여 무기명으로 제보를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 제출기한 : 2007. 8. 31일까지

3. 제출방법 : 인터넷, 전화, FAX 또는 우편

4. 제출처 : 환경부 감사담당관실

○ 이메일 : ktsu@me.go.kr

○ 전 화 : 02) 2110- 6531

○ FAX : 02) 504- 9203

○ 우 편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60)

한국환경자원공사 임원 초빙 제공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선도하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폐기물의 발생억제·재활용 및 적정 처리로 순환형 자원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1. 모집직위

-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상임이사(기획관리이사) 1인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2. 응모자격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
으로,

- 환경·경영·경제·행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분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분
- 기타직무수행에 적합한 분

3.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3부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본인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정보공개동의서
- ※ 지원서등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

4. 서류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 2007. 8. 22(수) ~ 2007. 9. 7(금) 18:00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 접수처 : 한국환경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경영지원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우:404-170)
-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등기우편 접수 가능(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5.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하고 서류심사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면접심사 대상자, 면접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경영지원실 (032-560-1611)로 문의하시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 envico. or.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07 년 8 월 22 일
한국환경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참고 문헌

- 각 정부 부처, 기관·단체 누리집, 2007년 8월 23일~ 8월 26일
국립국어원(1994),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 동아.
김문오(2003),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국립국어연구원.
김희진·박용찬·변영수 외(2006), 『잘 보이고 잘 들리는 법령문 쓰기』, 한국법제연구원.
박갑수(1997), 법률 문장 순화돼야 한다,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법제처(200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2002), 『법령 용어 사례집(상)』, 『법령 용어 사례집(하)』.
이수열(1999),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대한민국 헌법』, 현암사.
한국교열기자회(1982), 『국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일지사.
한국법제연구원(2003), 『大韓民國 現行法令集』.
행정자치부(2007), 사무 관리 규정<일부 개정 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1호>
허철구(2002), “법률의 띄어쓰기”, 『새국어생활』 12-1, 국립국어연구원.



우리말 다듬기

이 대 성*

1. 들어가는 말

- 축구 경기 중계방송에서 자주 듣는 용어들

프리킥(free kick), 코너킥(conner kick), 롱 킥(long kick), 스루 패스(through pass), 태클(tackle), 크로스바(cross bar), 골키퍼(goal-keeper), 미드필더(mid-fielder), 원 톱(one top), 포백 시스템(four-back system), 헤딩(heading), 골인(goal in), 레드카드(red card), 슈트(shoot), 오프사이드(off side) 등등

☞ 북한에서 다듬은 축구 용어

헤딩→ 머리받기

프리킥→ 벌차기

슈트→

패스→

☞ 북한에서 다듬은 말

노크→ 손기척

드라이크리닝→ 마른빨래

대합실→

원피스→

주스→

호출기→

카스테라→

내해(内海)→

- 영어로 가득한 방송 제목과 용어들

뉴스 데스크, 해피 투게더, 머니 투데이, 뮤직뱅크, 커피 프린스 1호점, 아이 엠 샘, 경제 매거진 M, 클래식 오디세이, W, 슈퍼 코리안 스페셜, 생방송

* 계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투데이, 나이트 라인, 세대 공감 올드&뉴

프로듀서, 엠시(MC←master of ceremonies), 오프닝 멘트, 스페셜 게스트, 뮤직 스타트!

☞ 우리말로 지은 제목들

경제야 놀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상은 넓다, 우리 사는 세상, 하늘만큼 땅만큼, 시사기획 쌈, 인간극장, 미녀들의 수다, 이재용·정선희의 기분 좋은 날, 행복충전 내일은 맑음, 생방송 화제집중, 생활의 달인, 그 사람이 보고 싶다

● 지금 우리말은 너무 아프다.

☞ 말은 민족의 징표이다.

☞ 사극 ‘대조영’에 나오는 ‘거란족, 말갈족, 돌궐족’이 지금은 사라진 이유는 뭘까?

☞ 국어사전에서 외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2년~2004년까지 신어 조사 결과>

어종 구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 한자어	고유어 + 외래어	한자어 + 외래어	고유어 + 한자어+ 외래어
신조어 수 (1,690)	78	443	608	195	77	276	13
백분율 (100%)	4.6	26.2	37.0	11.5	4.6	16.3	0.8

2. 일본어로 가득한 우리말

● 창씨개명, 조선어 사용 금지, 조선어학회 탄압 사전 등과 같은 일체의 조선어 억압 정책은 민족 말살 정책의 핵심이었다.

☞ 생활 속의 일본어 찌꺼기

가라(空, から)→가짜

가오(顔, かお)→체면



구사리(腐り, くさり)→핀잔
 나라비(並び, ならび)→줄 서기
 사라(皿, さら)→
 소테나시(袖無し, そでなし)→
 와쿠(杵, わく)→
 유도리(←ゆとり)→
 후카시(吹かし, ふかし)→
 다이(臺, だい)→
 시다바리(←下張り, したばり)→
 노가다(←土方, どかた)→

기스(←傷, きず)→흠
 빠끼(←引き, ひき)→호객(꾼)
 쇼부(勝負, しょうぶ)→
 엔꼬(えんこ)→
 우와기(上衣, うわぎ)→
 지라시(散らし, ちらし)→
 겐세이(牽制, けんせい)→
 에리(襟, えり)→
 분빠이(分配) →

☞ 일본을 거쳐 들어온 서구 외래어

뽕끼(네.pek)→페인트
 공구리(concrete)→양회 반죽
 다스(dozen)→
 도랏쿠(truck)→
 밤바(bumper)→
 빠꾸(back)→
 조끼(jug)→

엑키스(extract)→진액
 마후라(muffler)→소음기/목도리
 다시(dash)→
 바케쓰(bucket)→
 밧테리(battery)→
 샷시(sash)→
 화이바(fiber)→

☞ 일본에서 만든 영어 약어

난닝구(running shirt)→
 뽕꾸(puncture)→
 오바(overcoat)→
 뽕뽕(sandpaper)→
 리모컨(remote control)→

도란스(transformer)→
 스텡(stainless)→
 미손(transmission)→
 레미콘(ready-mixed concrete)→
 쇼마(shock absorber)→

☞ 일본에서 직접 만든 영어

올드미스(old miss)→
 백미러(back mirror)→

리어카(rear car)→



☞ 일본어와 서구 외래어가 뒤섞인 말

가라오케[空(から)orchestra]→ 한쓰봉[半(はん)jupon]→
 가라쿠[空(から)cushion]→

☞ 우리말과 일본어가 뒤섞인 말

닭도리탕[-鳥(とり)湯]→ 비까번쩍하다(ぴか-----)→
 뽀록나다[←襤褸(ぼろ)--]→ 왔다리 갔다리(-たり -たり)→
 곤색[紺(こん)色]→ 만땅(滿tank)→
 소라색[空(そら)色]→

☞ 생활 속의 일본 한자어

가봉(假縫)→ 시침질	거래선(去來先)→ 거래처
견양(見様)→ 본(보기)	견출지(見出紙)→ 찾음표
고참(古參)→	과물(果物)→
구보(驅步)→	기라성(綺羅星)→
노견(路肩)→	대절(貸切)→
망년회(忘年會)→	사양(仕様)→
수순(手順)→	수출고(輸出高)→
십팔번(十八番)→	양생(養生)→
용달(用達)→	익일(翌日)→
제전(祭典)→	하구언(河口堰)→

☞ 본래 쓰던 우리 한자어를 밀어낸 일본식 한자어들

왕복(往復)→ 내왕(來往)	변명(辨明)→ 발명(發明)
미인(美人)→	여비(旅費)→
처방전(處方箋)→	출산(出産)→
견문(見聞)→	화장(化粧)→
결혼(結婚)→	약속(約束)→
당직(堂直)/숙직(宿直)→	



3. 국어를 홀대하고 외국어를 중시하는 언어 사대주의

- 입시나 취직에 국어 능력보다 영어 능력을 더 중요시한다.
 - ☞ 국어 잘하는 사람과 영어 잘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누가 더 일을 잘할까?

- 국어는 맞춤법에 맞든 틀리든 신경도 안 쓰면서 영어는 조금만 애매해도 사전을 찾아본다.
 - ☞ ‘부서지다’와 ‘부숴지다’, ‘부딪히다’와 ‘부딪치다’, ‘헛갈리다’와 ‘헛갈리다’ 중에 뭐가 맞을까?
 - ☞ ‘wednesday’와 ‘wendesday’, ‘tomorrow’와 ‘tomorrow’ 중에 뭐가 맞을까?

- 전국 곳곳에 영어마을이 생기고, 일부 지역에서는 영어 공용어화가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 ☞ 영어 잘하는 내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유창했던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
 - ☞ 필리핀인이나 인도인들은 영어를 못해서 못살고, 일본인들은 영어를 잘해서 잘살까?
 - ☞ 아래 두 시를 비교해 보라.
 - (1) 동짓날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밑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얼운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꺾리라
 - (2) 절취동지야반강(截取冬之夜半强) / 춘풍피리굴번장(春風被裏屈幡藏)
 유등무월랑래석(有燈無月郎來夕) / 곡곡포서촌촌장(曲曲포舒寸寸長)
 - ☞ 아래 노래는 가요인가, 팝송인가?
 나를 닮아 가슴 안에 가득 차 커져 가는 Innocent.
 불꽃은 밝게 타오르게, 마지막이 찬란한 노을처럼.
 (I'm) waiting for Rising sun.
 Now, burn my eyes.
 Sun comes up, blowing the fog never lies, to be your mind.
 Got to be a true.



4. 국어는 촌스럽고 영어는 세련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언어 권위주의

- 새로 생기는 직업 이름, 특히 전문직은 거의 서구 외래어이다.
 - ☞ 커플매니저, 파티플래너, 웹디자이너, 컨설턴트, 헤드헌터, 소믈리에 (프.sommelier), 파티셰(프.patisserie), 바리스타(이.Barista) 등
- 기업이나 지역 이름 홍보 문구는 죄다 영어를 쓴다.
 - ☞ 하이 서울 페스티벌, 브라보 유어 라이프 삼성, 원더풀 데이 케이티, 오케이 에스케이, 라이프 이즈 굿 엘지
- 일상생활에서도 영어에 대해 우리말을, 한자어에 대해 고유어를 촌스럽거나 격이 떨어지는 말로 생각하는 일이 많다.
 - ☞ 부츠-장화, 와인-포도주, 헤어숍-미용실,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 ☞ 예절-에티켓, 성-섹스, 알몸-nud, 뜯소문-루머, 서명-사인, 간첩-스파이, 굴-터널, 사진기-카메라, 열쇠-키, 천막-텐트, 허리띠-벨트, 목도리-머플러, 머리띠-헤어밴드, 치수-사이즈, 공책-노트, 병따개-오프너, 공-볼, 붙다/합격하다-패스하다
 - ☞ 선거 때는 이름을 한글만 쓰다가 당선만 되면 한자를 고집하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 공공기관의 강당에 걸려 있는 전임 기관장 사진의 이름을 한글로 적은 곳은 몇 곳이나 될까?

5. 언어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우리말 다듬기

-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씀으로써 언어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
 - ☞ 로드맵, 태스크포스, 아젠더, 마스터플랜
-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외래어를 알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낭비다.
 - ☞ “정부는 국토 균형 개발 아젠더를 기획할 태스크포스를 구축하여 5년 간



의 로드맵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다음 달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뉴스 보도를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6. 우리말 다듬기의 방법

- 기존 우리말 다듬기는 질보다 양에 치우쳤다.
 - ☞ 전문가(그것도 국어학자 중심)들이 모여 하향식으로 순화안을 마련하여, 일반 언중들의 언어 의식에 합치되는 순화어를 만들어내지 못함.
 - ☞ 이미 널리 쓰여 굳어져 버린 후에야 순화안을 마련하는 바람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언중들의 반감만 사는 경우가 많았음.
 - ☞ 홍보가 부족하여 좋은 순화어도 묻히고 마는 경우가 많았음.

자외선(紫外線)→넘보라살	용적(容積)→담이
월례회(月例會)→달모꼬지	분배(分配)→노느매기
일식(日蝕)→해가림	월식(月蝕)→달가림

-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는 상향식, 쌍방향식, 자율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순화 방식을 모색한 결과임. 양보다 질을 추구. (2004년 7월에 시작한 이후, 2007년 8월 23일 현재 146개를 다듬음.)

☞ 웰빙→참살이	이모티콘→그림말
올인→다걸기	콘텐츠→꾸림정보
네티즌→누리꾼	슬로푸드→여유식
퀵서비스→늘찬배달	컬러링→멋울림
포스트잇→붙임쪽지	클린센터→청백리마당
블로그→누리사랑방	커플매니저→새들이
형그리정신→맨주먹정신	투잡→겹벌이
메신저→쪽지창	터프가이→쾌남아
드레싱→맛깔장	후카시→폼재기
후랏쿠→어중치기	그룹홈→자활꿈터
다크서클→눈그늘	매치업→맞대결



뉴타운→새누리촌

스카이라운지→하늘쉼터

유시시→손수제작물

스터디셀러→늘사랑상품

타임캡슐→기억상자

조리→가락신

뷰파인더→보기창

타임서비스→반짝할인

언론플레이→여론몰이

핫팬츠→한뼘바지

웹서핑→누리검색

핸즈프리→맨손통화기

위터파크→물놀이공원

팬미팅→다솜모임

- ☞ 대중주의에 치우친 것이라는 비판, 순화 결과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므로, 더욱 세련되고 치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7.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

- 우리말 다듬기의 핵심은 낱말을 고쳐 쓰는 것이지만 여기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 일본어, 일본식 영어, 일본식 한자어 등은 역사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나 우리말 다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 사회 각 분야, 특히 공직 분야에서 여전히 어렵거나 낯선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 금번(今番)→이번

나대지(裸垞地)→

매물(賣物)→

사양(仕樣)→

시건(施鍵)→

당해(當該)→

금회(今回)→

부의(附議)→

멸실(滅失)→

삭도(索道)→

해태(懈怠)→

내지(乃至)→

- ☞ ‘촉수엄금(觸手嚴禁)’과 ‘엄금촉수’와 ‘손대지 마시오.’ 중에 뭐가 좋을까?



- 아직 정착되지 않은 서구 외래어는 빨리 대처하면 쉽게 다듬은 말을 널리 퍼뜨릴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어 약어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 국가 기관의 영어 약자 사랑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BK21, FTA

DTI(Debt To Income Ratio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언론 기관의 영어 약자 사랑

DJ, YS, JP, MH, MB, MK, MJ

KBS, MBC, SBS, EBS, GTB, KBC, TBC, TJB, JTV, JIBS

☞ 경제계의 영어 약자 사랑

KB, NH, SK, LG, KT, KT&G

☞ 연예계의 영어 약자 사랑

HOT, SES, SS501

☞ 국민들의 영어 약자 사랑

UCC, DMB, GPS, P to P, PB 센터, MP3, CEO, COO, CFO, 셀카, 디캠, 디카

- 외국어투 문장은 소리 없이 우리말을 갉아먹고 있다.

☞ 영어 번역투의 문장이 널리 쓰이고 있다.

- 1) 글 쓰는 이의 평소 생활 자세의 진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글 쓰는 이는 평소에 진지한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한다.[*‘It is not too much to…’의 영향]
- 2)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about’의 영향]
- 3) 우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be located in’의 영향]
- 4) 진지하고도 솔직한 설명이 있었다.→진지하고 솔직하게 설명했다.[*‘There is…’로 시작하는 문장의 영향]
- 5)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2조) → 모든 국민에게는 신체의 자유가 있다.[*‘가지다’는 ‘have’의 영향. We have much rain.]



- 6) 공격 찬스가 주어지면 기민하게 행동해야 합니다.→공격할 기회가 생기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주어지다’는 ‘be given’의 영향]
- 7) 인간은 환경에 의하여 성격이 이루어진다.→인간의 성격은 환경이 형성한다.[*‘이루어지다’는 ‘be achieved’의 영향]
- 8) 새로운 경제팀에는 유연한 정책 대응 자세가 요구된다.→새로운 경제부처들에는 유연한 정책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요구되다’는 ‘be required of’의 영향]
- 9)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으로부터’는 ‘from’의 영향]
- 10) 지금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곧 열차가 도착합니다.[*‘~고 있다’는 ‘be ~ing’의 영향]
- 11) 좋은 아침(입니다)!→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은 ‘Good morning!’을 잘못 이해한 결과임]

☞ 일본어투의 문장도 널리 쓰이고 있다.

- 1) 그런 행위는 범죄에 다름 아닙니다.→그런 행위는 범죄와 다름이 없습니다.[*‘-에 다름 아니다’는 일본어식 표현임]
- 2) 정보의 관리, 문서 처리, 회계 처리 등에 있어서 컴퓨터가 활용된다.→정보의 관리, ~ 회계 처리 등의 일을 할 때에 컴퓨터가 활용된다.[*‘-에 있어서’는 일본어식 표현임]
- 3)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군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군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주어적 속격 ‘의’는 일본어에서 주로 쓰는 표현임]
-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 요령 → 국기를 달고 관리하는 요령[*목적어적 속격 ‘의’는 일본어에서 주로 쓰는 표현임]
- 5) 효과적인 읽기의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고등국어 교과서)→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의’의 남용은 일본어의 영향]
- 6)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고등국어)



교과서)→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풍토이다.[*~이 필요로 하다'는 일본어투]

7)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임에 틀림없다.→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임이 틀림없다[*~임에 틀림없다'는 일본어투]

8)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1항)→모든 국민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이 법률대로 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에 의하여'는 낡은 한문투.]

- 통신 공간의 익명성은 비어, 속어, 은어, 욕설 따위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 ☞ 무조건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담탱이, 중딩, 고딩, 노딩(늙은 사람), 냉무(내용 없음), 감사해여, 일거써(읽었어)

- 물질만능주의와 기득권을 옹호하는 표현들이 보편타당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 ☞ 가정부(家政婦)→가사 도우미 간호원(看護員)→간호사(看護師)
- 살색→살구색 핫팬츠→한뼘바지
- 터프가이→쾌남아 섹시미→관능미/요염함/매력적
- 외국인 노동자 → 이주 노동자
- 정신대 할머니 → 일본군 성폭력 피해 여성
- 미망인(未亡人) 여의사·여선생·여기자·여대생 따위
- ☞ 미모의 명문대 의대생 살해 사건 / 60대 할머니 살해 사건



■ 정 답

☞ 북한에서 다듬은 축구 용어

헤딩→ 머리받기

슛→ 차넣기

프리킥→ 벌차기

패스→ 연락

☞ 북한에서 다듬은 말

노크→ 손기척

대합실→ 기다림칸

주스→ (찬)단물

카스테라→ 설기과자

드라이크리닝→ 마른빨래

원피스→ 달린옷

호출기→ 주머니종

내해(内海)→안바다

☞ 생활 속의 일본어 찌꺼기

가라(空, から)→ 가짜

구사리(腐り, くさり)→ 핀잔

나라비(並び, ならび)→ 줄 서기

사라(皿, さら)→ 접시/그릇

소테나시(袖無し, そでなし)→ 민소매

와쿠(枳, わく)→ 틀

유도리(←ゆとり)→ 유연함/융통성

후카시(吹かし, ふかし)→ 품재기

다이(臺, だい)→ 대/판

시다마리(←下張り, したばり)→ 부하

노가다(←土方, どかた)→ 막노동/공사판 노동자

가오(顔, かお)→ 체면

기스(←傷, きず)→ 흠

빼끼(←引き, ひき)→ 호객(꾼)

쇼부(勝負, しょうぶ)→ 결판/승부

엔꼬(えんこ)→ 바닥

우와기(上衣, うわぎ)→ 윗옷/상의

지라시(散らし, ちらし)→ 전단지

켄세이(牽制, けんせい)→ 방해/수비

에리(襟, えり)→ 깃

분빠이(分配) → 노노매기

☞ 일본을 거쳐 들어온 서구 외래어

뽕끼(네.pек)→페인트

공구리(concrete)→양회 반죽

다스(dozen)→ 타(打)/열두 개 들이

도랏쿠(truck)→ 화물차/트럭

밤바(bumper)→ 범퍼/완충기

엑키스(extract)→진액

마후라(muffler)→소음기/목도리

다시(dash)→ 줄표/대시

마케쓰(bucket)→ 들통/양동이

밧테리(battery)→ 건전지/배터리



빠꾸(back)→ 후진/뒤

샷시(sash)→ 새시/대

조끼(jug)→ 잔

화이버(fiber)→ 안전모

☞ 일본에서 만든 영어 약어

난닝구(running shirt)→ 러닝셔츠

도란스(transformer)→ 변압기

빵꾸(puncture)→ 구멍/펑크

스텝(stainless)→ 안녹쇠/스테인리스

오바(overcoat)→ 외투/오버코트

미손(transmission)→ 변속기

삐삐(sandpaper)→ 사포/속새

레미콘(ready-mixed concrete)→ 회반죽 차

리모컨(remote control)→원격 조종기

쇼바(shock absorber)→충격 흡수 장치

☞ 일본에서 직접 만든 영어

올드미스(old miss)→ 노처녀

리야카(rear car)→ 손수레

백미러(back mirror)→ 뒷거울

☞ 일본어와 서구 외래어가 뒤섞인 말

가라오케[空(から)orchestra]→ 녹음 반주/노래방

한쓰봉[半(はん)jupon]→반바지

가라쿠[空(から)cushion]→ 민쿠션

☞ 우리말과 일본어가 뒤섞인 말

닭도리탕[-鳥(とり)湯]→ 닭볶음탕

비까번쩍하다(びか----)→번쩍번쩍하다

뽀록나다[←襪襦(ぼろ)--]→ 들통나다

왔다리 갔다리(-たり -たり)→ 왔다갔다

곤색[紺(こん)色]→ 감색/진남색

만땅(滿tank)→ 가득/가득 채움

소라색[空(そら)色]→하늘색

☞ 생활 속의 일본 한자어

가봉(假縫)→ 시침질

거래선(去來先)→ 거래처

견양(見様)→ 본(보기)

견출지(見出紙)→ 찾음표

고참(古參)→ 선임

과물(果物)→ 과일



구보(驅步)→ 달리기	기라성(綺羅星)→ 빛나는 별/최고
노견(路肩)→ 갓길	대절(貸切)→ 전세
망년회(忘年會)→ 송년회	사양(仕樣)→ 설명
수순(手順)→ 순서/차례	수출고(輸出高)→ 수출량
십팔번(十八番)→ 애창곡/단골노래	양생(養生)→ 굳히기
용달(用達)→ 심부름	익일(翌日)→ 이튿날/내일
제전(祭典)→ 잔치	하구언(河口堰)→ 강어귀 둑

☞ 본래 쓰던 우리 한자어를 밀어낸 일본식 한자어들

왕복(往復)→ 내왕(來往)	변명(辨明)→ 발명(發明)
미인(美人)→ 일색(一色)	여비(旅費)→ 노자(路資)/노잣돈
처방전(處方箋)→ 방문(方文)/약방문	출산(出產)→ 해산(解產)
견문(見聞)→ 문견(聞見)	화장(化粧)→ 단장(丹粧)
결혼(結婚)→ 혼인(婚姻)	약속(約束)→ 언약(言約)
당직(堂直)/숙직(宿直)→ 입직(入直)	

☞ 금번(今番)→ 이번

나대지(裸垈地)→ 빈 집터	금회(今回)→ 이번 회
매물(賣物)→ 팔것	부의(附議)→ 회의에 부침
사양(仕樣)→ 설명/설명서/품목	멸실(滅失)→ 없어짐
시건(施鍵)→ 잠금	삭도(索道)→ 밧줄/하늘 찾길/케이블카
당해(當該)→ 해당(該當)/그	해태(懈怠)→ 게으름
	내지(乃至)→ ~부터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교수 화법

지 연 숙*

목표

1.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할 수 있다.
2. 말하기/ 듣기 기술을 훈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 의사소통의 개념

인간 의사소통이란 언어적 상징체를 중심으로 서로 정보와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2. 의사소통의 성격

- 1)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 2) 의사소통은 화행 목적과 관계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 3) 의사소통은 상황 의존성을 지닌다.
- 4) 의사소통은 참여자들의 상호 교섭 과정이다.

* 고려대 국어소통능력연구센터



3. 의사소통 능력

- 1) 감정이입 능력
- 2) 객관적 관점 확보 능력
- 3) 관계 규범에 대한 민감도
- 4) 상황에 대한 지식 정도
- 5) 상위 인지 능력
- 6) 상황 운영의 전략
- 7) 효과적 듣기 기술
- 8) 말하기 불안 대처 기술

4. 의사소통 원리

- 1) 협력의 원리
 -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 태도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 2)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리
 -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라.
 -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어라.
 - 항상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라.
- 3) 공손성 원리
 - 요령의 격률(tact maxim)
 - 관용의 격률(generosity maxim)
 - 찬동의 격률(approbation maxim)
 - 겸양의 격률(modesty maxim)
 - 동의를 격률(agreement maxim)



5. 의사소통의 형태

- 1) 공적 / 사적 의사소통
- 2) 일방적 / 쌍방적 의사소통
- 3) 언어적 / 비언어적 의사소통

6. 효과적인 구두 의사소통

1) 듣기

유사청취와 진정한 청취

적극적으로 듣기 (바꾸어 말하기, 명료화하기, 피드백)

공감하며 듣기

개방적으로 듣기

인식하면서 듣기

2) 말하기

메시지 표현 (자아 인식, 발화 맥락과 상황 고려, 청자 파악, 목적과 주제 정리, 자료 수집, 내용 조직, 표현 전달)

자아 표현 (사회적 자아, 문화적 자아, 개인적 자아)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메시지 전략

- 일반적인 낙인
- 빈정거림
- 과거의 일을 들춤
- 부정적인 비교
- 판단 (너는 말이야 메시지)
- 위협

메시지 표현 전달의 방법

- 상황을 통제하라



- 발음을 정확히 하라
-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서 말하라
- 어법에 맞게 말하라
- 간결한 문장으로 말하라
- 모든 이용 가능한 단서를 활용하라
- 개방적인 태도로 전달하라
- 상황에 맞게 메시지 전달 방법을 선택하라

개인적 자아의 유형

열린 자아, 가려진 자아, 숨겨진 자아, 미지의 자아

- 열린 자아 :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진 자아
- 가려진 자아 : 자신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진 자아
- 숨겨진 자아 : 자신에게는 알려졌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자아
- 미지의 자아 :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자아

3)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능 : 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완, 강화.

언어적 의사소통 → 청각적 메시지. 문화적, 지식적인 성격.

비언어적 의사소통 → 시각적 메시지. 무의식적, 본능적 성격.

유형 : 침묵, 준언어(음조, 강세, 말의 빠르기, 목소리 크기, 억양), 몸짓 언어(시선, 표정, 제스처, 자세, 신체접촉) 공간 언어



공적 말하기(프레젠테이션) 자료

공직윤리 교육

반부패·청렴교육 강사
김준식
투명사회운동본부장

국가청렴위원회 적발 및 신고 통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행위 유형별

'04년-'06년	합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품 향응 수수	경조금품 위반	기타
	424	13	3	397	6	5
현장적발	164	3	-	160	-	1 (금품제공금지)
신고접수	260	10	3	237	6	4 (이해관계직무회피, 특혜배제 등)

93.6%가 금품 향응 수수 위반



행동강령 위반, 금품 등 수수 절대적 !!!

청렴위 적발/신고
각 기관별 위반행위

424건 중 397건 (93.6%)가 금품 등 수수
2,463건 중 1,818건 (73.8%)가 금품 등 수수

공직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인사라는 명목 하에 돈 봉투를,
성의라는 미명 하에 술 접대를,
감사라는 포장 하에 선물보따리를
받고 있는 공직자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 입증

행동강령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준칙. 위반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받게 됨

공무원행동강령이란 ?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준칙
대통령령 ('03.5.19) 으로 제정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수수 금지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 직무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금품 등 수수 금지
- ※ 향응 :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
 ※ 선물 ; 난, 화환 등 포함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 기준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06.12.18)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 향응 수수	수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 위법 부당 (미처분)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 위법 부당 (처분)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조사, 수사, 단속 등 각 기관 업무 특성에 따라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



- ✓ 남들도 모두 이 정도는 한다
- ✓ 상대방의 동기는 친절이나 우정의 표시로서 순수한 것이다
- ✓ 선물은 우호적인 관계에 도움이 된다
- ✓ 공무원은 봉급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성의는 받아도 무방하다

더 이상
이런 변명이
용납되지 않음 !!!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것을 주었을까?”

투명지수 1위 국가 핀란드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따뜻한 맥주와 차가운 샌드위치만 가능”



**‘자율 실천 투명성’
공직윤리를 바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국가 건설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화와 인간관계

전 정 미*

1. 의사소통과 대화

1.1. 말하기 강좌는 왜 필요한가?

인간은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말하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성장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말을 배울 수 있다. 첫 언어인 울음으로 생리적 욕구를 표출하면서 점차 높은 단계로 언어의 수준이 달라져 간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욕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말하기 능력도 점차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부족한 업무능력이 국어 관련 능력이고, 그 가운데서도 ‘표현능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말하기 능력은 자연스럽게 배운 절차를 따라 나오는 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1977년도에 나온 상식백과라는 책에 의하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1위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하기가 누구에게나 두려운 요소라는 것은 말하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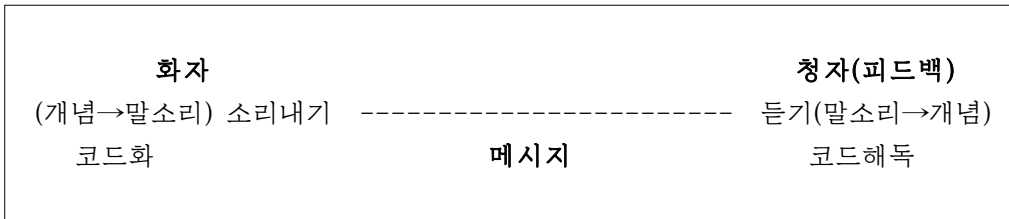
*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1.2. 의사소통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화자**는 **청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어기호라는 일종의 코드로 바꾸는데, 이것을 코드화(encode)라고 한다. 한편 청자는 코드를 해독함으로 전달된 내용을 이해한다. 이것을 코드해독(decode)이라 한다. 그러므로 코드화는 개념을 말소리로 바꾸는 것이고 코드해독은 말소리를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때 전달되는 언어기호의 연속체를 **메시지(message)**라고 하고, 화자가 코드화한 메시지가 전달되어 청자가 코드 해독하는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1> 의사소통의 과정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중심으로 서로 정보와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의사소통은 일방적인 의사 전달과 이해 과정이 아니라 상대와 더불어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다.

예 아내: 여보.

남편: 응?

아내: 이번 휴가는 우리 좀 푹 쉬었다 싶게 좀 쉬어 봐요.

남편: 좋지.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동안 너무 일에 시달렸어.

아내: 우리, 이번 휴가는 일상을 좀 벗어나서 동남아 여행이라도 다녀와요.

남편: 동남아 여행? 그게 쉬는 거야? 괜히 돈 버리고 시간 쓰고 몸만



피곤하지. 작년에도 휴가 갔다가 고생만 잔뜩 했잖아. 이번 휴가만큼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좀 쉬자고. 난 정말 좀 쉬어야 해. 이러다 쓰러지겠어.

아내: 당신하고는 정말 대화가 안 돼요.

(이창덕 외, <삶과 화법> 중에서)

의사소통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축적해 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인류 문화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 더욱이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1.3.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의사소통의 방법이란 메시지가 청자에게 전달되는 통로나 수단과 같은 매개체를 말한다.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하나의 매개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매개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인간이 지닌 오관을 기초로 한다.

(1) 청각 의존적인 의사소통 방법

- ① 말소리
- ② 심리적 반향음
- ③ 음향효과
- ④ 목소리 조절

(2) 시각 의존적인 의사소통의 방법

- ① 문자
- ② 상징
- ③ 수화

(3) 촉각 의존적인 의사소통의 방법

- ① 악수나 포옹
- ② 점자
- ③ 태도마



1.4. 대화의 정의를 알아보자.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대화를 ‘서로 마주 대하여 주고받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화란 **일상생활에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대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적인 언어활동**을 말하며,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활동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두 사람 이상의 대화 참여자가 자유로이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바꾸면서 집약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대화이다.

1.5. 대화의 요소는 무엇인가?

대화도 위의 <그림 1>과 같은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누가	-	화자
누구에게	-	청자
무엇을	-	메시지

1.6.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는가?

대화는 화자와 청자가 언어를 중심으로 서로 정보와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는 대화를 수행하는 주체이다. 화자는 대화의 필요를 느끼고 대화를 위한 경로를 선택하고 자신의 기억이나 과거의 경험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구성한다. 청자는 전달된 기호를 해독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이나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고, 정보를 저장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보낸다.

기본적으로 화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고, 청자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지만, 이 역할은 고정적으로 결정된 역할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대화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화제를 계속 이어감과 동시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응대어를 구사하여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토대로 하여,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항상 순환되고 있다. 따라서



대화에서 말하며 듣고, 들으며 말하는 역할이 계속 바뀐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대화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중심적 욕구에 빠지기가 쉽다. 화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와 청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1.7. 대화 참여자의 자기중심적 욕구란 무엇인가?

대화 참여자는 화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와 청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말을 하는 화자는 가능한 한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말하는 경제성의 원리를 추구하며, 어떻게 말하든지 상대방이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비해서 청자가 되면 뜻을 식별해야 하고, 의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구별성의 원리를 추구하며 어떻게든 상대방이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화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려고 하고, 청자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

이러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립은 대화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 따라서 어떻게 자기중심적이 되려고 하는 욕구를 조절해서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느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화법에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가장 이상적인 화자는 청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화자이고, 가장 이상적인 청자는 화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청자이다.

1.8. 메시지가 찰흙이라고?

메시지는 말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내용을 말한다. 위의 <그림 1>에서 메시지는 화자에게서 청자에게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대상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메시지를 통해 파악하는 의미는 과거의 경험과 그 정보를 어떻게 통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정보는 벽돌처럼 단단한 모습으로 고정되어서 청자에게도 그 모습대로 전달되는 요소가 아니고 청자의 필요나 욕구에 따라 찰흙과 같이 모양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메시지라도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나 과거의 경험 등에 따라 달리 전달된다.



대화를 하면서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대화를 주사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증상에 대해서 처방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투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메시지는 주사약과는 달라서 말의 효과는 화자가 무엇을 말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메시지를 구성하기 전에 생각해 보았나요?

☞ 메시지는 고정된 ‘벽돌’이 아니라 유동적인 ‘찰흙’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작품이 빚어질 수 있다. 메시지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지식과 청자에 대한 지식,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Reardon 1987).

2. 이상적인 대화 참여자 되기

2.1. 대화와 인간관계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똑같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모두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음성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눈빛, 손짓, 목소리, 자세 등과 같은 요소들도 메시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내가 신호를 구성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이 신호를 구성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신호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를 실천하는 것이 대화를 통해 인간관계의 측면을 향상시키는 바탕이 된다.



2.2. 대화 상대방과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남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영역과 다른 사람과 일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대관계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립을 피해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다가도 자기만의 독립된 자리를 필요로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양면성이 대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자의 관점을 고려하고, 청자의 관점을 고려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독립을 유지하려는 사람에게 여러 차례 친절한 말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움츠려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대방이 자기의 독립적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유대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한 정보가 없어도 일상적인 이야기나 잡담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 인간의 두 가지 측면: 독립과 유대관계
- 인간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거리: 심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

2.3.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대화

말은 행동과 같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말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 심리적인 상태, 또는 서로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너 두고 봐.”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아도 왜 그런지 불안하고 기분도 불편해 진다. 이와 같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 모든 사람이 말의 위력을 알고 또 말을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과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기대한다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말에서부터 시작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칭찬할 것을 찾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1) 존중의 대화 - 정중어법

정중어법이란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주고받는 말의 태도를 말한다. 공손하다는 것은 남에 대해 너그럽고, 겸손하고, 동정적이라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정중어법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상대방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Leech, 1983).

종 류		내 용
부담과 혜택	요령의 격률	청자에게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대화
	관용의 격률	화자에게 부담은 최대화 / 혜택은 최소화
비난과 칭찬	찬동의 격률	청자에게 비난은 최소화 / 칭찬은 최대화
	겸양의 격률	화자에게 비난은 최대화 / 칭찬은 최소화
	동의를 격률	상대방과 불일치하는 표현은 최소화 상대방과 일치하는 표현은 최대화

예

(1) ㄱ. 지금 좀 만납시다.

ㄴ. 혹시 지금 시간 좀 있으십니까?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2) A: 김 계장은 언제나 성실하군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가.

B: 아닙니다. 집이 멀어서 서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A: 여보, 우리 이번 연말에는 근사한 온천여행이나 갔다 올까요?

B: 온천? 음.. 좋지요. 몸에도 좋구. 그런데 연말연시에 아무래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텐데 우리라도 좀 차분하게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요?

A: 아, 그러네요. 연말 기분에 내가 너무 우리 생각만 했나 봐요.

(2) 배려의 대화 - 나-전달법

나-전달법이란 주어를 일인칭인 ‘나’로 시작하여 이야기하는 대화 방법이다. 대부분 대화를 가로막는 대화의 걸림돌들은 주어가 ‘너’로 시작하는 ‘너 전달법’이다.

☐ **자녀 : 엄마, 나 이상하게 요즘 자꾸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요.**

명령 : 너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한다.

경고 : 너 그렇게 요령만 부리다 한 번 제대로 혼난다?

충고 : 너 그러게 운동도 몸 상태 봐가며 하라고 그랬지?

훈계 : 너 아무리 피곤해도 해야 할 일을 먼저 할 줄 알아야지.

설득 : 너의 문제점은 공부를 싫어하시는 거야.

비평 : 너 그런 식으로 지내면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니?

분석 : 너 어제 또 운동했구나. 그러니까 피곤하지요.

동정 : 저런, 너무 안됐다. 불쌍한 것. 쫓쫓쫓...

캐묻기 : 왜? 어디 많이 아픈 거 아냐? 너 뭐 문제 있지?

‘너’가 주어가 되는 말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비난의 느낌이 드는 말보다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특히 나 전달법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학생이나 자녀와 이야기할 때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다.



- 예) 부모가 피곤한 상태에서, 자녀가 계속 놀아주기를 바라는 상황
 “내가 너무 피곤해서 놀아줄 수 없구나.” (아빠는 피곤하시다)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니?” (나는 나쁜 아이다)

나-전달법을 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ㄱ. 비난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 예) 네 옷이 땅바닥에 있구나. (○)
 네 방은 왜 늘 이 모양이야? 이게 사람 방이니? (×)

ㄴ. 문제가 된 상황으로 인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 예) 나는 옷장을 정리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단다.

ㄷ. 그 결과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 예) 나는 화가 난단다. (또는 힘이 든단다).

나-전달법은 ‘너’의 문제를 ‘나’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심정이나 상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 예) 토요일 오후,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고 외출을 하였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어두워져서 집에 돌아왔다. 현관에 들어서 는 아내에게 남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ㄱ. 남편: 당신 뭐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점심 한 끼 먹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하여간 나가면 들어올 생각을 안 하지.

아내: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그러는 당신은 안 늦어? 허구한 날 늦으면서. 참나.

ㄴ. 남편: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이 늦게 오니까(상대방의 행동) 걱정이 되잖아. (나의 느낌). 아이들도 엄마만 찾아서 힘들었던 말이



야.(결과)

아내: 걱정했어? 친구들 만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연락할 생각을 못했네. 걱정할 줄은 몰랐어. 미리 연락을 할 걸 그랬네. 아이들하고 많이 힘들었지?

(3) 공감의 대화 - 공감적 경청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난 직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의 약 반 정도만 기억한다. 그리고 8시간 내에 자기가 들은 것의 1/3에서 1/2을 잊어버린다. 두 달 후에는 들은 것의 25%만 기억한다. 미국인은 평균 하루의 50~80%를 듣는 데 쓰지만 그 중 반만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중에서 25%만 이해하고, 기억은 그보다 더 적게 한다고 한다. 듣기는 숨 쉬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듣기도 말하기, 쓰기, 읽기처럼 기술이 필요하고, 학습해야 한다.

다음은 듣기의 다섯 단계이다.

- ㄱ.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전혀 듣지 않는다.
- ㄴ. 경청의 표지를 사용하면서 듣는 척만 한다.
- ㄷ. 선택적으로 듣는 것으로, 대화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듣는다.
- ㄹ. 신중한 경청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에 충력을 기울여서 듣는다.
- ㅁ. 가장 고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인 공감적 경청을 한다. **공감적 경청은 먼저 경청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화 방법이다.**

공감적 경청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많이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주는 것이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곧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눈과 가슴으로 듣게 된다.



예

아이: 엄마, 나 피곤하고 졸려요.

엄마: 너 숙제부터 해.

(너 그래도 숙제 하고 자./ 밖에서 그렇게 놀기만 하니까 그렇지.....)

아이: 엄마는 나보다 숙제가 중요해요?

(누가 안 한대요?/ 내가 언제 놀기만 했다고 그래요?))

공감적 경청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떤 메시지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단지 상대방이 말한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확인하는 언어적인 반응만을 하면 된다.

예

아이: 엄마, 나 피곤하고 졸려요.

엄마: 그래, 우리 철민이가 피곤하고 졸리는구나.

아이: 네, 오늘 야구를 해서 그런가 봐요.

예

아이: 엄마, 나 꼭 주사 맞아야 해요?

엄마: 주사가 아플까 봐 겁이 나는구나.

아이: 네, 정말 그래요. 주사 많이 아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감적 경청을 나타내는 표지는 어말에 붙는 어미 ‘-구나’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구나’는 대화체에서 화자 중심적 기능을 가지는데, 이것은 청자에 대하여 말하는 상황에서도 화자 중심적 관점으로 말하기 때문에 청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표지가 된다. 청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상대방의 체면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어 정중어법을 준수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구나’를 사용하는 것은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정중어법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4) 칭찬의 대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칭찬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말하기이다. 그러나 칭찬을 잘못하면 아부로 비춰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상대방을 놀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칭찬을 할 때도 자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칭찬을 잘하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 순신: 짝보라 했더니?

짝보: 자.. 장군. 저같이 천한 놈의 이름을 어찌?

순신: 너는 전라 좌수영 최고의 사수가 아니냐? 현대 어찌 내 너의 이름을 모르겠느냐?

짝보: (머리를 굽적이며 흐뭇해한다)

(TV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중에서)

칭찬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나가사키 가즈노리(2002, 2004)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마법이다. 칭찬과 따뜻한 말에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신비한 마력이 숨어 있다. 칭찬은 자신감과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상대방을 성장시키려면 칭찬을 통해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격려를 통해 낙담함과 맞서 싸우게 해 주며, 용원을 보내 성공했을 때의 기쁨을 늘 맛보게 해 주어야 한다.

둘째, 칭찬은 용기와 열정을 가져온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라는 느낌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기가 나게 하고, 의욕적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하는 힘을 준다.

셋째, 칭찬은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화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그 동안 보이지 않던 다른 측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깊은 안목과 넓은 시야가 생긴다. 또한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을 진심으로 칭찬하게 된다.

넷째, 칭찬은 칭찬하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마음에 여유와 너그러움이 생기고, 나의 칭찬에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즐거워진다. 또한 나의 칭찬으로 상대방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행복하다. 칭찬을 통해 서로 행복해 질 수 있다.

칭찬은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용기와 열정을 안겨주고, 자신에게는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안겨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칭찬을 잘하는 것일까?

첫째,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칭찬을 할 때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아부로 느껴지기 쉽다. 상대방의 도움을 기대하며 나타나는 입에 발린 칭찬은 서로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칭찬을 할 때는 성과, 능력과 자질, 태도, 행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칭찬하여야 한다.

둘째, 진심을 담아 과장되지 않게 칭찬해야 한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 이상의 과장된 표현으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좋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신뢰를 얻지 못한다. “선생님의 오늘 강연은 세계 최고의 강연이었습니다.”보다는 “설득력 있고 공감이가는 이야기였습니다.”가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칭찬은 업적에 대한 거창한 칭송이나 화려한 수사,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인정과 친근하고 따뜻한 격려에 감동받게 될 것이다.

셋째, 칭찬은 그 자리에서 해야 한다. 칭찬할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칭찬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가 바로 칭찬을 해야 하는 순간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칭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열의가 없어져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3년 전에 너의 영업 능력은 참 대단했어.”라는 말은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은 더 이상 칭찬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칭찬을 듣는 사람은 ‘아니, 그럼 그 후의 내 영업은 형편없다는 뜻인가’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상대의 의도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꼭 칭찬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즉시 칭찬을 하지 못했다면, 가장 적절한 때를 다시 찾아야 한다. 나중에 칭찬해야 할 때는 희미한 기억에 의존하게 됨으로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해 칭찬할 거리를 메모해 두었다가 활용하면 좋다.

넷째, 칭찬은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은 칭찬은



별 의미가 없다. 칭찬은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 사람 앞에서 칭찬하는 것은 칭찬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력한 대가에 따라 인정과 보상을 받는 모습에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칭찬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적으로 칭찬받지 못한 사람은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하고,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닌 그 사람이 노력한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칭찬하는 방법 못지 않게 칭찬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중요하다. 상대방이 칭찬을 할 때 대체로 동양 사람들은 그 말을 부정함으로써 공손함을 나타내지만, 서양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칭찬에 대해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머, 아니에요’, ‘글쎄, 제가 무슨 …….’과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칭찬에 대해 기뻐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차리기 힘들고 오히려 칭찬한 사람이 무안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나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도 대화 상황을 어색하게 하고,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게 한다.

☞ A: 전에 봤던 언니도 엄청난 미인이던데, 미희씨네 집 여자들은 모두 인물이 좋아.

B: 네 맞아요, 우리가 그런 말 좀 들어요.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피곤할 정도라니까요.

☞ A: 야, 너 그 옷 정말 예쁘다. 화사한 색깔이 너한테 참 잘 어울린다.

B: 그렇지? 내가 원래 무슨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잖니?

위 (예)의 자화자찬에 상대방은 괜히 칭찬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맥락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스스로 칭찬하는 말은 오히려 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4. 사람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1) 화성에서 온 남성, 금성에서 온 여성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독립을 유지하기 원하고, 여성들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경향이 있다(Tannen 1986). 그래서 남성들의 대화는 정보 전달을 주기능으로 하는 것에 비해 여성들의 대화는 친교 유지를 주기능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이상적인 화자와 이상적인 청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집에 돌아와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이 없거나, 집안일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보를 중심으로 말하는 언어 습관 때문임을 이해할 수 있고, 잡담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오래도록 주고받고 있는 여성들끼리의 대화를 수다를 떠다는 편견으로서가 아니라 친교 유지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오해가 없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아내: 오늘 밖에서 별 일 없었어?

남편: 응.

아내: 난 오늘 신발 하나 샀어. 이거 봐. 예쁘지?

남편: 응, 좋은데.

아내: 이거 얼마에 샀는지 알아?

남편: 얼마데?

아내: 이거 원래 5만원 하는 건데, 만 오천 원밖에 안 줬어.

남편: 거기 신문 좀 줘봐.

아내:

남편: 아, 참. 이번 금요일 저녁에 우리 회사 사람들 우리 집에 온다.

아내: 뭐? 우리 집에 온다고?

남편: 응.

아내: 이번 금요일에? 왜?

남편: 집들이를 안 했잖아. 한 열 명 정도 올 거야.

아내: 그럼 미리 의논이라도 좀 하지. 나 그날 동창회 있는데.



남편: 다들 그날밖에 시간이 없대. 그리고 그런 일까지 내가 당신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아내: 누가 허락 받으랬어? 말이라도 해 주면 좀 좋아?

남편: 지금 말하잖아. 어쨌든 그렇게 알고 준비해.

아내: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준비해. 중국집에 시키든지.

남편: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이현호 외, <대화와 인간관계의 기초> 중에서)

(2) 말을 듣지 않는 남성,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성

☞ 남성과 여성은 두뇌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

남성의 두뇌는 단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성의 두뇌는 다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두뇌 구조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생활 태도의 차이, 대화 습관의 차이를 만든다.

☞ 남성은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한다.

남자의 두뇌는 특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다. 우뇌와 좌뇌의 연결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이 신문을 읽고 있을 때 그의 두뇌를 스캐닝해 보면, 거의 귀머거리 상태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걸어 다니거나 이런저런 화제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양치질도 하고 전화도 받지만 남성은 이를 닦을 때는 이 닦는 일만 생각한다.

☞ 여성은 간접화법을 좋아하고 남성은 직접화법을 좋아한다.

여성의 두뇌는 과정 지향적이고 그들은 의사소통의 과정을 즐긴다.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의 다중트랙의 간접화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남성이 사용하는 문장은 짧고, 직접적이고, 해결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곧 자기중심적인 욕구에서 벗어나서 상대방과의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고, 상대방의 대화 습관을 이해하는 태도가 **이상적인 대화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3. 대화는 음성언어로만 이루어질까?

대화가 언제나 음성언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달하는 말보다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지 또는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말의 의미를 결정하기도 한다.

예) 잘했다, 잘했어.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것에 의하여 30~35 % 정도가 전달되며 65~70 %는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존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무언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동작언어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3.1. 목소리는 변할 수 있는가?

☞ 사람의 목소리는 상황에 따라서 크기, 높낮이, 빠르기 등을 다르게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친구에게 비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의 크기가 작고 낮아진다. 운동경기를 보며 응원을 하고 있다면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소리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 또한 위급한 일이 생긴 경우에는 평소 말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이야기하게 된다.

목소리의 특성은 습관적이기도 하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목소리가 큰 식구와 함께 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크고 높은 소리로 말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작고 낮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 이처럼 서로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듣기 좋은 목소리는 분명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갖기도 한다. 편안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주는 목소리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 관심과 호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된다.



3.2. 눈으로 무슨 말을 할까?

☞ 사람의 얼굴을 보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눈이다.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과 마주쳐야 하는가에 대해 신경을 쓴다. 눈은 의사소통의 흐름을 규제하기도 하고, 반응을 전달하며, 감정을 표현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한다. 눈은 예로부터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눈의 이러한 기능 때문이다.

상대방과 눈이 마주치는 경우에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시선을 맞추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얼른 시선을 피해 모른척한다. 시선이 마주칠 때 ‘왜?’ 또는 ‘나?’와 같은 반문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를 쳐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대방과 대화를 원하는 신호로 우리는 시선을 마주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거나 지루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시선을 피하게 된다. 특히, 수업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눈꺼풀이 덮이는 현상은 수업 내용에 흥미가 없거나 지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상이다.

문화에 따라 눈 마주침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미국 문화권에서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눈을 똑똑히 들여다보는 것을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여긴다. 미국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대화할 때 학생이 교수의 눈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오래 마주보면 존경과 애정의 표시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나이가 위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똑똑히 뚫어지게 보는 것은 오히려 무례한 사람으로 여긴다. 눈을 통한 의사소통은 문화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화 도중 시선을 너무 피하면 관심이 없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불신을 나타내므로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눈의 접촉을 피하는 사람을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기도 한다. 드라마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는 상황에 ‘내 눈 똑똑히 보고 말해.’라는 대사가 나오는 것도 눈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눈도 깜박거리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보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여간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나와 시선이 마주치는 대화 상대자와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3. 얼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표정은 언어를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음성언어에 의한 메시지 전달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표정은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감정, 태도, 반응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의 얼굴표정 속에는 한 개인의 모든 정보(마음의 상태, 특성, 건강, 개인성, 사회적 위치,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생활에 대한 기대감 등)가 들어 있으므로, 그 사람의 표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는가가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두고 표정이 무뚝뚝하다는 지적을 하곤 한다.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물을 때, 또 그것을 대답할 때, 심지어 결혼식 같이 즐거운 행사에서도 웃음은 절제되어 있다. 우리에게서 ‘혼인할 때 신부가 웃으면 딸을 낳는다’와 같은 말이 있어 특히 여성에게는 웃음을 금기시하는 풍토마저 있었다. 소설 속에서도 여성의 웃음은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도구로 그려지면서 웃음이 많으면 품행이 좋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웃음만큼 좋은 의사소통 방법도 없다. 열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것은 효과적인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4. 몸짓을 읽으면 사람이 재미있다.

☞ 몸짓은 신체의 움직임에 의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이다.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욕구나 필요성에 의해서 유발되기 때문에 각 문화 사이에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울고, 웃고, 화날 때 펄펄 뛰는



일, 손들어 인사하기, 배가 아프면 배를 만지는 시늉을 하는 행위 등은 보편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몸짓은 의사소통 행위 속에서 배우게 되므로 문화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다.

(1) 엄지손가락은 늘 최고인가?

손가락 움직임은 문화권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면 돈을 나타내지만 미국에서는 “O.K.” 나 “Good”을 의미하고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엄지손가락을 올릴 경우 미국에서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기대의 표시지만 영국인들에게는 성공의 표시이고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에게는 “우두머리” 혹은 최고라는 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도 일부 지방에서 이러한 행위는 무례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렸다간 한바탕 싸움이 붙고 만다고 한다.

손바닥을 벌리는 것은 결백, 정직, 충실과 복종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기본 손바닥을 사용한 자세가 있다.



순종적인 손짓



권위적인 손짓



우세한 손짓

하나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인데 이 행위는 거지가 돈이나 음식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특징을 보여 준다. 두 번째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정직한지 못 한지의 여부를 보는 방법은 손바닥의 모습으로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보이고 싶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손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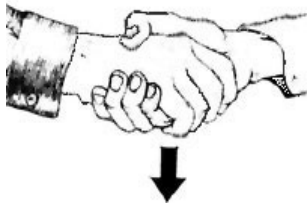


(2) 다리를 꼬고 이야기하지는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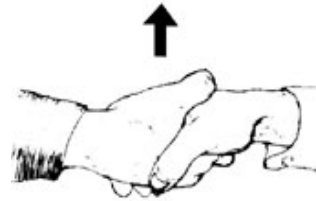
다리를 꼬는 자세는 부정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가슴에 팔을 x자로 얹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며 초조함이나 방어적인 태도로 인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루하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논쟁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3) 악수할 때 손등을 보이나요?

악수하는 것은 기원전 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이 행하였던 행위이다. 현대의 대부분 영어권 나라에서는 악수가 인사의 대표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악수할 때 내미는 손의 모양은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손등이 보이도록 손을 내미는 것은 매우 지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반대로 손바닥이 위로 보이도록 손을 내미는 경우는 타협이나 순종을 의미한다.



우월감을 나타내는 악수



순종적인 악수

(4)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더 편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자꾸 피하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 ① 친밀한 거리 (15cm~46cm) : 자신의 소유물처럼 보호하는 지역이므로



오로지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만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다.

- ② 개인적 거리 (46cm~1.2m) : 친구 사이나 직장에서 동료들과 지낼 때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거리이다.
- ③ 사회적 거리 (1.2m~3.6m) : 낯선 사람이나 배달원, 가게 주인, 새로 온 종업원과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과 유지하는 거리이다.
- ④ 공공적 거리 (3.6m 이상) :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 편안하게 느끼는 거리이다.

사람들이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문화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유지하고자 하는 거리에 대하여 파악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언어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음성언어 외에도 목소리나 얼굴 표정이나 몸짓 등을 통해 더 다양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동작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좀 더 관심을 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태도이다.**



국어생활의 쟁점

김진해*

1. 들머리

- 언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다중적인 언어생활
 - 언어를 비판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 인간 활동의 대부분은 언어활동. 그런데 언어는 객관적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존재. 또한 언어는 언어 내적인 논리로만 정연하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인 층위가 중층적으로 작용하면서 구성됨. 특히 그것이 언어정책 등 국가에 의해 제도화·규범화·단일화될 때 그 속에 담긴 다양한 함의나 복선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제도와 규범은 개인을 규정하기 때문.
 - 개인의 문제(건강, 교육, 희망 등)가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듯이, 언어도 개인과 사회 간의 긴장 속에 존재. 그 긴장을 망각할 때 개인은 외롭고 우매한 ‘섬’이 됨.
 - 익숙한 질문과 익숙지 않은 질문
 - 익숙한 질문: 이게 표준어 맞아? 어떻게 띄어 쓰지? (How, What)
 - 익숙지 않은 질문: 표준어가 꼭 필요해? 한글맞춤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건가? (Why)
- ⇒ ‘왜’에 대한 질문이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며 시민 공간(civil space)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음.

* 경희대학교



<국어생활의 쟁점들>

- 정책적 차원 : 한글과 한자, 표준어와 사투리(방언), 한글맞춤법, 한국어와 영어(영어 공용화, 영어마을, 국제자유도시 내 영어공용), 언어순화 등
- 그 외에 다양한 측면에서 언어(국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와 언어 효과 발생
예) 호칭, TV 자막, 구호, 안내문·공문, 대화, 통신 언어 ...∞.
- 언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으로 존재

▪ 토론을 이끄는 읽기 자료

존 케이지라는 작곡가는 피아니스트에게 연주회장의 피아노 앞에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게 하고, 그 사이에 들려오는 소리에 청중이 귀를 기울이도록 해서, “4분 33초”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한다. 그러는 동안 연주회장 지붕에 쏟아지는 빗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고, 참을성 없는 청중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을 것이다. 이 모든 의도하지 않은 ‘소리’가 덧붙여져서 음악은 ‘연주’되었다.

이러한 예상 밖의 연주를 통해 우리는 장소를 대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문제의식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연주회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자명한 행동을 기대한다. 미술관에 걸려 있어야 할 그림이 어떠한 해야 한다고 예측한다. 그래야 안정감을 느낀다. 이러한 자명한 예측, 경험의 안정성을 어겼을 때 우리는 불편해 하거나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그 바탕에 깔린 무의식을 의심할 때 비로소 일상사의 근저에 흐르는 통념, 관습, 편견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느 사회나 장소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있다. 장소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사회화되면 그에 대한 반응이나 행동도 고정된다. 옷깃을 여며야 하는 곳이 있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야 하는 곳이 있다. 그렇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가. 옷깃을 여밀 곳에서 옷웃을 벗을 수도 있고 통탕거리며 행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수연구동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붉은 글씨로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뜻말이 서 있었다. 그곳을 지날 때면 늘 ‘여기서 관계자란 누구일까?’ 하는 환청이 들렸다. 교수는 관계자인가, 거기에 연구실이 없이 동료 교수를 만나러 가는 교수는 관계자인가, 학생은 관계자인가, 교직원도 관계자인가, 서적 판매상은 관계자인가, ‘배달의 기사’ 아저씨는 관계자인가? 그 말은 분명



‘볼일’ 없는 사람, 그냥 산책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은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금지의 언어일 텐데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웠다. 그 뜻말은 크기와 색깔과 상관 없이 지나다니는 사람을 옥죄다. 늘 ‘나는 관계자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만든다.

그걸 며칠 전에 ‘여기는 교수 연구동입니다’라는 문구로 바꾸고 있었다. 어찌 보면 둘 모두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효과는 같다. 단도직입이나, 에둘러 표현하느냐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여기는 교수연구동’이라고 써 놓아도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읽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바뀐 문구에 기뻐다. 너무나 ‘싸늘하게’ 중립적인 안내문이 마음에 들었다. 똑같은 통제의 말이지만 그 판단을 ‘나’에게 맡기는 강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서관 열람실을 나오려면 차단기를 통과해야 한다. 대출하지 않은 책을 갖고 나가면 책에 붙어 있는 전자 칩을 인식하여 “삐” 소리가 요란하게 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가 일하고 있는 학교의 도서관 차단기 위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벨소리가 울려 놀라셨죠? 열람대로 와서 문의하세요.”

도서관 이용객의 다양한 모습을 포용하는 말이다. 개폐기의 벨소리를 오직 ‘책 도둑’의 징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실수나 착각을 이해하는 말이자, 책 도둑에게 조차 예의를 잃지 않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말이다.

몇 년 전 한 학생이 전해 준 사진 하나가 참 인상적이었다. 일본에 갔을 때 어느 쇼핑몰 안 청과물 가게 앞에 서 있던 안내문이라는데, 내용이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도 된다.”라는 것이다. 사진기 그림에 ‘You can take pictures’라는 영문까지 친절히 달아두어 ‘마음껏’ 사진을 찍고 왔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는 안내문이 많다. 안내문은 장소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표현한다.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각성시킨다. 또한 안내문은 본질상 대중에 대한 동원과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안내문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짧은 시간 자신의 자격을 따져 보게 만든다.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되며 입산 금지이며 접근하면 안 되며 후면 주차를 해야 하며 무슨 요일에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면 안 되며 사장님을 만나려면 먼저 비서실을 경유해야 하며 8시 2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 완료해야 하며 조용히 해야 하며 앉아야 하며 서야 한다. 시대가 바뀌면 언어가 바뀐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금지와 위압과 구분의 언어가 득세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는 긍정과 열림과 경계를 허무는 언어가 넘친다. 안



내문이 없는 사회는 경계도 질서도 없는 혼란스러운 사회일 수도 있지만, 안내문이 난무하는 사회는 편 가르기와 배제가 난무하는 사회일 수도 있다. 안내문을 피할 수 없다면 대중의 자발적 선택, 유쾌한 동의를 얻어내는 안내문이길 바란다. 밀어내는 언어보다는 끌어당기는 언어, 뺄어내는 말이기보다는 포용하는 말이길 바란다. 해석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행동의 결정권이 시민에게 주어지는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지 알려면 안내문을 보라. 교묘해지는 것, 그게 민주화이다.

- 김진해, <밀어내는 언어, 끌어당기는 언어 : 안내문>,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침포 마침표> 8호-

2. 한글 · 한자(한자 폐지) 논쟁¹⁴⁾

1) 발단

- 1945. 12. - 미군정청 학무국 조선교육심의회 교과서 분과위원회 :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초중등 학교의 교과서는 전부 한글로 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도림(괄호) 안에 적어 넣을 수 있음”
- 1948. 10. -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대한민국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할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도 있다.”
- 1951. 9. - 상용한자 1,000자 제정, 공포
- 1965. 3. - 국어교과서에 한자 노출(단독표기)
- 1968. 10. - 대통령 한글전용 지시. 교과서에 한자 삭제
- 1970. 3. - 초중고 교과서 한글전용
- 1972. 8. - 중고교 교육용 한자 1,800자 선정 발표(중학교 900자, 고교 900자)
- 1973. 3. - 중고교 교과서 한자 병용

14) 한글·한자 논쟁(한글전용, 국한혼용)에 대해서는 고길섭(2005), <스물한 통의 역사 진정서>, 도서출판 엘피 참고.



2) 한자 폐지론자

(1) **최현배** : 인류 사회의 문자사·문화사의 발전단계로 보아 한자의 폐지는 필연……. 문자사를 보면, 뜻글자는 소리글자로 변하고 말았다. 한자가 아무리 연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내 소수 유한계급의 봉건적 문자이라, 대중의 문자, 생활의 문자를 삼고자 함에는 도저히 그 불리와 불편을 견딜 수 없게 됨에 …… . - 민중적 관점

(2) 주장 내용

- 한자는 나라 망친 글자이므로 없애야 한다.
- 한자 안 써도 우리말에 잘 맞게 쓸 수 있다.
- 한자는 비능률적이어서 비현대적이다.
- 한자는 대중적이지 않고 교육적 귀족주의와 문화적 계급주의이므로 비민주적이니 없애야 한다.
- 한자 폐지는 민족의 독립성을 기르는 것이다.
- 한자 폐지 반대는 일종의 보수적 타성의 결과이다.
- 한자로는 고유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기 불가능하다.
- 한자를 신성시하는 태도를 버려라.
- 한자는 예술적이 아니다.
- 한자 폐지는 문자 발달사상, 문화발달사상 자연적 진보 과정이요, 적극적 혁명이다.
- 한자 폐지와 한자어 폐지는 다르다.
- 한자 폐지하면 중국과의 문화 제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 한자 폐지 운동은 중국과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 한자 사용은 2중 생활의 고통과 부담을 지자는 것이다.
- 한자 교육에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 힘을 과학연구와 일반 문화연구에 노력하자.



3) 한자 폐지 반대론자(국한혼용론자)

(1) 주장 내용

- 한자가 아니고는 성명의 표기가 분명하지 못하다.
- 한자는 예술적인 글자이다.
- 한자를 폐지하면 동양 문명의 기초가 근본부터 파괴된다.
- 한자 폐지 주장의 근본 사상은 유물론적 공리론에 있는 까닭에 안 된다.
- 한자 폐지 주장은 편협한 국수주의이다.
- 한자 폐지하면 중국과의 문화 제휴가 어렵다.
- 한자는 동양의 공통 문자이며, 한자어는 동양의 공통어이므로 버릴 수 없다.
- 한자는 상형표의문자이므로 직각적(直覺的)·시각적 장점을 버릴 수 없다.
- 한자어는 유의어를 풍부하게 한다.
- 한자어는 조어력이 풍부하다.
- 한자어는 과학적이어서 과학적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다.
- 한자를 폐지하면 대부분의 한자어가 문제가 될 것이니, 이를 순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인공적 비자연적 어휘 증가로 혼란을 초래한다.
- 한자어만의 독특한 어감을 무시할 수 없다.
- 과거 천여 년 간 한자를 써 왔고 현재도 써 온 것을 보면 한자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 대립적 관점 정리

질 문	한글전용론자	국한혼용론자
한글 전용/한자혼용을 해야 하는 이유	한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글자. 한글은 가장 현대적이고 쉬운 글자. 습득 시간 단축. 요컨대 한자에 대한 한글의 절대 우수성이 그 이유	한글은 음운 풍부, 발음기호적 성격을 겸한 표음문자, 한자는 조어력·함축성·축약력 뛰어난 표의문자이니 적절히 조화 필요. 사전에 70% 한자, 전문용어 대부분이 한자이므로 한자 익혀야 뜻 파악이 분명하게 되고 어휘 확장 용이
한자교육의 방식	‘한자’ 교육이 아닌, ‘한문’교육 필요. 중학교에서 한문교육 실시하는 것으로 충분	한자교육은 어릴수록 효과적. 초등학교에서 1,000자 정도 습득. 중고교과서는 괄호 삭제해서 노출해야.



질 문	한글전용론자	국한혼용론자
특과 실	<p>특 : 배우고 쓰는 데 경제적, 컴퓨터 사용 용이, 한자를 한글로 적어 놓아도 읽는 속도 느리지 않다.</p> <p>실 : 없다. 전통의 고아가 된다는 것도 한문문헌을 한글로 번역하면 한다.</p>	<p>특 : 국민 지성 고양, 교육 효과 증진. 어휘 의미 파악 용이하여 학술발전 가능. 젊은이들의 전통 문화 이해 용이.</p> <p>실 : 없다.</p>
한자 전용/한자혼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전용법의 '다만' 조항 삭제하고 이법을 충실히 실시해야 한다.	2,000자 정도의 상용한자 제정해 신문, 잡지, 출판물에 혼용하면 효과적이며 언중의 사고력과 어휘력 향상, 발음 교육과 전통성 회복에도 효과적

4) 한글 · 한자의 주술화, 신화화

(1) 한자 폐지론자의 상대적 우월성

- 대중들의 민주적 삶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점(ex. 한자폐지 반대론자의 경우 한자를 '남자다움'이나 '권위'에 일치시키고 있어 당시 유행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 없이 전통적 문자 인식론에만 얽매임. 반면 한자폐지론자의 경우 일제의 민족어 말살 정책의 악몽을 역사적 경험으로 교훈 삼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상을 강조).
- 당시 한글보급과 문맹퇴치 문제와 직결되었으므로 한자폐지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었음.
- 미 군정청 학무국의 여론조사(1945.12) : 일반인은 88.2%, 교육자는 56.7%, 전체적으로 72.9%가 찬성.

(2) 문제점

- 일반 대중의 요구와 달리 지식인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한자폐지 반대 경향.
- 백남운(학술원 원장; 중도좌파, 월북 최고인민회의 의장 역임) : 국가 법령과 같은 강력으로 결정된다 할지라도 여론을 토대 삼지 않는 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 사실 학무국의 한자 폐지 정책은 80명가량의 교육심의회 위원들의 절대



다수가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중대사를 대중과 지식인들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공표 후 여론 조사)

(3) ‘비행기’와 ‘날뜰’

- 한자폐지 반대론자들의 새말만들기 비판

- 김형규('47.『조선어의 과거와 미래』) : ‘산에 가자’를 ‘되에 가자’고 하면 의미 안 통할 것.
- 이희승('47.『조선어학논고』) : ‘순우리말이 정답’이라고 해서, 한자말을 모조리 없앨 듯이 새말을 지어내는 일은 자아의식에 충실하다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라면서 새말만들기 비판. 그는 ‘물리학’을 ‘몬결학’, ‘수학’을 ‘셈갈’, ‘전기학’을 ‘번개갈’, ‘비행기’를 ‘날뜰’로 지어냈다고 비난.

- ‘비행기’, ‘날뜰’ 논쟁의 왜곡

- 최현배가 ‘비행기’를 ‘날뜰’로, ‘이화여자전문학교’를 ‘배꽃계집오로지배움집’으로 바꾸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이 아님.
-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어느 학자가 최현배의 주장에 반론을 펴면서 “한자를 폐지하게 되면 ‘학교’는 ‘배움집’, ‘비행기’는 ‘날뜰’, ‘이화여자전문학교’는 ‘배꽃계집오로지배움집’, ‘전차’는 ‘번개 딸딸이’나 ‘번개 수레’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자 최현배가 “한자와 한자어를 구별해서 쓰라”고 주장한 것이 와전.
- 최현배(글자의 혁명) : “‘學校’ 대신 ‘학교’로, ‘電車’ 대신 ‘전차’로 적자는 것일 뿐”

- 그러나 한글전용을 지나친 말바꾸기로 일관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은 피하지 못함. 물론 최현배가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전환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시도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개인적 언어 실험으로 한정해야지 공직에 있다고 공식적 언어정책으로 밀어붙이려 한 것은 잘못. 왜냐하면 언어실험은 대중들에 의해 선택,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정태진 : 「한자 안쓰기 문제」(1946)

- ‘점진적 폐지론’ 제시 - 두 주장을 각각 방임주의와 박멸주의라고 모두 비판.
- 한자폐지에 앞선 준비 미비/한자폐지 위해서 한자 배워야 한다는 등의 근거
- 시기적 제한, 자수의 제한, 어휘의 제한, 사용범위의 제한, 자획의 제한 (약자사용), 일본식 한자어의 폐지, 2중어의 폐지 등 제시

(5) 관념적 민족주의의 오류

- 시비과정에서 한글과는 한글전용을 ‘애국행위’로 한자혼용을 ‘비에국행위’로 비약. 국한혼용과는 한글전용을 ‘공산주의, 빨갱이 주장’으로 매도. 한자파들은 걸핏하면 신문도 읽지 못하는 ‘대학생 한자 실력론’¹⁵⁾을 들고 나오는 반면, 한글학회는 ‘최만리’의 상소를 즐겨 사용.
 - 문자개혁은 현대사회의 세계적 추세. 현대적 삶에는 대중들에 있어서 문맹 퇴치, 문자생활은 필수적.
 - 즉 서구문화에 영향을 받아 봉건사회를 청산하고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중들의 전면적인 문자생활이 불가피.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자는 지배계급의 특권적 소유물이었고, 게다가 배우고 사용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인민대중과는 거의 무관.
 - 중국은 청말(靑末)에 이미 한자를 ‘네모난 귀신’이라고 적대시하여 1930년대 경부터 라틴화 새글자 운동이 열풍 불(노신 : ‘한자가 망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
 - 일본은 1866에 한자폐지론 제기. 우리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 곧 중국처럼 방언 문제에 시달리거나 일본처럼 가나-한자의 혼용 문제 같은 난제가 존재하지 않음.
 - 우리는 대중들의 현대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한글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한자폐지론자들이 안에 대한 고민 없이 곧바로 한글전용

15)다음은 ‘영터리’로 대답한 몇 가지 예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 - 4필의 말을 타고 돌아옴. 곧 성공하여 온다는 말.

일석이조(一石二鳥) - 밤은 하나로되 아침이 다르다.

여인숙(旅人宿) - 여자들이 있는 잠자는 곳

명약관화(明若觀火) - 쓴 약일수록 효과가 있다.

고희기념(古稀紀念) - 고대 희랍 축제일

삼강오륜(三綱五倫) - 낙동강 · 두만강 · 한강, 청, 홍, 백, 흑, 남



론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음.

- 그러나 전통문화가 계속 발목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대중들이 글자생활로서 한글만을 욕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
- 한자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도 다른 곳에서는 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싶어함.
- 즉 심정적 동의와 현실의 구조는 다르기 때문.
-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한글이라는 대중적 글자보다 한자라는 비대중적 글자가 개인적으로 더 과시의 원천이 되기 때문.
- 이는 한글전용론자들이 비난하듯 ‘사대사상’이나 ‘노예근성’과는 무관. 설명 허위의식일망정 대중들의 삶을 구성하는 현실의 요소.
- 한글과는 한자의 비민족성만 보려했지, 한글의 현실 사용과정에서 지배의 논리와 민중들의 해방사상이 중층적으로 얽혀 투쟁하고 있음을 보려하지 않음. 이는 한글과 사람들이 이미 억압적 국가장치의 주재자로 기능하려고 하는 민족 부르주아지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 그들은 집권자나 국가권력에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도리어 국가권력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어문정책상의 헤게모니를 장악(4.19 혁명 시 시국선언서 작성에 한자파인 이회승, 조운제가 가담한 반면, 한글학회 쪽은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배알, 최현배는 미군정 때부터 문교부에서 어문정책 주도한 것은 매우 강력한 효과 발휘).
- 한글전용은 엘리트주의적 발상 : 어려운 한자를 버리고 쉬운 한글만 쓰자는 논리는 일면 민중적·대중적·민주적 성격을 띄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중들의 문자적 욕망을 차단해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엘리트주의적 발상. 한문을 전문가들의 특권적 영역으로 제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 허물기는 대중들의 민주적인 문자 활동의 기초. 문자는 특권적 전문가의 표시, 해설, 풀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삶의 육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선택은 대중들 자신의 권리이다¹⁶⁾.

16) 우리나라의 문자생활이 한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복잡한 사정을 감안할 때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자교육 및 필요에 따라 교과서에 한자를 병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루어졌어야 했다.



- 요컨대 현대적 삶과 관련하여 대중들의 언어적 욕망이 복잡한 층위들로 형성된다는 점을 무시하고 ‘민족’이라는 통로로 모든 것을 단일화하여 몰아넣는 것은 ‘관념적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5) 현실적 대안 - 표기보다 이해를

- 한자어를 잘 이해하고 구사하기 위해, 그리고 한자가 섞인 예전 글을 이해하기 위해 한자를 배운다면 ‘쓰기’보다 ‘읽기’ 중심의 학습이 적절하다.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만 안다면 이런 목적으로 한자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즘은 글을 쓰는 도구로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한자를 필기구로 쓸 줄 몰라도 인쇄해 낼 수 있게 되었다. 한자 학습은 읽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궁극적으로 한글전용은 옳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한글전용은 문자생활에 국한된다. 한자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한자 학습이 불필요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한자에 대한 지식은 우리말 어휘를 구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필요한 수만큼의 한자를 배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결국 한자를 표기에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말 이해의 도구로 사용하자는 것이다(배주채 1999: 88~89).

3. 영어 공용화 논쟁¹⁷⁾

- 영어는 우리(또는 나)에게 무엇인가?
- 영어를 공용화하면 국어의 순수함, 민족의 주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대학을 졸업해도 신문 하나 못 읽는다는 한자파의 주장에 한글파는 신문을 한글로 쓰면 될 것 아니냐고 대답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게 개조되지 않는다. 대중들의 욕구는 한글에만 있지 않고 한자에도 있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대중들은 지식인과 달리 한글전용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자 문맹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해방 직후 한글관련 책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렸다는 사실 뒤에는 1970년대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데에서 「상용한자 1,800자」나 「천자문」 따위들이 마찬가지로 수없이 팔리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17) 영어 공용화 논쟁과 관련하여 고종석(1999), <감염된 언어>, 개마고원, pp. 73-184에 실린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다’를 읽어보길 권한다.



-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가? 반대로 영어를 자유롭게 쓰면 세계인이 되는가?
- 그런데 언어는 순결한가?(순결한 적이 있었는가?)

▪ 읽기 자료 1

“영어 능동적 도입해야” - 「공용어 주장」 동조

함재봉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배타적 민족주의는 열등의식의 발로이다. 만일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올바른 것, 즉 보편타당한 것이라면 꼭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내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보편타당한 것이라는 자신이 없으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기준은 객관적인 옳고 그름일 수밖에 없다.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성이란 곧 ‘강자의 것’이라는 냉소적인 주장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강대국이나 할 수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민족국가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뿐이다.

실제로 한민족은 이러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생존과 번영을 기약해왔다. 우리는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보편적인 사상과 철학,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삼국시대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는 불교를, 조선조에서는 유교를, 근세에 들어와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가장 보편적이고 수준 높은 문명을 적극 수용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상과 제도는 특정 민족과 사회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토착화 과정을 거치면서 굴절되고 재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래문명과 문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살찌웠다는 역설 아닌 역설이 성립된다. 불교와 유교는 ‘외래’ 문명이지만 우리 특유의 모습으로 일구어 왔다. 팔만대장경과 조선왕조실록은 모두 한문, 즉 중국 글자로 되어 있지만 지극히 한국적인 보물들이다. 그러면서도 한문이라는 국제어로 쓰여졌기에 보편성도 확보하고 있다.

민족문화는 결코 불변의 고정태가 아니다. 늘 바뀌고 변화하고 진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는 결코 무국적의 보편주의자나 자유주의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역시 ‘우리의 문화’, ‘우리 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기약해보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얘기들이다. 복거일 씨의 말대로 ‘사람은 누구나 민족주



의자'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맞게 수용하는가이다. 복거일 씨는 영어를 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채택하는 것이 새로운 사상과 체제를 보다 빠르고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민족주의를 보다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그의 역설이 있고 동시에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던지는 철학적, 사상적 도전이 있다.

그렇다면 영어를 국어와 함께 우리의 공용어로 채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그것이 진정 한민족의 번영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한자를 도입하였듯이 영어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도입한다면 그 결과 생겨나는 새로운 문화의 변형은 역시 한국의 것일 수밖에 없다. 한국어와 한글, 한자와의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사용과 발전을 전제로 한 영어의 도입은 한국인의 인식의 지평을 다시 한번 세계적인 차원으로 넓혀주는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어로 표현된 한국문화는 그만큼 보편화될 수 있다. 우리의 찬란한 문화와 전통, 고유의 사상과 미풍양속을 전세계에 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 영어라는 국제어의 매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영어 공용어 채택 여부는 철저히 민족과 국가의 실익 차원에서 따져야 할 문제이지 반민족주의적인 발상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읽기 자료 2

세계화 위해 민족 버리자니...천박한 과잉 세계주의

남 영 신 (사전학자, '국어 천년의 실패와 성공' 저자)

요즘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우리의 의식 구조도 상당히 다양해져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장들이 제기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최근 간행된 소설가 복거일 씨의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에 실려 있는 주장들은 그런 부류의 하나로 보고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한 독이 들어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민족주의를 버릴 것'을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민족어를 버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구 제국' 시대에는 민족주의나 민족어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인 것 같다.



그의 말대로 이는 대단히 ‘용감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그는 독도 영유권 분쟁이나 동해 표기 등의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사회에 나타났던 여러 부정적인 민족주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제는 민족주의를 버릴 때가 되었다고 충고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만 따진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서 약한 나라는, 그래서 둘 사이의 분쟁에서 훨씬 손해를 크게 입을 나라는 우리다. 아쉬운 쪽은 일본이 아니다...”

그가 우리 사회에 민족주의를 버릴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소국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강대국의 민족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약소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국제 사회에 호소하고 국제기구에 하소연하는 것인가? 그가 주장한 우리 사회의 감정적인 민족주의의 위험성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그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민족주의 죽이기’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두 번째 주장은 ‘민족어를 버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삼자’는 것이다. 그가 영어를 모국어로 삼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놀랍게도 단순하다. 지금은 미국을 지도국으로 하는 ‘지구 제국’ 시대이고 이 시대에는 영어가 국제어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가 ‘지구 제국’ 중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영어를 처음부터 모국어로 배우는 것이 가장 낫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 당장은 민족주의자들의 맹렬한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국어와 함께 사용하게 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구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가 밝히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으나 공용어인 영어만 잘하면 그 나라의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천박할 뿐만 아니라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으로 보는 생각도 단순하고 위험하기는 그가 배척하고 있는 민족주의자들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어를 국제어로 보고 국어까지 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가 어떻게 하여 국어 속에 들어와 있는 ‘쓰리, 와이로, 히야카시’ 같은 일본어 찌꺼기를 되살려 쓰자고 주장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일본어는 영어와 같은 반열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국어는 아무렇게나 의사소통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되는 하급언어라고 생각해서 그랬을까. 1천 년 전에 자기 정체성을 잃고 국어를 중국어의 하위 언어로 전락시켜 우리 문화와 민족의 자주성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렸던 신라의 지식인이 21세기를 앞두고 환생한 것이 아닌지 착각하게 한다.



▪ 읽기 자료 3

열린 민족주의를 찾아서
한국은 민족주의 과잉…… 영어 공용어는 현실

복 거 일 (소설가)

이 글은 줄져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를 비판한 남영신 씨의 '세계화 위해 민족 버리자고?'에 답하는 글이다. 남씨의 글을 읽으니, '민족주의와 민족어는 너무 예민한 주제들이어서 논의가 차분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민족주의와 민족어에 관한 내 생각은 지금 인류 사회들이 느슨하게나마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국경 안에서 끝나는 일은 드물다.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또는 환경 문제 등. 이번 외환 위기가 우리에게 아프게 일러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반영해서, 영어가 실질적 국제어로 자리 잡았다.

놀랍지 않게도, 이제 민족주의는 점점 현실에서 유리되고 비적응적으로 되어 간다. 특히 다른 민족들과 민족국가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닫힌 민족주의'를 지닌 사람들은 돌레에 괴로움을 끼칠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해를 입힌다.

민족주의적 열정은 불이다. 그것을 잘 다스리면, 사회에 활력이 넘치지만, 잘못 다스리면, 많은 것들을 잃는다. 우리는 민족주의적 열정을 잘 다스려서 '열린 민족주의'로 다듬어내야 할 것이다. 남씨의 주장과는 달리, 나는 '민족주의를 버릴 때가 되었다'고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민족주의에 대해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의 논지는, 민족주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득실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몇 해 전 일본의 순시선이 독도 근해에 나타났을 때, 우리 대통령이 군함을 보내 시위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국내 정치를 겨냥한 과잉 대응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 우리가 외환 위기를 맞자, 바로 그 대통령은 서둘러 경제 부총리를 일본에 보내 원조를 요청했다. 그나마 돈도 빌리지 못했다. 나는 이런 공허한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것이다.

국제어와 민족어에 관한 내 주장을 '민족어를 버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삼자'로 요약한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국제어로 자리잡은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입는 손해가 이미 너무 크고 앞으로는 더욱 커질 터이므로, 경제 논리



는 사람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삼도록 만든다는 것이 내 주장의 바탕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는 생존에 결정적인 기술이 되었고, 모두 영어를 배우는 데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아직 모국어도 배우지 못한 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부터 이어폰을 끼고 영어 회화를 배우는 중년들에 이르기까지. 안타깝게도, 그런 투자는 효율이 아주 낮다. 그래서 나는 일단 영어를 우리말과 함께 공용어로 삼을 것을 제안한 것이다.

나는 독자들에게 물었다. '만일 막 태어난 당신의 자식에게 영어와 조선어 가운데 하나를 모국어로 고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느 것을 권하겠는가? 한쪽엔 영어를 자연스럽게 써서 세상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일상과 직장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보지 않고 영어로 구체화된 많은 문화적 유산들과 첨단 정보들을 쉽게 얻는 삶이 있다. 다른 쪽엔 조상들이 써온 조선어를 계속 쓰는 즐거움을 누리지만, 영어를 쓰는 것이 힘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평생 갖가지 불이익을 보고 분초를 다투는 정보들을 뒤늦게 오역이 많은 번역으로 얻어서, 그것도 이용 가능한 정보들의 몇 십만 분의 일이나 몇 백만 분의 일 만 얻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삶이 있다. 당신은 과연 어떤 삶을 자식에게 권하겠는가? 아예 그에게서 선택권을 앗겠는가?'

▪ 읽기 자료 4

민족과 민족어

김진해 (경희대)

복거일 씨(이하 '복 씨')가 '영어 공용어화'를 주장한 이래 언론이나 컴퓨터 통신에서는 허다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복 씨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세계화(그의 용어를 빌자면 '지구제국화')되는 지금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와 민족어를 버리자는 것이다. 민족어를 버리고 영어로 모든 언어를 표준화(standardization)시키자는 이런 주장의 배후에는 하나의 '지구 제국'이라는 바벨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미래학자' 복 씨는 영어가 단 하나의 국제어로서 거의 모든 부면에 쓰일 것이며, 민족어들은 점점 활력을 잃고서 차츰 사라져 중국에는 '박물관 언어'가 되어 일부 학자들이나 작가들에 의해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 제국으로 나가는 마당에 민



족어를 고수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구 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처절한' 민족주의를 버려야 한다. 우리가 모국어를 계속 떠받드는 것은 언어가 도구라는 사실을 놓치고 그것을 이상으로 떠받드는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한다.

그의 주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런 질문을 해 보자. 언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이 해명되면 언어로서의 민족어, 언어로서의 영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복 씨의 주장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이나 민족어라는 개념은 국가가 형성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형성되었다. 이전 시대와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일한 민족어(national language)로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것은 보통 한국 표준어, 즉 한국어 중에서 표준화된 방언을 말한다. 표준화된 방언이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동일화·동질화의 한 부분으로써 '표준화'를 성취한 결과이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어의 표준화가 필요했던 것은 생필품의 대량 생산이 충분히 가능해져서 통일화된 국내 시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민족어로서의 표준화는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상품 거래에 직접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민족이나 민족어라는 개념이 갖는 역사성은 이런 것이다. 복씨가 영어를 지구 제국의 표준으로 삼자는 주장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 제국으로 변하게 되리라는 그의 예측은 세계가 이제 상품, 문화, 언어, 의식을 포함한 모든 부분의 동일화·동질화·단일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어를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생각한다. 인간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의 힘을 놓치고 있다. 복 씨는 언어가 단지 도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골라 사용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자, '세계를 형성하는 힘'이다. 곧 물질적 성격을 갖는다. 언어는 사회를 반영하면서도, 그것을 운용하는 주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미 부여에 따라 사회 질서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곧 언어는 수동적인 도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의 의식에 관여하고 사회 질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언어는 그저 보편적·중립적으로 인간 사고나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자신의 의도대로 구축하고자 현실에 개입한다. 즉 언어는 사회 질서를 재구축하는 힘이 있다. '서클'을 '동아리'로, 'MT'를 '모꼬지'로 바꾸려는 언어적 실천은



퇴화한 우리말을 살리는 의미 외에도, 영어에 압도된 한국 사회에 대한 언어적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씨클'이나 'MT'에 없던 의미가 새로 생기고 이러한 명명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 80년대에 여대생들이 남학생 선배에 대하여 '형'이라고 명명했던 것도 당시 '오빠'라는 단어 주위에 맴돌던 '약하고 의존적 존재로서 여성'이라는 인식을 깨려는 언어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운동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동시에 쓰려는 것이나, history를 herstory로 바꾸려는 노력은 언어가 세계를 형성하는 힘을 인식하면서부터이다. 언어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명명 방식의 차이(쿠데타/혁명, 사태/운동/항쟁, 광복절/해방절), 동일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명명(재(財)테크/돈놀이, 근로자/노동자, 협의/협상, 사용자/자본가) 등을 보면 언어가 세계를 그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변경시키고 세계를 재구축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위나 계급 조건, 직업에 따라 언어의 운용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언어는 사회적 관계가 관철되는 공간이다. 언어 자체는 객관적이고 평등할지 몰라도 그것이 운용되는 현실에서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표준어와 사투리, 지식인 언어와 민중 언어, 경상도 방언과 전라도 방언, 부자 언어와 빈자 언어, 국제어로서의 영어와 민족어로서의 한국어, 영어를 잘 쓰는 교수와 잘 안 쓰는 교수 사이에는 일정한 사회적 차별성이 존재한다. 사회적 차별성의 언어적 외화는 현실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반영한다. 복 씨가 제기한 영어 공용화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미국의 패권이 철저히 관철되는 현재의 국제 질서에 그대로 편입하고 싶다는 고백이다. 민족어를 없애고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제안에도 언어가 세계를 형성하는 힘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영어가 국제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영어의 우월함 때문이 아니다.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 때문이다. 언어로만 놓고 보면 영어가 언어적 패권을 잡고 있으니 서자인 우리말은 버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제어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냐 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설득력이 없다. 도리어 언어적 패권에 도전하면서 주체를 형성할 것이냐, 무장 해제를 통해 주체를 상실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곧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민족 또는 민족주의가 국가의 형성과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그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민족주의의 대안으로 '지구 제국'을 제안하는 것은 문제이다. 왜냐 하면 민족주의가 없어지고 진정한 지구 제국이 되려면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불평등한 제조건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단힌’ 민족주의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예들을 보면 그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역사성이 없는가를 알 수 있다. 그는 ‘동해/일본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 독도 영토 분쟁에 대하여 한국인의 ‘단히고 감정적인’ 민족주의를 비판한다. 과거에 어떠한지 독도 분쟁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일본의 책략은 방기한 채 ‘둘 사이에 약한 나라는, 그래서 둘 사이의 분쟁에서 훨씬 손해를 크게 입을 나라는 우리다’라고 하면서 어색한 한일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생각하는 합리적 선택은 독도를 주자는 것인 듯).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로 넘어가면 그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동해는 주인 없는 공해이므로 그 이름에 딸린 ‘실익’이 없다고 한다. 실익도 없는데 쓸데없이 열 내지 말자는 것이다(이도 ‘일본해’로 하자는 말인 듯). 남북한이 어렵게 성사시킨 컴퓨터 자판 통일안에 대해서는 모든 표준이 협상이 아닌 경쟁을 통해 정해지며, 남한으로의 흡수 통일이 빠른데 무엇 하려고 정치적 타협을 하냐는 것이다.

여기까지 미치면 복 씨의 영어 공용화 주장이 힘의 논리, 강자의 논리, 경제의 논리, 지배/종속의 논리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설계한 ‘지구제국’은 사실은 미국 중심의 지구와 다름 아니다. 세계 질서는 빠르게 세계화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최종 목표가 공존·공영이라고 속단할 수 있는가? 미국적 이익이 철저히 관철되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것은 아닌가. 결국 그의 영어 공용화 주장은 힘의 역학 관계와 불평등 구조가 엄존하는 세계 현실에서 동화적 세계를 꿈꾸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그는 그러한 구조에 저항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판결한다. 그가 본 미래는 화려하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책략은 빈곤하다. 곧 ‘주체’와 ‘실천’의 포기.

▪ 읽기 자료 5

민족어의 미래

도 정 일 (경희대)

(1) 21세기는 한글과 한국어에 어떤 운명을 예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대단히 완곡한 것이다. 훨씬 급진적 방식으로 제시했을 때 그것은 “21세기에든 한글-한국어는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두 질문 사이에는 물론 차이가



있다. 전자는 민족어문이 인접 미래에 겪을 수 있는 모종의 '변화' 가능성에, 후자는 민족어문의 '소멸'이라는 훨씬 과격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자의 경우 '모종의 변화'란 민족어문의 존속이라는 전제 위에서의 언어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지위, 세력)을 의미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어문체계의 약화, 쇠퇴, 소멸과 어떤 다른 어문체계에 의한 '전면적 대체'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어느 경우이건 간에, 민족어문의 미래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볼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은 별 적절성도 진지성도 없는 것으로 들릴지 모른다. 언어의 통시적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한 언어에 발생하는 역사적 변화라는 것은 어문 체계(langue)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퍼포먼스/빠를 차원의 것이며 따라서 민족어문의 전면적 소멸이나 대체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겨진다. 정치적 지위 변화라는 것도 민족어문이 존속하는 한 그리 걱정할 일은 못된다. 그것이 존속하는 한 지위의 부침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런 낙관론의 근거는 대체로 세 가지이다. 첫째, 한글-한국어는 소수 부족언어가 아니라 국민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민족어이고, 민족어는 민족 자체의 소멸이라는 극단적 상황 전개가 없는 한 소멸하거나 소멸의 위기로 몰리지 않는다. 한국어는 한반도에 영토 기반을 둔 7천 5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갖고 있고, 이 규모는 천(千) 또는 백(百) 단위의 사용 인구를 가진 소수 부족언어나 만(萬) 단위 수준의 소수민족(독립 국민국가를 갖지 못한) 언어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인구학적 영토적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에 걸친 사용의 역사를 가진 토착 민족언어는 외부 영향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영향을 이겨내는 강한 내성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 지배계급의 공용문이었다던 한자의 영향이나 일제 식민통치세력에 의한 민족어문 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족어가 살아남은 것은 그 내성의 크기를 보여준다. 셋째, 한국어는 5백 년 역사의 문자체계, 높은 문자해독-사용률(literacy), 문화적 기반, 대중매체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족어의 발전을 위한 교육-어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인구학적 규모와 영토 기반, 전승체계와 문자사용력, 전통과 문화적 토대, 매체환경, 국가적 어문정책 등은 한국어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할 어떤 위기상황의 고려도 부적절한 것이게 한다. 이런 낙관론에 근거할 때, 위협 상황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병리적 공포의 산물이거나 잘 해야 가장 한가한 순간의 '과잉우려'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3) 언어의 소멸은 '소멸의 조건'이 '생존의 조건'을 압도할 때 발생한다. 소멸의 조건들은 상당한 복잡성과 복잡성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1) 천재지변이나 역병에 의한 사용인구의 격감과 종국적 소멸, 2) 정복집단에 의한 피정복 집단의



언어적 통합(예: 남북미의 경우) 혹은 그 반대 현상(바이킹어, 노르망디어, 만주어처럼 소수 정복집단의 언어가 다수 피정복집단의 언어에 흡수되는 경우), 3) 식민지배에 의한 토착 언어의 말살, 4) 강력한 외부 영향에의 장기적 노출, 접촉, 교류의 결과 지배언어에 의한 약체언어의 변화와 흡수(아프리카, 러시아, 태평양 지역, 오세아니아, 유럽, 중국) 등이다. 최근 언어소멸 문제에 집중적 관심을 쏟고 있는 연구자들과 유네스코 조사(『소멸위기에 처한 세계 언어지도』, 유네스코, 1996)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6천 개의 언어들 가운데 3천 개가 소멸의 위기에 처하거나 소멸해가고 있고 위기 언어의 숫자는 점점 불어나고 있다. 남은 3천 개의 언어들 중에서도 21세기말까지 약 2천 4백 개 정도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추정을 따를 때 다음 세기말까지 살아남을 언어는 6백 개 정도에 불과하다. 언어소멸의 원인과 속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비자연적 원인에 의한 소멸의 속도가 빨라진 것은 15세기 ‘정복의 시대’ 이후 19세기-20세기 중반까지의 제국주의 시대이다. 이 5백 년 동안 없어진 언어는 아프리카, 남북미, 오세아니아, 북중부 유럽, 시베리아, 동남아 등 세계 전지역에 걸쳐 약 1천 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미(미국) 지역에 국한해도 약 270개의 토착 인디언 부족언어들 가운데 현재 남은 것은 약 40개 정도이다. 그러나 향후 21세기의 백년간 소멸하거나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수는 지난 5백 년간의 소멸어 숫자를 훨씬 상회한다. 이런 사정은 20세기말 현재 세계의 언어적 자원들을 고갈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4) 이 강화된 조건들, 혹은 소멸의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세력은 무엇인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번 조건(천재지변, 역병)이 21세기에도 언어소멸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적다. 무력에 의한 정치적 세력변화에 해당하는 2)번 조건(정복과 복속)과 3)번 조건(식민지배) 역시 언어소멸의 21세기적 조건 구성요인으로는 그 작용 정도가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남은 것은 4)번 조건 — “강력한 외부 영향에의 장기적 노출, 접촉, 교류의 결과 지배언어에 의한 약체언어의 변화와 흡수”이다. 다른 세 개의 조건들이 약화된 대신, 이 마지막 조건은 20세기말 현재 유례없는 심도와 속도로 강화되고 있고, 그 강화의 정도는, 현재로는 미미해 보이는 변수들을 무시할 경우, 향후 21세기 전반부 50년간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강력한 외부 영향’이란 무엇인가? ‘외부 영향’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가 지칭코자 하는 것은 이미 상당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환경변화로서의 단일 세계시장체제의 대두이다. 자유시장 체제는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단위 국민국가와 사회들이 ‘적응’을 강요받고 있는 신질서이며 실질적 의미에서의 ‘세계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영역이며 국가 간 생존경쟁이 격심해지고 있는 새로운 환경이다. 이 새로운 세계 환경으로서의 시장체제는 사실상 모든 단위국가들의 편입과 적응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외적 환경'을 형성하고 단위국가-사회들이 생존을 위해 그 신체제에의 적응 기술과 게임 규칙을 자발적으로 채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미 '내적 환경'을 구성한다. 외적 환경의 이 자발적 내부화 현상("변해야 산다", "무한경쟁의 시대", "국제규범에 맞추기")은 시장체제적 규범과 게임물의 내면화에 비강제성을 띄게 함으로써 외적 환경변화로서의 세계화를 '강력한' 것이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역사상 가장 특수한 요인이다. 세계화한 단일 시장체제는 말하자면 21세기 전반부 혹은 세기의 전 기간에 걸쳐 단위국가들에게 안팎 구분이 불가능한 '전면적이고 지배적인 환경'이 될 모든 경향들을 충분히 보이고 있다.

(5) 단일 세계시장체제가 '전면적이고 지배적인 환경'이 된다는 것은 그 체제가 단순히 경제 층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층위를 넘어 21세기 단위 국민국가-사회들의 생존방식과 행태, 가치체계와 신념을 포함한 이데올로기, 사회조직, 정의(定議)의 체계(피에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로서의 교육과 문화 등을 지배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관측은 적어도 지금의 추세로 판단할 때 결코 맹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 이미 현 정부는 세계체제에의 적극적 적응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고 시장논리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다른 어떤 논리나 가치보다도 선행시키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이른바 '신지식인' 운동에 깔려 있는 내적 동기는 경제적 부가가치 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도구적 지식과 방법지(方法知, know-how)를 다른 어떤 종류의 지식이나 비판적 지성보다도 우위에 두려는 것이다. 이는 도구이성으로 비판이성을 대체하고 목적합리적 기술 '지식'으로 비판적 '지성'을 전면 경질하기 — 곧 기술지식의 권력체제화를 추구한다.) 민족어의 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 영역'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신환경의 대두를 배경으로 해서이다. 앞서 거론한 언어소멸의 조건들 가운데 1)번에서 3)번까지의 요인들이 한국어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4)번 조건의 현대적 전개는 다른 국지 언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1세기 한국어의 운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possibility)과 개연성(probability)을 구비하고 있다.

(6) 이 영향의 가능성-개연성을 검토하는 데는 민족어의 유구한 존속이나 현재적 생명력(vitality)의 정도, 어문체계에 대한 지식 같은 기준보다는 민족어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몇 개의 다른 요인들을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에서 고려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 가) 경제 층위에서의 민족어의 위신(prestige) 약화와 추락
- 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언어 이데올로기의 대두 — 지배언어의 공용어화
- 다) 민족어의 유지 발전에 대한 의지의 약화와 재능 결핍
- 라) 민족어의 제2언어 혹은 방언화

가)와 나)가 거시적 요인들이라면 다)와 라)는 미시적 요인들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번의 '위신약화 요인'은 이미 발생하고 있고 이는 21세기 어느 시점에 가서 나)번 요인의 도입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게 하거나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이다. '강력한 외부 영향'과의 조우에는 과거 소수 부족언어들이 소멸의 길을 걸은 것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거나 대응하는 데 소수 언어의 사용 자체가 그 사용자들에게 불리했거나 최소한 적응의 소득(실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소수언어집단 말고도 숙주국(host-country)에의 빠른 적응을 필요로 하는 이민집단-가족의 경우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소수 언어집단과 이민집단의 경우 그것은 단위 집단의 결정에 따른 미시적 현상임에 반해, 지금의 세계체제에서 상대적 약체성을 경험하고 있는 다수 국지 언어들의 경우 위신 약화는 초국가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에서 거시적 요인이다. 그러므로 한국어가 21세기 세계시장체제에서 누리는 위신의 정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에서 보면, 그리고 경쟁력 강화라는 명령의 압박에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할 경우, 나)번 요인("언어 이데올로기의 대두와 지배언어의 공용어화")이 등장할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언어 이데올로기'가 의미하는 것은 세계체제에서 필요한 것은 세계어이지 방언이 아니라는 판단의 공적 정책화, 다시 말해 지배언어의 적극적 정책적 채택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어 혹은 지배언어는 '영어'이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이미 '영어의 공용어화 필요성'이라는 제안이 사회적으로 거론된 바 있고, 영어로 작품을 쓰겠다는(?) 작가도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몇몇 기업체에서는 회의와 문서작성에서 영어의 기준언어화 방침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아직은 미시적 차원에 머물고 있지만 그것이 관(官), 교육, 매체, 텍스트 등의 공영역으로 공식 확대될 경우 거시적 차원에서의 민족어 위축 요인은 강화된다. 이 전망에서 말하면 21세기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는 영어와 민족어의 지위를 일단 평등화하는 '이중언어정책(bilingualism)'의 공식 채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7) 거시적 차원에서의 민족어 위축 요인들이 강화될 때 이 추세에 맞서서 민족어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민족집단 내부의 의지와 재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역사상 그리고 지금도, 다수언어 환경으로의 적응이



라는 현실적 요청을 강하게 받고 있는 부족사회나 소수민족의 경우에도 지배언어와의 이중언어적 혹은 다언어적 공존이 반드시 토착언어의 소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소수언어집단 내부에 자기 언어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와 재능이 살아 있을 경우이다. 일제 치하에서의 민족어 지키기의 의지와 재능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미시적 차원에서의 선택, 결정, 실천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국지 토착어나 민족어의 위축-소멸은 가속화하기도 차단되기도 한다. 만약 그것이 가속화의 방향을 취할 때, 라) 변 요인(“민족어의 방언화”)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지배언어 앞에서 민족어는 제2 언어로 내려왔고 그 지위는 국지적 ‘사투리’로 강등되며 그 언어 사용자의 사회적 지위 역시 결정적으로 추락한다. 물론, 긴 역사와 다수 사용인구를 가진 한국어가 불과 백 년 사이에 (그 백 년간의 변화 속도가 제 아무리 빠르고 그 압박이 강하다 하더라도) 전면 소멸의 위기에 처할 전망은 극히 희박하다. 그러나 이상의 요인들이 장기에 걸쳐 집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민족어의 방언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방언의 조건이 오래 지속되고 지배언어의 세력이 계속 강화될 경우 한국어의 점진적 소멸이라는 상황 역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8) 세계화 환경이 심화시키고 있는 여러 다른 요인들도 민족어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참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화 문맥의 일부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로는 국민국가의 권능 위축, 문화의 탈영토화와 탈문맥화로 인한 문화 잡종화, 문화적 지속성(집단기억과 정체성)의 파괴, 개인-집단들의 연대와 충성의 방식에 발생하고 있는 탈국경화 현상, 정보 네트워크-인터넷 등의 사이버 공간과 과학-공학기술 및 소통기술(communications technology) 영역에서의 특정언어의 지배력 강화, 문화생산 방식과 소비문화의 세계적 획일화 경향, 지배언어(현재의 영어)의 매체 장악력 증대와 정보 생산-습득-유통 과정에서의 세력확장, 다문화(multicultural) 환경의 심화 등은 이미 주목되고 있는 변화들이다. 물론 이상의 요인들이 반드시, 모든 경우에, 민족어에 부정적 영향만을 끼친다든가 일방적으로 문화의 획일화만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때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낙관의 근거들은 상당 부분 허약한 것이라는 판단을 무시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일한 낙관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창조적 대응의 방식과 정책을 모색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 어디에선가는, 적어도 학계에서는, 21세기적 상황 전개가 민족어의 운명에 몰고 올 수 있는 변화의 폭과 깊이를 사유하고 상상하고 대응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약간의 유보를 두고 말한다면, 경제 영역은 민족어의 미래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고, 정치 영역은 치적 과시를 위한 단기적 성과 위주의 일회성 ‘이벤트’나 꾸며내고 선전 홍보용 밀레니엄 경축행사를 위한



‘잔피’ 같은 것이나 생각해내느라 여념이 없다. 매체들의 경우에도 밀레니엄은 진중한 사유의 대상이기보다는 거품성 상품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밀레니엄의 도래를 민족-민족어-민족문화에 연결지어 생각해보려는 의지와 사유능력의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9) 민족어 문제는 왜 중요한가? 세계의 언어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일은 왜 필요한가? 민족어의 미래를 생각하는 작업이 궁극적으로 봉착하는 질문은 언어적 다양성의 가치와 국지 언어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생물다양성이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그러므로 파괴될 수 없고 일단 파괴되고 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가치라면, 언어의 다양성도 인간의 문화생태계 유지에 극히 중요한 가치이다. 그 다양성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지적 정신적 특성의 가장 찬란한 구현이며 창조성, 상상력, 세계 인식방법, 표현력, 소리와 부호화의 보고(寶庫)이다. 어떤 단언어도 그 자체로는 이 같은 다양성을 모두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언어 다양성은 거대한 문화적 자원임과 동시에 인간과학의 자원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멸 속도를 방치할 경우 다음 세기말까지 이 같은 언어 자원의 약 90퍼센트는 사라진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위적 복구가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이며 인간의 지적 정신적 능력의 궁핍화이다. 과거 한때 부족어의 소멸을 조장했던 유수의 국가들이 자국내 소수 언어의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투자를 증대시키고 인력 양성과 사용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언어 다양성의 파괴로 인한 인간 능력의 궁핍화가 문화생태계의 위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산법이긴 하지만, 자연생태계의 다양성이 지닌 거대한 힘은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문제의 해답’들이 그 다양성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생물다양성과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은 말하자면 해답을 기다리는 문제들의 보고가 아니라 “문제를 기다리는 해답”의 창고이다. 인간은 아직도 장구한 역사시대를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그가 지금까지 발견한 문제보다는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더 많다. 그러므로 다양성의 파괴는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문제의 선취적 해답체계를 인간이 제 손으로 고갈시키는 행위가 된다.

(10) 도구적 언어관은 언어에 대한 정당한 인식방법이 아니다. 언어에는 소통의 목적에 봉사하는 도구적 성격이 있지만, 언어의 진정한 힘과 가치는 ‘존재의 실현’에 있다. 언어를 ‘인간 존재의 집’이라 말할 때의 그 존재의 집이란 인간이 언어를 통해 존재를 실현하고 세계를 창조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구현하는 장소이다. 이 장소는 세계어가 아니라 국지 토착어--인간 개체가 태어나 성장한 바로 그 부족언어이고 민족언어이다. 세계화의 문맥 속에서도 개체 인간의 가장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모태는 구체적 국지성(locality)의 환경이지 추



상적 세계성(globality)의 문맥이 아니다. 경제적 이유로, 시장체제적 적응을 목표로, 경쟁력 강화를 구실로 국지 토착어의 위축과 소멸의 조건을 만들거나 조장하는 것은 창조적 삶의 모태 자체를 파괴하는 일이 된다. 국지 언어의 위축과 소멸은 곧바로 국지성의 약화와 소멸을 초래하고 이는 인간의 존재 조건 자체를 궁핍화한다. 도구로서의 언어라는 관점은 지배의 논리에는 봉사할 수 있어도 존재의 실현과 공존이라는 목적에는 봉사하지 않는다. 기술주의적 도구주의는 삶의 한 방편일 뿐 목적은 아니다. 21세기에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의 민족어와 소수 언어들은, 몇몇 국제 언어를 제외하고는, 제2, 제3 지위의 방언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 위기 국면에 개입하여 언어 다양성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와 재능을 강화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

▪ 읽기 자료 6

한·일 영어 현실 비교

로버트 파우저 (일본 구마모토 가쿠엔 대학 교수, 응용언어학)

소설가 무라카미 류는 일본 불경기가 극에 달했던 몇 년 전 이런 말을 했다. “일본은 피상적인 개혁으로는 되지 않는다. 포맷을 새로 해야 하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본 경제를 성공으로 이끈 운영체제(OS)를 갈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일본 총리자문 ‘21세기 일본구상 간담회’ 보고서 가운데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채택하자는 제안이 한국의 관심을 끌었다. 일본의 새로운 운영체제를 완전히 이중 언어,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것이 핵심.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뒷받침과 영어 인프라가 필요하다. 일본과 한국을 이 두 가지를 통해 비교해보자.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서 모두 영어는 여전히 시험용 언어다. 그러나 일본은 나름대로 영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실천해 왔다. 특히 학교에서 영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한국 사정은 더 나쁘다. 극소수의 영어 교사를 제외하면 영어로 자신 있게 교과목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 영어권 국가에서 교사를 데려 올 수도 있지만 교사들의 낮은 급여, 예산의 제약, 그리고 한국적 ‘장벽’을 생각하면 쉽지 않다. 외국인을 혐오하는 한국의 대학 분위기를 감안하면 회의적이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대학은 그런 시도조차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사정이 좋다. 교사들 급여가 한국보다 좋아 일반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무너지는 교실’이라는 얘기에 불구하고 인재들이 학교로 모인다. 비판도 있었지만, AET(Assistant English Program)를 통해 수만명 영어 원어민이 1980년대 중반부터 교육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정규 교과목 내에 영어 집중코스를 만들어 넣은 중·고등학교도 있다. 아사히신문 ‘대학 랭킹 2000’을 보면 외국인 교수의 비율이 10%가 넘는 대학의 전체 632개 4년제 대학 가운데 65개나 된다.

영자 신문과 출판 수준도 일본이 한국보다 뛰어나다. 지방 정부 인터넷 사이트를 비교해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영어 번역·교열의 질도 높으며 관광 안내에는 오자나 이상한 표현이 거의 없다. 인쇄 매체의 영어 수준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버금간다. 언어산업에서 일본인들과 영어 원어민이 상호작용을 통해 일본인들의 영어가 충분히 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영어교육을 새로 포맷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벽’을 허무는 작업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와 교육에서는 여전히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력하며, 학교에서 영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주장도 강력하다. 그러나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보듯, 이중 언어는 결코 모국어를 해치지 않는다. 제2, 제3의 다른 언어를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 자기 나라를 다문화 국가로 규정하고 지역 문화와 글로벌 문화를 둘 다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을 보인다. 2030년이면 단일문화, 단일언어로 남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고, 영어를 글로벌 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생활양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벽’만 고집하면 한국은 20세기 박물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4. 나오는 말

- 다시 언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도구인가, ‘존재의 집’인가? 아니면?



문학과 언어

南 基 弘*

1. 문학이란 무엇인가?

1.1. 문학의 기원

문학의 기원설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크게 심리적 욕구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견해와 사회적 욕구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견해의 둘로 요약할 수 있다.

1) 심리적 욕구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견해

- 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충동설
- ② 칸트의 유희충동설
- ③ 허드슨의 자기과시설

2) 사회적 욕구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견해

· 현(Y. Hirn)과 그로세(E. Grosse)의 발생론적 기원설 - 원시종합 예술설, 예술은 실용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

1.2. 문학의 어원과 속성

문학(literature)은 원래 litera에서 왔는데, 그 뜻은 ‘언어로 된 모든 글’을 의미하는 letter와 같은 개념이었다. 나무껍질 등을 벗겨 동물의 뼈로 글을 쓴 것이나, 동굴의 벽에 써 놓은 글 등도 모두 litera의 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예술적인 글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글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문학의 원초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문학의 개념은 예술적인 의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장이 포함되어 있는 글, 즉 상상력에 바탕을 둔 미적인 범주의 글만을 포함한다. 문학은 예술 중에서도 ‘언어예술’인 것이다.

1.3. 문학의 네 가지 관점

『거울과 램프』라는 책을 쓴 영미비평가 에이브럼즈는 문학의 관점을 모방론, 표현론, 효용론, 존재론의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 모방론

문학은 모방의 형식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 그것은 사물 그 자체, 자연의 실재, 삶의 원리 등 이른바 삶의 현실을 언어로 재현 또는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작품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허구의 세계를 꾸며내 작품을 완성하지만 무의미한 허구가 아니라 인간의 진실성을 담고 있는 보편적 세계를 그려내는 의미 있는 허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2) 효용론

문학작품과 독자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 문학작품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 교훈설(공리설) - 가르침, 교정, 깨달음
- 쾌락설(오락설) - 재미, 즐거움

이 둘을 아우르는 것이 톨스토이의 ‘예술감화론’이다.

3) 표현론

문학작품이 바로 작가의 창조력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보이는 관점이다.

- 영감설(靈感說) - 낭만주의 예술관에 기초
- 장인설(匠人說) - 고전주의의 견해

4) 존재론

문학 텍스트 자체가 어떻게 생명력을 갖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문학작품을 ‘역학적이고 동적인 구조(dynamic structure)’로 본다. 또 문학작



품을 발달된 생물체의 조직과 같은 성질을 가졌다고 해서 유기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를 ‘문학유기체설(organicism)’이라고 한다. 문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1.4. 우리는 왜 문학작품을 읽어야 하는가.

문학 독서의 이상적 상태는 책이라는 마법 세계에 빨려들어갔던 유년 체험을 재생하는 일이고 복원하는 일이다. 일상적 자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매혹의 집중, 주인공의 모험과 아슬아슬함과 낙담과 행복에 대한 전신적인 공명,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가슴 설레는 동경과 호기심을 회복하는 일이다. 아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공자의 말은 문학 독서에 경우에도 고스란히 해당된다. -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2. 시론

2.1. 시의 언어

1) 의사진술의 언어

I. A 리차즈가 말한 ‘의사진술(pseudo statement)’이란 진술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진위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는 언어를 말한다. 예) 내 마음은 호수요

2) 함축적 언어

- 외연 - 기표 : 기의 = 1 : 1, 과학적 언어, 일상언어, 사전적 의미
 - 내연 - 기표 : 기의 = 1 : 多, 함축적 언어, 문학적 언어
- 국어사전의 국화와 서정주의 국화와의 차이점(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을 생각해 보자.



3) 서정시와 서사시

서정시는 본질적으로 정서의 표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이다. 서정시는 본질적으로 일인칭 자기 고백체, 주관 표출의 문학 양식, 순간의 형식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정시는 본질적으로 화자의 내면적인 정서 표출을 목표로 하는 문학 장르이다. 객관세계의 사물들은 서정시에서 모두 주관적인 정서의 표출을 위한 도구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세계의 자아화’라 한다. 서정시는 순간적 감동 혹은 즉흥적 영감의 표현이 중요한 특징이다.

서사시는 이야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로 화자가 있고 줄거리가 있다. 내면 정서가 표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야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

4) 시의 운율

운율이란 가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운율을 형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반복이다. 음운이나 음절 혹은 단어나 구절의 반복을 통해 시는 운율을 만들어 낸다.

① 운율의 종류

운이란 한시나 영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일정한 소리가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두운, 각운, 요운, 자음운, 모음운 등이 그것이다.

율이란 고저나 장단 혹은 강약과 같은 율격적 특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운이 일정한 위치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음운의 반복이라면 율은 시간적 질서 위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양의 반복을 말한다. 복합율격이란 운이나 율이라는 소리 자질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율격이란 이러한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소리 자질로 작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한시나 영시의 경우는 복합율격이지만 우리 시의 경우는 한국어 특성상 단순율격이다.



② 자유시와 산문시

자유시는 매 시편마다 독특한 운율을 창조한다. 그리하여 자유시의 운율을 정형시의 외형률과 구분하여 내재율(internal rhythm)이라 한다. 운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만의 개별적인 운율이 존재한다. 자유시는 행이나 연이 구성단위가 된다.

산문시 역시 내재율이지만 자유시와 구별되는 것은 행이나 연 구분이 없다는 것이 그 중요한 특징이다. 굳이 말하자면 단락이 그 구성단위다.

5) 이미지의 이해

C. D. 루이스는 이미지를 ‘언어로 짜여진 그림’이라고 정의했다. 시에 있어서 이미지란 관념의 육화라고 할 수 있는데 시인이 관념을 직접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시는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예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미지란 관념과 사물이 만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① 지각 이미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기관감각, 근육감각 이미지

② 비유적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

비유, 상징과 유사

6) 비유

비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결합 관계 때문이다. 테이트(A. Tate)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팽팽하게 고조되고 그것이 시를 더욱 시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이를 ‘긴장(tention)’이라고 하였다.

① 직유와 은유

② 환유와 제유

- 환유 -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연관성 있는 다른 사물로 대신하는 비유법
- 제유 - 부분으로 전체를 혹은 전체로 부분을 지칭하는 비유법

③ 상징

- 원관념이 은폐된 은유.



- 은유가 보조관념과 원관념 사이가 1 : 1인데 비해 상징은 1 : 多
- 관습적 상징 - 자연적 상징, 제도적 상징, 알레고리컬 상징
- 창조적 상징 - 개인적 상징(시적 상징)

3. 소설론

3.1. 소설의 본질

- 동양 - 풀어 헤쳐 드러낸 작은 이야기. 『장자』의 외물편
- 서양 - 중편 이상의 길이를 가진 소설, 로망보다 새롭다는 의미의 노블(novel), 중세 기사담을 의미하는 로망, 스토리
 - ① 허구적인 이야기
 - ② 서술적인 산문
 - ③ 인생을 표현하는 창작 문학

3.2. 소설의 요소

1) 소설의 플롯(plot)

스토리과 플롯의 구별, 낯설게 하기

2) 시점(point of view)

- ① 1인칭 주인공
- ② 1인칭 관찰자
- ③ 전지적 작가, 중립적 전지
- ④ 선택적 전지

3) 소설의 인물

- ①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 ②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
- ③ 인물 설정의 방법 - 말하기와 보여주기



4) 소설의 주제

주제는 작가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결합되어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며 소설의 갈등 구조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4. 비평론

문학비평이란 작품에 대한 자기(비평가)의 해석을 남(독자)에게 납득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진술하는 문학 장르라고 규정할 수 있다.

1. 역사·전기적 비평
2. 형식주의 비평
3. 구조주의 비평
4. 사회·문화적 비평
5. 심리주의 비평
6. 신화·원형 비평
7. 현상학적 비평
8. 수용미학이론 등 기타 비평

국립국어원 2007-3-8

바른 국어 생활 교사 연수 교재

2007년 8월 29일 인쇄

2007년 8월 31일 발행

발행인 : 이상규

발행처 :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 (02) 2669-9775

(02) 2669-9752
